
당신

키다리 아저씨께

키다리 아저씨

1장. “짱 나는 수요일”

(원문→“우울한 수요일”)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은 너무도 끔직한 날이었다. 두려움 가득 그날을 기다렸다가 급히 서둘러 용기와 망각(잊음)으로 견디는 그런 날 말이다.

모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닦여져야 하고, 모든 의자엔 낙서 하나 없어

야 했고, 모든 침대엔 구김 한 번 없어야 했다.

꿈틀대는 97명의 어린 고아들이 때밀이로 박박 때를 밀고 빗질을 하고 다름 질을 한 새 옷에 단추를 단단히 잠겨야 했다.

또한 이 97명의 아이들은 예법들을 기억해야 했고 만약 평의원(=고아원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분들)님들이 물으실 경우,

“네, 선생님.”

또는,

“아니오, 선생님.”

라고 대답해야 했다.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특히나 고아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가련한 ‘제루샤 에벳’(여주인공 이름. 에벳은 남자 이름임)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자신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했던 첫 번째 수요일도 마침내 꾸역꾸역 종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고아원 손님들을 위해 샌드위치들을 다 만든 후 식료품저장실을 벗어나, 제루샤(여주인공 이름)는 자신의 정규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위층으로 향했다.

특히나 ‘바’(원문→에프) 방에 무척 신경을 기울였는데, 그 방에는 4살부터 7살에 이르는 11명의 어린 꼬마들이 일렬로 널어진 11개의 간이침대에 거주하고 있는 방이었다.

제루샤는 아이들을 모은 다음, 구겨진 옷들을 곱게 펴주고 코를 닦아준 다음 그들이 질서 있게 줄을 이루며 식당으로 출발하도록 했다. 그 애들에게, 빵과 우유 그리고 자두 푸딩(서양과자)과 함께 축복받은 30분을 약속해주고 있는 식당 말이다.

그런 다음 제루샤(여주인공이름)는 창가 쪽 의자 위에 앉아 고동치는 관자놀이(귀와 눈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를 차가운 창문에 기대었다.

이날 아침 5시부터 한시도 앉지 못했더랬다.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 신경질적인 보모가 꾸짖고 다그치는 통에 말이다.

리넷 원장은, 평의원(=이사)들과 부인 방문객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차분하고 위엄 있게 행동했지만 무대 뒤편 항상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루샤는, 고아원 경계 자국을 내고 있는 키 큰 철제 울타리 너머로, 넓게 뻗은 언 잔디밭 저쪽을 바라다보았다.

그 아래로는 시골의 사유지들이 섞인 울퉁불퉁한 산등성이들이 보였다.

마을의 뽕죽탑들이 듬성한 나무들 가운데로 높게 솟아나 있었다.

어쨌든 그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적어도 제루샤(여주인공이름)가 아는 한은 말이다.

평의원 분들과 함께 방문한 후원인 분들은 한 바퀴 둘러본 후 제출된 보고서들을 읽고 차(마시는 차)를 한 잔씩 했다.

그리고 이젠 그들도 서둘러 자신들을 기다리는 활기찬 벽난로 가가 있는 집으로 돌아들 가고 있는 중이었다.

다음 달에 있을 그들의 방문이 어떤 성가심을 주는지 망각한 채 말이다.

제루샤는 호기심 가득 그들을 쳐다보며 몸을 숙이고 있었다... 동경의 눈, 햇불... 고아원 정문을 굴러나가고 있는 마차들과 자동차들의 행렬들.

상상 속에서, 제루샤는 첫 번째 마차를 따라 산중턱에 있던 어느 큰 저택으로 향했다.

자신이 마차 좌석에 몸을 파묻고는 무심한 듯 “그만 집으로”라고 마부에 게 중얼거리고 있는, 모피 코트와 깃털로 테두리를 다듬은 벨벳 모자를 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하지만 그 큰 집 문지방에 막 다다랐을 때 형상(그림)이 점점 흐려졌다.

제루샤는 상상력을 가졌다... 풍부한 상상력, 그래서인지 리렛 원장은 제루샤에게 말하길, “주의하지 않음 곤란에 부딪힐 거”라고...

하지만 그 예리한 상상력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귀부인 들어설 저택의 현관문 너머는 상상이 잘 안 되었다.

불쌍하고, 열성적이고, 모험적인 고아 제루샤는, 이제 17살이었다.

그녀는 결코 평범한 집에 발을 들여놓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도무지 다른 인류, 그러니까 고아원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다른 인류가 어떤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지 상상을 해볼 수 없었던 것이다.

(▼아래는 고아원 합창단 소년이 장난으로 노래 부르는 소리)

〈제—루—샤 에—벗

부른다

원—장 실에서

내 생각엔

서두르는 게 좋을 듯!〉

토미 딜런(이름 알 필요 없음. 한 번만 나오는 이름임)은 합창단에 속해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와 복도를 따라 거닐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바’ 방이 가까워짐에 따라 노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제루샤가 창문에서 머리를 떼어 다시 현실 속 문제들로 돌아와,

“누가 찾는데?”라며 걱정을 한 가득 담아, 토미의 노래에 끼어들었다.

(▼토미가 노래로 대답하는 것임)

<리켓 원장이 급히 찾아, 원장실에서,
내 생각에 그녀가 미친 것 같아.
아—아—멘!>

토미(고아원 합창단 단원. 이름 알 필요 없음.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가
비록 기도문 식으로 노래를 불렀지만, 하지만 그의 말투에 전혀 악의적인 기
색은 찾을 수 없었다.

왜냐면 죄를 범한 누이가 화를 내고 있는 여간수(원장)에게 사무실로 호출
당하면 아무리 기가 센 고아원생이라도 동정심을 느끼게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고, 또한 제루샤가 토미의 팔을 껍 잡아당기거나 콧물을 너무 세게 문질
러 없애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미는 제루샤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제루샤는 잠자코 향했다.

하지만 이마엔 벌써 두 줄이 생긴 상태였다.

‘뭐가 잘못된 걸까’, 하고 제루샤는 생각했다. ‘오늘 나온 샌드위치가 충분
히 두텁지 못해서일까? 아님 땅콩 케이크에 땅콩 껍질이라도 들어간 걸까?
아님 틸(구멍)에 끼어 여자 방문객 한 분의 스타킹에 구멍이라도 난 걸까?
그게 아니라면... 아 설마!... 우리 ‘바’ 방에 있는 천사 아가들 중 한 명이 평
의원 한 분께 말대꾸를 했나?’

길고 낮은 복도엔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제루샤가 아래로 내려와 보니, 마지막 남은 평의원 한 분이 출발지점에 서
계시다가 열린 문을 통해 ‘포르트 코셰르’(현관 앞의 마차 대는 곳. 사진링크
▶ <http://me2.do/FLzLgF75>)로 걸어가고 계셨다.

제루샤는 흡사 그 남성의 첫인상이 키가 엄청 커다는 인상을 받았더라.
커브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를 향해 그 남성이 손을 흔들었

다.

자동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정면에서 접근함에 따라, 눈부신 헤드라이트(자동차의 불빛)가 그 분의 그림자를 벽 안쪽으로 날카롭게(원문→뚜렷이) 내던졌다.

이상하리만치 길게 늘어진 다리들과 팔들이 바닥을 따라 복도의 벽 천정까지 길게 그림자를 그리웠다.

어쨌든 세상에, 저건 꼭 무지막지하게 큰 ‘장님거미’(=거미의 일종=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의 원래 영어 제목이 ‘장님거미’임. 우리말로 하면 ‘다리가 긴 꺾다리’란 뜻임) 한 마리가 꿈틀대고 있는 것 같잖아.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눈살을 찌푸리다 급 웃음꽃이 핀 제루샤는 원래가 해맑은 영혼이었다. 그래서 전혀 웃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평의원의 답답한 이미지에서 일종의 재미를 찾은 건 기대치 않은 소득이었다.

이 사소한 에피소드(사건)에 무척 기분이 좋아진 제루샤는 원장실로 계속 가, 미소 짓는 얼굴로 리벳 원장(이름 몰라도 됨. 다시 안 나옴)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얼씨구, 이 나이 지긋한 원장님 또한 정확히 말해 미소는 아니었지만 나름 상냥한 태도로 제루샤를 맞아주었는데,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입었던 웃만큼이나 다채로운 표정을 짓고 계셨다.

“제루샤, 앉거라, 네게 해줄 말이 하나 있다.”

제루샤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의자에 움츠리듯 주저앉아 숨죽인 채 기다렸다.

좀 전 그 자동차의 불빛이 원장실의 창문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리벳

원장이 그것을 뒤따라 흘끗 보았다.

(리벳 원장의 대사→) “너도, 방금 막 나가신 신사 분을 목격했겠지?”

(제루샤의 대사→) “등만 본 걸요.”

“그는 우리 평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다. 지금까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고아원 기금으로 기부도 하였고 말이다. 엄밀히 말해 내가 그 분의 성함을 말할 권리는 없다. 그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기를 기부의 조건으로 내거셨거든.”

이 부분에서 제루샤의 눈이 살짝 휘둥그레졌다.

별난 평의원에 관해 얘기하려 자신을 원장실로 부르는 건 원장의 평소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신사 분께서는 우리의 소년들 중 몇 명에게도 관심을 표하고 계신다. 너도 기억하지? ‘찰리 벤톤’과 ‘헨리 프리즈’ 말이다.(두 소년 모두 몰라도 되는 이름임. 다시 안 나옴) 그 애들은 미스터... 이 평의원께서 후원해 주셨고, 그 애들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나름 성공할 수 있었지. 그 신사분이 바란 건 하나도 없었던단다. 지금까지 그의 자선활동들은 모두 소년들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단다. 고아원에 있는 여자애들에겐 전혀 관심을 표하시지 않으셨지. 여자애들이 후원을 받을만한가는 둘째치고서라도 말이다. 그래 내가 네(제루샤)게 말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지금까지는 여자애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셨다는 것이다.”

“네, 원장님.”라며 제루샤가 웅얼거렸다. 이 부분에서 자신에게 뭔가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늘 정기 모임에서는, 네(여주인공인 제루샤) 장래에 관한 얘기가 꺼내어졌다.”

리벳 원장은 잠시 땀을 들인 다음 누가 보더라도 제루샤가 긴장했을 게

뻔했기 때문에 얘기를 천천히 다시 시작했다.

“너도 알다시피, 대개의 경우에는, 16살이 되면(제루샤는 현재 17살임)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넌 예외였다. 네가 14살에 고아원 학교를 마쳤을 때, 네 학업 성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과목이 다 좋은 건 아니었다만. 결국 내 주장에 따라 넌 근처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에 여기에 있으면서 다니는 게 허락되었고, 이제 그 마저도 다 끝마쳤다. 물론 그 이상의 교육(대학교)을 고아원에서 지원해줄 순 없단다. 넌 이미 다른 아이들보다 2년이나 더 교육을 받은 경우이니 더더욱 말이다.”

지난 2년 동안 제루샤가 열심히 생활했다는 사실과 고아원의 편의를 받아 첫 번째 학업 과정과 두 번째 학원 과정을 마친 사실과 아이들을 돌보며 고아원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사정을, 리펫 원장은 쭉 훑어나갔다.

“이미 말한 대로, 평의원 회의에서 네 장래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네 경력이 화제로 다루어졌단다... 아주 철저히 말이다.”

리펫(여자이름) 원장은 독(항아리) 안에 든 이 죄수의 유무죄를 따지려는 듯 비난하는 눈초리로 찬찬히 살폈다.

그건 리펫 원장의 평소 버릇이었으며, 특별히 평의회 회의 때 제출되었던 제루샤의 성적표에서 유달리 참담했던 과목의 성적을 기억해냈기 때문은 아니었다.

“물론 네게 줄 수 있는 배려들 중 하나는 네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알맞은 직책을 찾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네 학업성적들 중 어학관련 성적들이 워낙에 우수해서 말이다. 특히나 국어(영어) 성적이 놀랍더구나. 오늘 방문한 위원 중 한 분인 프리처드 여사(몰라도 되는 이름임. 다시 안 나옴)는 학교 이사시기도 한데, 그녀가 말하길 네(여주인공인 제루샤) 수사학(언어의 사용을 연구하는 학문)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선생님이 너에 대

해 호평을 하셨다고 하더라. 그리곤 프리처드 여사가 위원회에서, 네(여주인공인 제루샤)가 「짱 나는 수요일」(원문→우울한 수요일)이라고 제목 붙인 에세이 한 편도 소리 내 읽으셨단다.”

그 말에 제루샤(여주인공이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짱 나는 수요일이란 에세이. 고아원에 평의원들이 방문하는 날이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이라 에세이 제목에 수요일이 들어감) 네게 은덕을 베푼 시설(고아원)을 조롱하면서도 고마움은 거의 비취지 않는 글 같았다만. 그런 글에 과연 위원회에서 읽혀질 만큼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었다만. 어쨌든 네(제루샤. 여주인공이름)겐 다행스럽게도, 그 자리에 계셨던, 미스터… 방금 나가셨던 그 신사 분께선… 음 그 분은 좀 무분별한 유머 감각을 가진 듯 하더구나. 그 건방진 에세이 한 편과 네 국어성적에 힘입어, 그분이 너를 대학교 보내주시겠다고 제안했단다.”

“대학에요?”라며 눈이 휘둥그레져선 제루샤(여주인공이름)가 말했다.

리펫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키다리 아저씨)는 그 문제를 나와 상의하러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원래가 평의원 분들은 유별난 데가 많은데, 굳이 말하자면, 그 신사 분은 좀 상식을 벗어난 별난 데가 있다. 그 분은 네(여주인공) 창의력을 믿는다더구나. 그래서 네게 작가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해줄 계획이라더라.”

“작가요?” 어찌나 정신이 얼얼한지 제루샤는 다만 리펫 원장의 마지막 단어(작가)를 반복하기만 했다.

(리펫 원장의 대사→) ”그것이 그(키다리 아저씨)의 희망이다. 그래서 어찌 될 지는 곧 알게 되겠지. 일단 그 분은 네게 제법 넉넉한 용돈을 주실 게다, 거의, 용돈이라곤 생전 한 번 받아 본 적이 없는 여자애에게 있어선 아주 넉

넉한 금액일 게다. 하지만

(읽기 쉽게 문단을 여러 번 나눔. 모두 원장님의 긴 대사임)

세부적인 사항은 그 분이 짜주실 게다, 난 일일이 제안을 하고 싶지 않더라만.

넌 일단 여름 동안은 여기(고아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프리처드 여사(몰라도 되는 이름임. 다시 안 나옴. 학교의 이사)께서 네 채비(여행준비)를 관리해주시기로 친절하게도 제안하셨단다.

네 식대(식사비용)와 수업료는 대학교로 바로 지불이 될 거다, 넌 거기에 머무는 4년 동안 추가적으로 매달 70만원(원문→35달러. 이해가 쉽도록 70만원으로 해석했음. 전혀 근거가 없는 계산법임^^)을 용돈으로 받게 될 거다.

그 정도 용돈이면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게다.

용돈은 매달 한 번씩 그 신사 분(키다리 아저씨)의 개인 비서를 통해 네게 보내어질 게다. 넌 그 답례로 그분께 매달 한 차례 답례 편지를 써야 한다.

그건(답례편지)… 용돈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편지여서는 안 된다. 그분은 그런 식의 언급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시니까.

하지만 넌 편지에서 네 학업의 진도와 네 매일 매일의 일상들의 세부사항들을 그 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만약 네 부모님들께서 살아계셨다면 네가 적어 보냈을 그런 안부 편지를 넌 그분께 편지로 보내면 되는 거야.” (←큰 따옴표 끝. 리벳 원장의 대사 끝)

(리벳 원장의 대사 계속→) “네가 쓴 편지들은 존 스미스 씨 앞으로 비서(키다리 아저씨의 개인비서)를 통해 안전하게 전달될 거다. 물론 널 돕기로

한 그 분의 성함이 존 스미스란 얘기를 아니다. 어쨌든 그 분은 자신이 드러나는 걸 꺼리시니까.

너(여주인공)에게 그 분은 그냥 존 스미스란 얘기일 뿐이다.

굳이 그 분이 네게서 편지를 요구하시는 건, 그 분이 생각하기에 문학적 표현을 기르는데 손 편지만한 게 없다 여기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분은 네가 나아가는 바를 그때그때 알기를 바라신다.

물론 그 분이 네 편지에 답하시는 일을 결코 없을 게다. 또한 네 편지엔 그것에 대해 어떤 사소한 언급도 있어선 아니 된다.

그 분은 손 편지 쓰는 걸 극히 싫어하신다. 그러니 넌 그 분께 부담을 안겨선 안 돼.

만약 네가 퇴학을 당하는 경우와 같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답장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넌 ‘그리그스’ (영어단어 ‘그리그’는 쾌활한 사람이란 뜻임. 귀뚜라미란 뜻도 있음) 씨와 연락을 취할 수도 있을 게다. 물론 그리그스 씨는 그 분의 개인비서다.

매월 부쳐야하는 이 편지는 네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의무다.

스미스 씨(키다리 아저씨의 가명)가 요구하는 유일한 보상이니, 넌 그 편지들을 네가 지불하는 계산서인양 꼼꼼히 보내야한다.

내 생각이지만, 편지는 항상 예의발라야 되겠고 네 학업의 성과들이 반영되어야 되겠지.

우선은 〈존 그리어 고아원〉(←고아원이름임)의 평의원 한 분께 공손히 편지를 보내야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거라.” (←큰 따옴표 끝. 리벳 원장의 대사 끝)

제루샤의 두 눈은 오랫동안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지금 흥분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어 리벳 원장의 상투적

인 말투로부터 벗어나기만을 바랐을 뿐이기 때문이다.

제루샤가 시험 삼아 자리에서 일어나 한발작 뒷걸음을 쳐보았다.

그러자 리펫 원장이 손짓으로 “좀 더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건 리펫 원장의 일장연설이 한 차례 더 있을 예정임을 의미했다.

“네게 온 이 지극히 드문 행운에 대해 네가 적절히 감사할 줄 안다고 내가 믿어도 되겠지? 도대체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거머쥔 여자 아이가 이 세상에 일찍이 너 말고 누가 또 있었겠니? 그러니 넌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서 앞으로 행동을…”

“전(=저는)… 아,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방금 생각난 건데, 제가 지금 ‘프레디 퍼킨즈’(고아 이름.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의 바지에 형짚을 집다 온 걸 깜빡해서요.”

문이 뒤에서 “꽝!”하고 닫히자, 리펫 원장은 장황한(=긴) 연설을 하다 말고 아래턱을 짚 내린 상태로 문을 바라보았다.

(1장 끝)

(여기까지가 1장 끝입니다. 2장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후, 1장, 2장과 같이 ‘장’은 제가 붙인 거고 원문엔 ‘장’의 구분이 없습니다.)

2장. 키다리 아저씨

(웁긴이 설명 1 : 읽기 쉽게, 여주인공이 한 달에 한 번씩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낸 편지마다 새로운 ‘장’을 붙이겠습니다. 2장, 3장,...30장 이런 식으로요~ 2장=첫 번째 편지. 3장=두 번째 편지.... 30장=29번째로 보낸 편지)

(웁긴이 설명 2 : 이제부터는 편지입니다. 헛갈릴 수 있는데 소설이 편지의 형식입니다. 서점에 가셨을 때 키다리 아저씨 번역서를 한 번 훑어보시면 소설의 이해가 빠릅니다. 말이 편지 형식이지만 인터넷으로 처음 접하면 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제루샤 에벗 양이

키다리 아저씨인 스미스 씨에게

보낸 편지들

(제가 추가한 제목)

2장. 대학교 1학년 (17세)

(본문 시작)

퍼거슨 강당 215호에서

9월 24일 (여주인공 17세. 대학교 1학년)

고아들을 대학에 보내주시는 고마운 평의원(=키다리 아저씨) 분께,

각, 저 왔어요! 어제 열차로 자그마치 4시간 동안을 여행했습니다. 어찌나 묘한 감동이던지요, 전엔 한 번도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걸랑요.

대학교(대학원을 두지 않고 대학교의 학부만 있는 대학교)는 엄청 커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곳입니다.

이불 떠나서 전 이곳에서 매번 길을 잃거든요.

제가 좀 덜 혼란스러울 때 상세히 설명한 편지를 부칠까 해요. 그 편지엔 제 수업에 대한 것들도 들어갈 거고요.

수업은 월요일 아침까진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이 토요일 밤인 건 함정~

하지만 익숙해지고 싶어서 편지를 쓰고 싶지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자니 기분이 묘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편지 쓰는 것 자체가 제겐 야릇하거든요. 하긴 지금껏 편지라곤 세 통 내지는 네 통 정도 써본 게 다이니깐요.

그러니 지금 보내드리는 편지가 편지의 기본 형식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봐주세요~

어제 아침 떠나오기 전, 리벳 원장님과 전 참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께선 앞으로 남은 제 생애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할지를 말씀하셨죠, 누누이 말하듯, 제게 이토록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 그 신사 분(키다리 아저씨)께 특별히 유의하라면서요.

그래서 전 편지를 쓰면서도 아주 공손해지려고 주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존 스미스 씨(키다리 아저씨의 가명)라 불리길 원하시는 분(즉 가명으로 불리길 원하시는 분)께 공손해봐야 얼마만큼이나 공손해질까요?

매력이라곤 하나도 묻어나지 않는 그런 이름(존 스미스)밖엔 고를 수 없었나요?

왜요, 차라리 ‘말뚝’(노새의 끈을 매다는 말뚝을 의미함) 씨나 아님 ‘옷걸이’ 씨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요번 여름엔 당신에 대해 엄청 생각했었어요. 오랜만에 제게 관심을 표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분이시라서요.

마치 누군가에게 속한 느낌이랄까, 아주 편안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뭐, 아저씨를 생각하면 할수록, 제 상상력이 영 힘을 발휘 못하네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 3가지가 있어요. 물론 당신에 대해서요.

I, 키가 크다.

II, 부자다.

III, 여자애들을 싫어하신다.

제 생각에 제가 당신을 ‘여자애를 싫어하는 미스터’라고 불러도 될 거 같은데.

그게 만약 모욕적으로 들리신다면, 부자 나리, 이것도 좀 무례하게 들리네요, 마치 돈이 전부인양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하긴 부자다 아니 다는 극히 외적인 가치죠.

아마 당신도 계속 부자는 아닐 거 아녀요.

월스트리트(세계 금융시장의 중심가)에선 하루에도 수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파산을 신고한다던데요.

하지만 뭐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키가 커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 당신을 키다리 아저씨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되죠?

제가 아저씨의 별명을 지운 건 우리끼리의 비밀이에요... 절대 리벳 원장님겐 말하면 안 되요.

2분만 더 있음 밤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릴 거랍니다.

저희의 하루일과는 종이 결정하거든요.

종이 울리면 밥을 먹고, 종이 울리면 잠을 자고, 종소리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죠.

나름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할까ㅋㅋ.

하긴 뭐 하루 온종일 소방차를 끄는 말이 된 느낌이기도해요. :)

(갑자기 종이 울리자) 거봐요 종이 울리네요! 어 불 꺼졌다. 그럼 안뇽.

참 학교규정 한번 잘 따르는 학생이라 생각했죠? ㅋㅋ 이게 다 <존 그리 어 고아원> (여주인공이 나온 고아원이름)에서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에요.

당신을 너무도 존경하는,
제루샤 예벗(여주인공이름)이.

(2장 끝. 즉 여주인공이 키다리 아저씨에게 1번째로 보낸 편지의 전체 끝)

3장. 키다리 아저씨

(참고바람 → 17세. 대학교 1학년 10월 1일에 보낸 편지에는 두 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10월 1일에 쓴 편지, 다른 하나는 날짜에 화요일이라고만 쓴 편지임. 미국의 학교는 1학기가 9월에 시작됩니다. 우리와는 다름. 그러니 시간 개념 팬스레 헛갈리지 마세요~)

(본문 시작)

키다리 아저씨인 스미스 씨에게(키다리 아저씨의 가명이 '존 스미스'임)

10월 1일

키다리 아저씨께,

전 대학을 사랑해요. 그리고 아저씨께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넘 좋답니다.

정말 정말 행복한 거 있죠. 정말 편지 쓸 땐 너무 행복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예요.

〈존 그리어 고아원〉(여주인공이 나온 고아원이름)과는 달라도 넘 다른 삶이지 않나요.

정말 이런 곳(=대학교)이 현실에서 존재하리라곤 꿈도 꾀보지 못한 걸요.

저 같은 여자애가 여기 정말 다녀도 될지 모든 이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든 달까요.

아저씨가 17살 때 다닌 대학교도 지금 이곳보다 더 멋질 순 없을 거예요.

제 방은 새 병원이 지어지기 전 ‘전염병동’(전염환자용 병원 건물)으로 사용되던 꼭대기 층 위에 있어요.

같은 층을 사용하는 여자애들이 세 명 더 있는데요, 한 명은 안경을 쓰고서 항상 저희들보고 “너 네들 좀 조용히 못하겠니.”라며 좀 많이 정숙으로 요구하는 4학년 언니구요, 다른 두 명은 저와 같은 학년(1학년)들인 ‘샬리(이름) 맥브라이드(성씨)’와 ‘줄리아(이름) 러틀리지(가운데이름) 펜들턴(성씨)’예요. (←두 여자애 이름을 꼭 기억해두셔야 이후 소설을 헛갈리지 않음. 수첩에 메모해둘 것~)

샬리는 약간 들창코(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코)에 붉은 머릿결을 한 아주 불임성 좋은 아이고요, 줄리아는 뉴욕에서 첫째가는 가문들 중의 한군데 출신인데 아직 저와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답니다.

샬리와 줄리아가 같은 방을 사용하고요, 4학년 언니와 저는 각각 1인용 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놀랍죠? 원래 새내기에겐 1인용 방을 안 줘요, 1인용 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전 바라지도 않았는데 배정받았지 뭐예요.ㅋㅋ

아마 제 생각에, 사무주임님(대학의 직원)이 생각하셨나 봐요. 온당하게 자

란 여자애가 고아(여주인공 자신)와 함께 방을 사용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이죠ㅋㅋ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저는) 편의를 보게 되었답니다ㅎㅎ!

제 방을 설명해드리죠.ㅎ 창문이 두 개 달린 나뭇 ‘전망 있는’(뷰가 보이
는) 북쪽구석이랍니다.

18년 동안(여주인공 나이가 18세군요) 방 하나에서 스무 명이 생활하
다, 이게 웬 호강인지.^^

세상에나 이번엔야 말로 제루샤 예벳(여주인공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 있
는 생애 첫 기회랄까요.ㅎ

이제 그녀(자기 자신)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8세. 대학교1학년. 10월 1일에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낸 2통 중, 첫 번
째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래는 나머지 두 번째 편지입니다.)

(18세. 대학교1학년. 10월 1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2번째 편지 시작. 요
일만 적혀 있음)

화요일.

새내기 농구 팀이 결성되었답니다. 저를 뽑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
죠.^^

물론 제가 좀 조금하지만, 유달리 재빠르고 강인하고 끈기가 있잖아요.
헤~

다른 애들이 공중에 뜬 볼을 향해 뛰어오를 동안, 전 이미 그 애들의 아래로 몸을 뒹 피해 공을 거머쥐는 걸요.

붉고 노란 낙엽 향이 오후를 가득 메운 경기장에서 모두가 떠들고 웃다보면... 없던 힘도 솟아나거든요.

전 정말이지 이렇게 행복해하는 여자애들을 처음 봐요... 더 놀라운 건 그 행복해하는 여자애들 중 가장 행복해하는 애가 저라는 것!

전 정말이지 긴 편지를 쓸 생각이었어요, 아저씨가 알고 싶어 하신다고 리벳 원장님(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적을 참이었는데.

그런데 웬걸요, 아침 7시 종이 막 울리고 말았네요, 10분 안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체육관으로 가야해서요.

제가 팀에 들길 원치 않으시는 건 아니겠죠?(수업에 늦더라도 편지를 쓰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당신의 변함없는,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이름)이.

추신 (밤 9시에)(“(밤 9시에)”←원문에 있는 글임)

세상에, 샬리(사라의 애칭) 맥브라이드(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8세)가 방금 제방 문에 머리를 쪽 내밀더니,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집에 너무 가고 싶어 참을 수가 없어. 넌 안 그러니?”

전 그 말에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아니”라고만 말해주었죠.ㅎ

그리곤 생각했습니다.

‘말라깽이 키다리 아저씨가 있는 한.’라고요.(이 문장에서 소설가가 약간 말장난을 하고 있음. “극복하다”라는 단어에는 “말라깽이 키다리”라는 뜻도 있음. 원문엔 ‘극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죠.’라고 되어 있음)

적어도 향수병(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란 제가 감당해낼 수 있는 질병이니까요!

고아원이 그림다고 향수병에 걸린 사람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아저씨는요?

(3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10월 1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2번째 편지 끝)

4장. 키다리 아저씨

(10월 10일에 총 5통 보냄)

(5통 중 '1'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세 번째로, 10월 10일에 총 5통을 보냄)

10월 10일.

키다리 아저씨께,

마이클 안젤로[=미켈란젤로. 16세기 유명한 이탈리아 화가. 피에타 조각상 작품링크▶ <http://me2.do/GoJAYcXd> , 화가 자신의 초상화 링크(약간 무서울 수 있음. 클릭시 주의바람) ▶ <http://me2.do/GOYkoqAu> .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링크 ▶ <http://me2.do/Gg6S49yP> ←누드상임 클릭시 주의바람)이 유명함]에 관한 소문(미켈란젤로가 여자를 극히 싫어하고 남자와 잠

을 잔다는 식의 소문이 있었음. 그 얘기임. 누드화를 그릴 때 여성의 몸을 근육질 남성의 몸처럼 그렸기 때문임. 유명하니까 소문이 많은 것이었겠죠
ㅎ)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는 중세시대 이탈리아에 살았던 유명한 화가였어요.

영어권 국가에서 쓰인 모든 문학작품들이 그와 그의 작품들을 잘 아는 양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제 생각에 그는 잠시 세상에 내려온 대천사(마이클 안젤로, 즉 미켈란젤로는 지독히 못생긴 사람이었음. 한 번 작품을 시작할 때면 작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음. 기행으로 유명함)였을 거란 생각에 웃기지 뭐예요.

그가 대천사 같지 않나요, 그렇죠?

대학에 다니면서 든 근심이란 생전 제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가끔은 아주 난처할 정도로요.

하지만 요즘은, 다른 여자 아이들이 제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나눌 때면, 전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나중에 살며시 백과사전을 찾아본답니다.

ㅋㅋ

첫째 날(수업 첫째 날)엔 끔직한 실수를 하나 했지 뭐예요.

누군가가 ‘모리스 마테를링크’(남자이름임. 벨기에의 극작가. 『과랑새』의 저자. 『키다리 아저씨』가 출간되기 1년 전인 1911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벨기에의 극작가임. 사진링크 ► <http://me2.do/FdPLHrgz>)를 언급했는데, 전 뭣도 모르고 그녀도 새내기(1학년생)인지 물어봤지 뭐예요.

그 농담은 대학 전체가 순식간에 퍼졌답니다T.T

하지만 뭐 어쨌든, 그날 수업에서 어떤 다른 학생들보다다 제가 더 두각을 나타낸 것에 만족해야죠!ㅋㅋ

제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갈색과 노랑의 조화^^에요.

벽은 옅은 노란빛을 띄고요, 노랑 ‘데님’(작업복을 만드는 두꺼운 무명) 커튼들과, 쿠션들, 그리고 붉은 갈색 책상 하나와, 등나무 의자 하나와, 중앙에 잉크 얼룩이 하나 묻어 있는TT 갈색 양탄자 하나를 샀어요.

잉크 얼룩(양탄자) 위에 의자를 세워놓았죠.~)

창문들이 높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밖이 내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옷장 뒤에 있던 거울의 나사를 푼 다음, 옷장 맨 위에 천을 덧씌우고 나서, 창문이 보이게끔 옷장을 이동시켜 보았죠.

그리고 나서야 ㅋㅋ 나름 창가 자리 하나가 딱 알맞은 높이게 생기지 뭐예요.

아저씨도 한 번 서랍장들(옷장의 서랍장들)을 계단처럼 빼서 밟고 올라가 보세요.

매우 편하거든요~!

‘샬리 맥브라이드’(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이 제가 〈졸업반 언니들의 졸업여행 경비 마련 행사〉(원문→시니어 옥션)에서 가재도구들을 고르는 걸 도와주었어요.

샬리는 줄곧 일반 가정에서 자라 가구에 대해 잘 알더라고요.

진짜 5만 원짜리 지폐 두 장(원문→5달러)으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게 어찌나 재밌었는지 상상이 가세요?

돈이라곤 평생 천원(원문→1니켈=5센트) 이상을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제가요.

확신하셔도 좋아요, 아빠, 그 용돈을 제가 정말 감사해하고 있다고요.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아이이고요... 그리고 ‘줄리아 러틀리지 펜들턴’(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아이예요.

이 둘을 같은 방에 배정한 사무주임님(대학의 직원)이 어째 좀 수상쩍지 않나요?

샬리는 모든 걸 재미나게... 심지어 실수까지도 재미로 생각하는 반면... 줄리아는 이 세상 모든 게 따분한가 봐요.

줄리아가 불임성 있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걸랑요.

그 애는, 그저 그냥 펜들턴(뉴욕 최고의 가문들 중 하나) 가문 출신이면 단지 그 이유 하나면 어떤 추가적인 심사 없이도 천국에서 받아준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못살아, 줄리아랑 전 적이 되게끔 태어났나 봐요.T_T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들을 들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I (1). 라틴어(옛 로마제국언어) : 제2차 포에니 전쟁(지중해 패권을 두고 카르타고(북아프리카)와 로마가 싸운 일). 한니발과 그의 군단들이 지난 밤 트라시메노 호수(이탈리아의 호수이름. 기원전 217년에 한니بال이 로마군대를 쳐부순 격전지.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의 위쪽. 아래의 네이버 지도 참조) 한니발의 군대는 매복한 채 로마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 4시에 전투가 벌어졌고, 로마군대는 퇴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I(2). 프랑스어 : 『삼총사』(뒤마의 소설)의 24페이지. 동사의 활용. 불규칙 동사들.

III(3). 기하학(수학) : 원기둥 수업을 마쳤고. 지금은 원뿔 수업 중.

IV(4). 국어(영어) : ‘서설적 설명’(논설) 공부 중. 제 글쓰기 스타일(문체)

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매일 연습 중.

V(5). 생리학(생물) : 소화기관까지 학습했음. 다음 수업시간엔 담즙(간에 서 만들어지는 소화액)과 췌장(이자액을 내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소화 시킴. 다음Daum사전 참조했음)을 배울 차례. 도중에 남○의 생식기관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이에요.

제루샤 에벗(여주인공 이름)이.

추신. 술은 절대 입에도 대심 안 돼요, 아시겠죠, 아빠?

술이 간에 치명적이란 사실을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18세. 대학교1학년. 10월 10일에 보낸 편지 5통 중, 1번째 편지 끝)

(5통 중 '2'번째 편지)

(10월 10일에 총 5통 보냄)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세 번째로, 10월 10일에 총 5통을 보냄)

수요일.

키다리 아저씨께,

제 이름 바꿨어요.

물론 기록부 상에는 여전히 “제루샤”이겠지만, 그 외의 곳에선 “주디”로 통한답니다.

나쁘지 않은 이름이죠?

애칭(별명)이라고 생각하세요ㅋㅋ

아, 애칭마저 제 스스로 짓다니 예구~

제가 주디란 애칭을 다 생각해낸 건 아니랍니다.

‘프레디 퍼킨스’(여주인공과 같은 고아원의 소년. 이름 알 필요 없음.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이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기까지, 개가 저를 그렇게 부르곤 했었거든요.ㅎㅎ

리펫 원장(고아원 원장님)님은 아가야들 이름을 지어주는데 거의 재능이 없ersi거든요.

원장님은 보통 전화번호부 책에서 성씨를 따온답니다.

제 성씨인 애벗도 첫 페이지에서 따온 거고요.

세레명(가운데이름. 소설 속에선 밝히지 않고 있음)은 아마 어딘가에서 따왔을 거예요.

제루샤란 이름은 묘지에서 따왔을 수도 있어요.ㅋㅋ

정말 이 이름이 어찌나 싫던지요.

그래서 주디(애칭)가 좋아요.

이름에서 약간 멍한(바보 같은) 느낌도 나지만.

비록 제가 순진한 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족들에 의해 애지중지해오며 곱게 자란 장난꾸러기는 아니지만, 저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어떠세요, 제 새 이름 맘에 드나요?

제가 무슨 실수를 하든, 가정교육이 엉망이라 탓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응석받이로 큰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나름 재밌네요.ㅎ

그러니 앞으로 저를 주디라 불러주세요~

뭐 다른 거 알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건 어때요?

전 ‘키트(=새끼 염소) 가죽 장갑’(어린 염소가죽으로 만든 비싼 가죽장갑) 세 켤레를 가지고 있어요.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나무) 아래에서 받은 ‘키트(=새끼염소) 병어리장갑들’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손가락이 다섯 개 다 들어가는 ‘키트(=새끼염소) 장갑’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꺼내서 잠깐잠깐 착용해볼 생각이예요.

수업시간에 착용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원문에 있는 괄호임→)(아, 저녁식사 종이 울렸어요. 그럼 안뇽~.)

(아래는 원문에 있는 사진입니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 <http://me2.do/GZkgkvO5> (검색일자 : 2016-5-11)

사진설명(원문에 있는 사진설명임) : 주디(여주인공이름. 사진에서 가운데 여성)와 ‘존 그리어 고아원’의 꼬마친구들

(18세. 대학교1학년. 10월 10일에 보낸 편지 5통 중, 2번째 편지 끝)

(10월 10일에 총 5통 보냄)

(5통 중 '3'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세 번째로, 10월 10일에 총 5통을 보냄)

금요일.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

국어(영어) 교수님(전임강사)께서 제 마지막 레포터(숙제)가 비범한 독창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정말.

그녀(국어 교수님)가 한 말이에요. 정말, 정말이요.

제가 그동안 한 18년 동안의 연습을 생각한다면, 정말 가능하지도 않은 찬사예요. 그렇죠?

〈존 그리어 고아원〉(여주인공이 다닌 고아원)의 목표가, 제가 의심할 바도 없이 확고하건대, 97명의 고아들을 97명의 쌍둥이로 만드는 거란 걸 생각하면요.

(아래는 원문에 삽입되어 있는 낙서그림임)

그림보기 링크(프로젝트 구텐베르크) ▶ <http://me2.do/FtVFVdYI> (검색일자 : 2016-5-11)

그림 속 영어단어 설명 :

(위) 어떤 고아.

(아래 왼쪽) 뒷모습. (아래 오른쪽) 앞모습

어릴 때부터 리셋 원장님실의 문에 분필로 낙서하던 경험이 쌓이다보니 이렇게 비범한 그림 실력을 보이게 되었지 뭐예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의 삶을 비평할 때마다 아저씨가 맘 상해하지 않았음 해요?

아저씨와 유리한 입장(부자)이지만, 아시다시피, 좀 건방지게 들리시겠지만, 전 아저씨가 수표를 끊으면 끝이거든요.

애기를 꺼내는 게 예의에 아주 어긋나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제게 예법을 기대하신 건 아니잖아요.

업둥이(문 앞에 둔 아기)를 걷어 키우는 고아원이, 〈예비 신부 학교〉(부유층 아가씨들이 사교술을 익히는 사립학교. 네이버사전 참조했음)는 아니지 않겠어요.

아빠도 잘 아시듯, 대학에서 열중해야하는 건 공부가 아니라 어울림이에요.

전 자주 여자애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이요.

애들이 하는 농담들이 저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에게 공감받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전 완전 외국인T_T 뭘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끔찍한 경험이지요. 특히 여자애들한테요.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적이야 있지만.

여고에선 삼삼오오(떼를 지어) 어울리곤 했는데 그때도 다들 저만 즐기치게 쳐다봤더랬죠.ㅠ

약간 낮은 아이. 다들 그렇게 저를 이해했어요.

전 혹시 제 얼굴에 “존 그리어 고아원”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닌지 얼굴이 새빨개졌었고요.

그럼 몇몇 아이들이 자비를 신경써준답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정말이지 그 아이들 모두를 증오했어요…. 어느 누구보다 신경써준답시고 제 얘기를 하는 아이들어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란 건 여기(=여자대학교) 어느 누구도 몰라요.

‘샬리 맥브라이드’(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에게도, 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고 어떤 친절한 노신사분이 저를 대학에 보내주고 계시다고 말했거든요…. 어쨌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TOT

아저씨 제가 비겁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지 마요. 전 그냥 저도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지내고 싶었던 것뿐인걸요.

어린 시절만 생각하면 그 끔찍한 곳(고아원)이 떠오르는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제 기억에서 지워내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전 정말이지 다른 어떤 여자애들이랑 똑같은 말예요.

정말 마음까지 다르다곤 생각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세요, 샬리 맥브라이드는 제가 좋네요!

당신의 변함없는,

주디 에벗(여주인공이름)이.

(원문에 프랑스어로 적혀 있는 글과 괄호임→)(제루샤 아녀요.)

(18세. 대학교1학년. 10월 10일에 보낸 편지 5통 중, 3번째 편지 끝)

(10월 10일에 총 5통 보냄)

(5통 중 '4'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세 번째로, 10월 10일에 총 5통을 보냄)

토요일 아침.

지금 이 편지를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어째 분위기가 그리 밝지 않네요.

월요일 아침까지인 레포터(숙제)가 하나 있고 기하학(수학) 복습도 해야 하는데 에구TT 심한 재채기를 하는 감기까지 달고 있으니. 상상이 가세요?

(18세. 대학교1학년. 10월 10일에 보낸 편지 5통 중, 4번째 편지 끝)

(10월 10일에 총 5통 보냄)

(5통 중 '5'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세 번째로, 10월 10일에 총 5통을 보냄)

일요일.

어제, 편지 부치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 분개하면 추신(덧붙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주교님(가톨릭의 주교님)이 오셨어요, 그 분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말씀에서 가장 희망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지니,’(마태복음 26:11) 그들이 있기에 우린 언제나 자비로울 수 있는 것이지요.”

흥,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유용한 가축이라도 된단 말인 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게.

제가 어여쁜 숙녀(원문→완전한 숙녀)로 자라지만 앓았더라도, 설교 후에 냉큼 단상에 올라가 제 생각을 그분께 말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 아쉬워~

(4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10월 10일에 보낸 편지 5통 중, 5번째 편지 끝)

(입학 후 세 번째로, 10월 10일에 총 5통을 보냄)

5장. 키다리 아저씨

(10월 25일에 총 1통 보냄)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4번째로, 10월 25일에 총 1통을 보냄)

10월 25일.

키다리 아저씨께,

농구팀을 결성했어요. 그 결과 제 어깨에 난 타박상(멍)을 볼 수 있을 거
랍니다. 약간 오렌지 껍질 느낌도 나는 것이 검푸르요. 앙 ㅏㅏ

‘줄리아 펜들턴’(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에. 18세. 대학교1학년)도 팀에
들려고 했는데, 성공못했지 뭐예요. 만세~ㅎ

이제 제가 얼마나 비열한지 보셨죠.

대학이 점점 마음에 들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수업들 그리고 캠퍼스며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어요.

1주일에 아이스크림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옥수수죽도 나오는데 ㅎㅎ 이걸 아무도 손도 안 댕답니다. :)ㅋㅋ

저한테서 한 달에 한번 씩만 듣고 싶다 하지 않았나요, 그쵸?

요 며칠 편지들로 아저씨께 고춧가루를 퍼붓고 있네요!

하지만 그만큼 요즘 제 생활이 다이나믹하다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에겐 말을 하지 않곤 못 배기는~ㅎ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아저씨 한 분뿐이잖아요.

넘치는 제 편지들을 너그러이 용서바래요.

곧 안정될 거예요. ㅎㅎ

만약 제 편지들이 지루하셨다면, 받는 족족 휴지통에 던져넣으심 되요.

아, 11월 중순까지는 절대 편지 쓰지 않겠다고 맹세할게요.ㅎ

당신의 수다쟁이,

주디 에벗(여주인공이름)이.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40.png>

(원문에 있는) 그림설명 : 농구 중인 주디

(5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10월 25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4번째로, 10월 25일에 총 1통을 보냄)

6장. 키다리 아저씨

(11월 15일에 총 1통 보냄)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5번째로, 11월 15일에 총 1통을 보냄)

11월 15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제가 무얼 배웠는지 들어보실래요~

정각뿔(밑면=다각형. 옆모습들이 모두=삼각형. 사진링크 ►

<http://me2.do/xwiBgK0B>)의 ‘상부를 밑면에 평행되게 두 개의 평면으로

잘라낸 부분’(원문→절두체)의 표면의 넓이는, ‘상부를 밑면에 평행되게 두

개의 평면으로 잘라낸 부분’(원문→절두체)의 둘레의 합에, 사다리꼴 양쪽의 높이를 곱한 것의 절반이다.(입체 기하학 공식임) (←아이...뭘 소리야...뭘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_-;; 통과~ 이 입체 기하학 공식에 해당하는 문장 해석 통과임. 틀렸던 말던 통과~)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근데 사실이에요... 저도 증명해낼 수 있어요!

제 옷들에 대해 못 들어보셨죠, 들어셨나요, 아빠?

여섯 벌이에요, 모두 새롭고 예쁜 거예요, 저를 위해 샀답니다. 언니들로부터 물려 받은 옷들이 아녀요.

고아인 제가 지금 얼마나 흥분해 있는지 감도 못 잡으실 걸요?

아저씨가 주신 것들, 정말, 정말, 정말로 많이 감사해하고 있어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새 옷 여섯 벌을 소유한 것보다 더 아찔한 경험이 또 있을까요.

프리처드 여사(원문→미스 프리처드. 고아원의 평의원이자 여주인공이 있던 고아원 인근 학교의 이사)님께서 방문하신 날 그것들을 사다주셨답니다. 리켓 원장님(여주인공이 있던 고아원의 원장님)이 아녀요,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그래서 전, 비단 위에 얇고 부드러운 분홍색 무명을 한 이브닝드레스 한 벌과,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은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워요ㅎ, 그리고 교회에 예배보러갈 때 입는 드레스 한 벌, 그리고 저를 집시처럼 보이게 하지만 어쨌든 ㅋㅋ 동양풍으로 다듬질한 빨간 베일(=천)이 달린 ‘디너 드레스’(=만찬복. 저녁식사 때 입은 옷?) 한 벌과, 장미색 ‘샬리천’(가벼운 여자 옷감)이 달린 ‘디너 드레스’ 한 벌, 그리고 외출용 정장 한 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입고 갈 ‘일상용 원피스’ 한 벌, 이렇게 모두 여섯 벌을 갖게 되었답

니다.

물론 ‘줄리아 러틀리지 펜들턴’(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18세. 대학교 1학년)의 엄청 커다란 옷장에 비할 바 아니지만, 아마도,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이 고아원 때 쓰던 이름)에 비하면 상상초월 일거예요… 오, 이런!

공부하라고 학교에 보내놓았더니 옷만 산다고, 그래서 아저씨도 혹시 ○성을 교육시키는 것이 돈을 낭비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체크무늬 면 옷’(원문→강엄. 사진링크 ► <http://me2.do/GC1e7uOV>)을 입어본 적이 있다면,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 이해하실 거예요.

하긴 뭐 고교에 진학하면서 ‘체크무늬 면 옷’(=강엄. 강엄이 뭐지?#*&@)보다 더 끔찍한 걸 맞이하게 되지만요.

기부 옷이요.

그 끔찍한 헌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지.

그리고 그 옷의 처음 주인이 아저씨 옆에 앉은 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다른 애에게 킁킁 웃어대면서 손가락으로 아저씨를 가리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ㅌㅌ

아저씨의 적이 내다버린 옷을 입고 있다는 쓰라림이 아저씨의 영혼을 뭉개고 말 거예요.

그 상처는 아저씨의 남은 생을 죄다 비단 스타킹을 신어야지만 겨우 지워질 걸요.

(아래의 글은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장난 식으로 편지 아래에 덧붙인 신문기사식의 글임)

사건 현장에서 지금 막 들어온.

■ 네이버 지도 참조

[큰 지도]

[작은 지도]

43

994729999999,14.8475139&client=gme-nhncorp&signature=oT4z458ah
LWqnCRXdzfHfViubmA=&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
146.0 (검색일자 : 2016-5-13)

현장 최일 선(맨 앞)에서 당신만의 특별한 특과원이
되리라 다짐하는
주디 에벗(여주인공의 애칭=자칭별명)이.

추신.

답장을 기대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질문공세로 아저씨를 괴롭혀
서도 안 된다는 것도 주의 받았고요, 하지만 말해줄래요, 아빠, 이번 딱 한
번만요... 아저씨 엄청 나이가 많으신가요? 아님 조금만 많으신가요?

그리고 아저씨는 완전히 대머리이신가요? 아님 살짝만 머리가 벗겨지신
경우신가요?

기하학 수업시간에 증명을 하는 것만큼이나 제가 아저씨를 떠올리기가 힘
이 들어서요. :)

키 커고 여자애들을 싫어하시는 부자 나리가 한 명 있다고 가정해 봐요,
하지만 그 아저씨 아주 버릇없는 어떤 여자애 한명에게만은 너무 관대해요.
이런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어떻게 생기셨나요?

회답 주시기 바랍니다.(원문→R.S.V.P.)

(6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11월 15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5번째로, 11월 15일에 총 1통을 보냄)

7장. 키다리 아저씨

(12월 19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1'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6번째로, 12월 19일에 총 4통을 보냄)

12월 19일.

키다리 아저씨께,

여전히 제 질문엔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단 말예요.

‘대’ ‘머’ ‘리’ ‘세’ ‘요?’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사진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45.png> (검색

일자 : 2016-5-16)

그림설명(원문에 있는 사진설명임) : 키홀쭉이 남성

아저씨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확히 그려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잘 그렸죠ㅋㅋ

머리끝까진 잘 그리다 그만 곤경에 빠지고 말았네요.

머리카락이 새하얗지 검을지 아님 분을 뿌린 것 같은 회색일지 아님 전혀

다른 종류의 색일지.

초상화 상상도.

음, 문제는, 머리카락을 심을까요?

아저씨의 눈은 무슨 색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회색이면, 눈썹은 현관 지붕처럼 눈에 확 띄겠네요. 툭 튀어나온, 소설에선 그렇게들 묘사하더라고요.

입술은 꼬리부분이 살짝 내려간 일직선이겠죠.

오케이, 상상이 가요, 이제 알았다!

아저씨 한 성깔 하시는 멋진 노땅(노인)이세요.

(원문에 있는 괄호 및 문장임→)(예배당 종이 울리고 있어요.)

(18세. 대학교1학년. 12월 19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1번째 편지 끝)

(12월 19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2'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6번째로, 12월 19일에 총 4통을 보냄)

오후 9시 45분

절대 개선 안 되는 생활신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절대, 절대 밤엔 공부하지 않기. 다음날 제출할 레포터(숙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만 간단한 독서 정도는 계속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18년이라는 공백을 메우려면 읽을 게 많거든요.

못 믿으실 테지만, 아빠,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무지의 바다가 있는지.

이제 막 저를 들여다본다고나 할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대다수의 여자애들이 집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자신의 공부방에서 하는 것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중이랄까요~

침 듣는 것들이 많아요.(참고로 『키다리 아저씨』는 1912년에 미국 여성 소설가가 쓴 작품임)

예를 들자면,

저는 아직 『거위 아줌마』(동요집. 뭔지 잘 모르겠음T0T. ‘미인주우’님의 블로그 참고바람 ► <http://me2.do/xsxctI8g>)도 안 읽었고요, 『데이비드 코퍼필드』(영국의 장편소설이름. 찰스 디킨스가 1849년에 썼음. 자전적인 성격의 장편소설)도 안 읽어봤고요, 『아이반호』(윌터 스콧의 역사소설. 1819년 작품)도 안 읽었고, 『신데렐라』도 안 읽었고, 『푸른 수염의 사나이』(샤를 페로의 동화. 프랑스동화. 무서운 내용임. 내용 절대 검색하지 말 것T_T)도 안 읽었고요, 『로빈슨 크루소』(섬에 표류한 이야기. 디포가 1719년에 쓴 모험소설)도 아니 읽었고, 『제인 에어』(영국소설. 여성작가인 샬럿 브론테의 작품. 여성 성장소설임. 1847년 작품)도 안 읽어봤고,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안 읽어봤고요, 러디어드 키플링(영국 소설가이름)의 작품집(1894년에 출간된 『정글북』을 말함)도 못 읽어봤는걸요.

저는, 헨리 8세(결혼을 여러 번 한 영국 왕)가 결혼을 여러 번 한 걸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샬리(친구이름. 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8

세. 대학교1학년)는 완전 시인이예요.

저는, 사람들이 원숭이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에덴 공원이
○○넌 이야기란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R.L.S.(=르.르.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1883년에 『보물섬』을
1886년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를 쓴 영국소설가)를 지칭하는 말인지도
몰랐고요, 조지 엘리엇(영국의 여성소설가. 1861년에 자전적 소설인 『사일
러스 마너』를 씀)이 여자인지는 정말이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저썬 이 사실을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설록 홈즈(탐정소설의 주인공이름. 1854년부터 작품이
나옴)라는 이름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에서야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 외 다른 것들도 많이 접
하게 되었지만, 이제 보셨겠죠, 제가 다른 애들 따라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달려야할지.

아, 뭐 하지만 재밌어요! ^^

앞날이 생각날 때면 문에 “바쁨”이라고 걸어두고서, 제 말쑥한 붉은색 실
내복을 꺼내 입고 모피 덮인 슬리퍼를 신은 다음 등 뒤 긴 의자 위에 쿠션
을 죄다 깔고 팔꿈치에 학생용 낫쇠 램프를 밝힌 다음 읽고 또 읽고 또 읽
어나간답니다.

책 한 권으론 양이 차지 않아요.

한 번 읽었다하면 4권은 족히 돼요.ㅋㅋ

지금 뭐 읽게요~ 테니슨(영국의 시인. 1809~1892년)이 쓴 시들과, 『허
영의 시장』(영국 작가 새커리의 장편소설)과, 키플링(영국의 시인이자 소설
가. 1865~1936년)이 쓴 『옛날부터 전해 오는 소박한 이야기』(1888년 작
품)를 읽고… 아 그리고 웃지 마세요… 『작은 아씨들』를 읽고 있답니다.

(참고로 『작은 아씨들』은 미국 작가인 올컷의 1868년 소설. 네 자매의 이야기)

『작은 아씨들』을 집에서 접하지 않고 대학에 온 유일한 소녀일 거예요, 제가요.

그럼에도 아무에게도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랬다가는 이상한 아이로 낙인찍힐 수 있거든요. ^^ㅎㅎ

일단 조용히 가서 지난달 남은 용돈 중 2만원(원문→1.12달러)으로 그 책(『작은 아씨들』)을 샀답니다.

이제 다음번엔 누군가가 식초에 절인 라임 얘기를 꺼낸다면 ㅋㅋ 저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거란 사실~!

(원문에 있는 괄호와 문장임→) (앗 밤 10시 중이 올리네요. 요번 편지는 아주 뒤죽박죽이네요~)

(18세. 대학교1학년. 12월 19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2번째 편지 끝)

(12월 19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3’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6번째로, 12월 19일에 총 4통을 보냄)

토요일에.

선생님께,

보고 드립니다. 기하학의 영역에 생기 있는 첫발을 들이대었다가, 지난 금요일에 이전까지 배우던 평행 육면체를 과감히 단념하고, 각기둥으로 넘어감.

거칠고 험난한 오르막길이 예상됨 T.T 내가 못살아 정말!

(18세. 대학교1학년. 12월 19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3번째 편지 끝)

(12월 19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4'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6번째로, 12월 19일에 총 4통을 보냄)

일요일.

다음 주면 학교 겨울방학(원문→크리스마스 휴가)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행가방들이 쭉 늘어서 있지 뭐예요.

어찌나 짐들이 복도에 꽂 차 있는지 통과하기조차 힘든 거 있죠.

모두들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서 지금 공부는 뒷전이에요.

물론저도 아름다운 방학을 보낼 계획인데요.

새내기(1학년) 중에 텍사스(미국 남서부. 오후 여주인공이 다니는 학교가

텍사스에 있군요~)에 남기로 한 애가 한 명 있는데, 우린 그 애 집까지 걸어서 가볼 생각이거든요. ㅎㅎ

아직 열음이 남아 있다면 혹시 아나요 뭐 스케이트도 배우고 올지. ㅋㅋ

그런 다음엔 대도서관에 머물며 책을 읽을 생각이에요. 3주 동안은 텅텅 빌 거니 모두 제 차지일거거든요!^^

굿바이(안녕), 아빠, 저만큼 행복감을 느끼고 계시길~

당신의 한결같은,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추신.

제 질문(편지로 아저씨가 대머리인지 물어본 적이 있음)에 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편지 쓰는 게 편치 않음 비서 분께 전보로 보내라 하세요~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하심 되어~

스미스 씨(키다리 아저씨의 가명은 ‘존 스미스’임)는 완존 대머리,

아니면,

스미스 씨는 대머리가 아니다,

아니면,

스미스 씨는 머리가 새하얗다.

이렇게요.

전보 부친 비용은 다음 달 제 용돈에서 미리 5천원(원문→25센트)을 제하
심 되요.

그럼 1월(내년1월)까지 안녕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7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12월 19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4번째 편지 끝)

(입학 후 6번째로, 12월 19일에 총 4통을 보냄)

8장. 키다리 아저씨

(다음해 1월 겨울방학이 끝나갈 쯤 해서 총 4통 보냄)

(4통 중 '1'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7번째로, 1월 겨울방학이 끝나갈 쯤 해서 총 4통을 보냄)

겨울방학(원문→크리스마스 휴가)이

끝나갈 즈음

정확한 날짜는 모름.

키다리 아저씨께,

거기도 눈 왔어요?

여긴 온통 눈이에요. 어찌나 새하얀 눈발들이 날리는지 세상이 큰 팝콘을

튀기는 거 같지 뭐예요. ㅎㅎ

지금은 늦은 오후랍니다... 해가 약간 보랏빛을 한 작은 산들 뒤로 넘어가려하고 있어요. 해는 무슨 색이게요~ 네 내키지 않아하는 노란 색요. ㅋㅋ 해도 지기 싫은가 봐요. 헐~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마지막 남은 햇빛을 받아 아저씨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ㅋㅋ

보내주신 금화 다섯 개는 어찌나 놀랍던지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던 경험이 없던 지라.

제가 가진... 벌써 많은 것들을 아저씨에게서 받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맘에 들진 않더군요. ㅋㅋ

하지만 하나같이 다 좋아라하고 있는 걸요.

주신 용돈으로 제가 뭘 샀는지 알고 싶으시죠?

I (1). 수업시간을 제때 알려줄 수 있고, 손목에 착용할 수 있게, 가죽 케이스 안에 담긴 은시계 하나.

II (2). 매튜 아놀드(영국시인. 1822~1888년)의 시집.

III (3). 보온병 하나.

IV (4). 무릎 덮개(의자에 앉을 때 무릎 위에 덮는 거) 하나. 왜냐면 수건은 차갑거든요. ㅎㅎ

V (5). 원고지 5백장. 곧 작가가 될 거 같지 않나요. ㅎㅎ

VI (6). 비슷한 말(동의어) 사전 하나. 작가가 되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대서요. ^^

VII (7). 이 마지막 구입 물품은 참 고백하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할래요. 비단 스타킹 한 켤레.

자 그림, 아빠, 제가 모두 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마여~!

말하곤 싶진 않았지만, 음, (비단 스타킹을) 사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있었거든요.

‘줄리아 펜들턴’(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에. 18세. 대학교1학년)이 기하학 숙제를 하러 제 방에 온 날 긴 의자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 매일 밤 비단 스타킹을 신고 있지 뭐예요.ㅕㅕ

하지만 뭐 두고 보라죠... 방학이 끝나고 그녀가 돌아오는 대로 제가 비단 스타킹을 신고서 그 애 방의 긴 의자에 당당히 앉아 보일 테니까요.ㅋ

아셨죠, 아빠, 제가 얼마나 구질구질한 짐승인지요... 하지만 뭐 솔직한 제 심정이랍니다ㅋㅋ

하긴 벌써 아시고 계시겠네요, 제 고아원 기록들을 보셨을 테니, 아셨죠, 전 완벽하지 않아요, 혹시 아저씨도요?

요점을 되풀이하여 말하자면, ㅋㅋ 이 말 재밌죠, 저희 국어(영어) 강사님이 문장을 매번 시작하실 때마다 하는 말인걸요, 아 웃겨라~

어쨌든 제가 산이 7가지 물품들에 전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이제부터 제가 이 선물들을 캘리포니아(미국서부)에 계신 제 친지분한테서 받은 걸로 꾸밀 참이거든요. 하하

시계는 아빠한테 받은 걸로 하고, 무릎덮개는 엄마한테 받았다고해야지, 보온병은 할머니한테... 할머니네 제가 이 곳(텍사스) 날씨 탓에 감기에 걸리지나 않을지 노심초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노란 원고지들은 제 남동생 ‘해리’(지어낸 남자애 이름)에게서 받은 걸로 할 거예요.

제 여동생 ‘이소벨’(여자이름)이 비단 스타킹을 준 거고요, ‘수잔’(여자이름) 이모가 매튜 아놀드(영국시인. 1822~1888년)의 시집을 사준 걸로 할 거예요.

해리 삼촌은, 남동생 이름인 해리는 해리 삼촌에게서 따왔어요, 해리 삼촌은 제게 국어(영어)사전을 보내주셨답니다.

원래 해리 삼촌은 초콜릿 과자를 보내주고 싶었는데 제가 비슷한 말(동의어) 사전으로 보내달라고 박박 우겼거든요.ㅎ

제 가족의 구성원으로 아저씨도 연기하시는 걸, 마다하진 않으실 거죠?^^
그럼 이제, 제 짧았던 방학 얘기를 꺼내볼까요, 아님 오로지 변변치 않은 제 교육에만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굳이 변변치 않다 말한 건 아저씨가 고마워서예요.

제 단어장에 최근 메모한 거예요. 변변치 않다.ㅋㅋ

텍사스에서 온 여자애 중에 이름이 ‘레오노라 펜턴’라는 애가 있는데요.

아마도 제루샤(여주인공의 실명)만큼이나 재미난 아이라죠? 하지만 ‘샬리 맥브라이드’(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만큼은 아니에요.

정말 샬리 같은 아인 다신 없을 거거든요, 전 그 아이가 넘넘 좋아요... 물론 아저씨 빼고요.

전 두말없이 아저씨를 항상 좋아해야하니까요. 왜냐면 아저씨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레오노라와 저 그리고 2학년 언니들 두 명 이렇게 넷이서 매일 활기차게 들판을 산책하고 있어요. 이 근방은 죄다 탐험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스커트와 ‘니트 재킷’(뜨개질을 해서 만든 재킷)과 모자들을 쓰고서, 시니(=아이스하키) 봉(막대기)으로 이것저것 때리면서요.

한번은 마을까지 산책했는데... 6킬로미터나 걸었지 뭐예요... 그러다 여대생들이 종종 들러 저녁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답니다.

석쇠에 구운 랍스터(바다가재)가 3천 5백 원(원문→35센트. 환율계산 전혀

정확한 거 아닙니다. 환율 모름. 읽기 쉽게 지금 우리 돈으로 바꾼 것일 뿐)
그리고 디저트로 나온 메밀 케이크와 단풍나무시럽이 1천 5백 원(원문→15
센트)이었어요.

영양가도 있는데 값도 싸지 뭐예요.

떡 재밌었지 뭐예요!

특히 제겐요, 왜냐ㅋㅋ 고아원과는 넘 다른 거예요... 캠퍼스(학교)를 벗어
날 때마다 탈옥한 죄수가 된 느낌 있죠.

생각도 않고 제 지나온 경험을 딴 애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어찌나
깜짝 놀랐던지. 있는 얘기(비밀) 없는 얘기 다 하다말고 급히 주어 답았지
뭐예요. 헐~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하면 안 된다는 게 몹시 힘들어요.

속 시원히 말하는 게 천성인데 이렇게 아저씨께라도 털어놓지 않음 전 아
마 “핑!”하고 폭발하고 말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엔 캔디를 만드는 사교모임이 있었어요^^

‘퍼거슨 관’(기숙사이름)의 사감선생님(학생지도 선생님)들께서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맞은편 기숙사에서 마련한 자리예요.

저흰 모두 22명인데요, 새내기들과 2학년, 3학년, 졸업반 언니들까지 이렇
게 화목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부엌이 엄청 커더라고요, 구리 냄비들과 주전자들이 돌로 마감된 벽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아휴 가장 작은 찜냄비(식탁 위에 두는 두껍이 있
는 찜냄비)가 자그마치 세탁소의 보일러만 했다죠.ㅋㅋ

하긴 뭐 ‘퍼거슨 관’(기숙사 이름) 정원이 4백 명이 그럴만하죠.

흰 모자와 앞치마를 두른 주방장님께서, 어디서 그 많은 걸(22개의 흰 모
자와 앞치마들)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22개의 흰 모자와 앞치마들을 저희

들에게 나누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짜잔~”하고 모두 요리사들로 변신했다고 하네요. 하하

엄청 재밌었어요, 물론 캔디를 좀 더 잘 만들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ㅜㅜ
요리를 끝마쳤을 때 우리들과 부엌 그리고 문의 손잡이들이 온통 끈적끈적해있지 뭐예요.

그 후 모자와 앞치마를 두른 채 큰 포크와 스푼(숟가락) 그리고 프라이팬을 들고서 줄을 지어 텅 빈 복도를 통해, 6명의 교수님들과 강사 분들이 평온히 저녁을 보내고 계시던 교직원 실로 향했습니다.

그분들께 교가(학교 노래)로 세레나데(노래를 불러주는 것)를 불러준 후 캔디를 드렸어요. 그 분들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정중히 받았죠.

엄청 끈적끈적해 입이 채 벌어지지 않는 그 캔디 덩어리들을 빨고 있는 그 분들(6명의 교수들과 강사들)을 뒤로하고서 우린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ㅎ

아빠, 자 봐요, 이게(아래의 그림) 저희들이 행진한 모습이에요!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사진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57.png> (검색일
자 : 2016-5-18)

그림설명(원문에 있는 사진설명임) : procession of girls 소녀들의 행진

잘 그렸죠.ㅋㅋ 정말이지 제가 작가 대신 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
으세요?

겨울방학도 이제 이틀 남았네요. 이틀만 있음 여자애들을 다시 만날 수 있
다니 넘 기뻐요.

제 층엔 사실상 저 혼자 있거든요, 기숙사 건물에도 원래 4백 명 정원인
데 그래서 우르르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9명이서 조용히
건물을 차지하고 있어요.

앗... 편지지가 11장을 넘었네요 그만 쓰다보니, 아 아저씨 읽느라 피곤하
시겠어요!

전 그냥 이번 편지에서 짧은 편지로 고맙다는 말만 가볍게 할 참이었는데
쓰다 보니 마치 제가 길게 쓰려고 걱정하고서 쓴 거 같네요. 양ㅠ.ㅠ

안녕히 계세요, 저를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지평선(산과 하늘의 경계)
위로 먹구름 하나 없는 것만 빼면 다 행복해요. 사실 2월에 시험이 있거든

요.(편지를 쓰는 현재는 1월임)

당신의 연인,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가.

추신.

연인이라 적은 게 적절치 않죠? 만약 그랬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제게도 사랑할 사람이 필요한 걸요, 제가 아저씨와 리벳 원장님(고아원 원장님)를 두고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아저씨가 나은 것 같아서요... 아저씨께서 불평하실 수 있지만, 아빠, 정말이지 전 그녀를 사랑할 순 없어요.

(18세. 대학교1학년. 1월에 보낸 편지 4통 중, 1번째 편지 끝)

(다음해 1월 겨울방학이 끝나갈 쯤 해서 총 4통 보냄)

(4통 중 '2'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7번째로, 1월 겨울방학이 끝나갈 쯤 해서 총 4통을 보냄)

전날에.(2월에 있다던 라틴어 시험 전날을 의미함)

키다리 아저씨께,

대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저씨도 보셔야 하는 건대!

도대체 방학(겨울방학)이란 게 있었는지 잊고서, 57개의 불규칙 동사(=라틴어=고대 로마 언어)들을 저희들의 머릿속에 나흘(4일) 만에 벼락치기를 하고선... 제발 시험 전까지 잊어먹지 않기만 오매불망하고(바라고) 있거든요.

그 중 몇몇 여자애들은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노트를 팔지 뭐예요, 하지만 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요.

졸업해서 대학노트들을 선반에 진열해놓으면 나름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필요할 땐 바로 바로 꺼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머릿속에 매일 같이 외우고 다리는 것보다 훨씬 쉽고 정확하죠.

‘줄리아 펜들턴’(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이 오늘 저녁 안부 차 들렀어요. 그런데 절대 안 나가는 거 있죠.TT

그러더니 제게 가족 얘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내가 못살아 정말. 정말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급기야는 제 엄마(여주인공은 고아임)의 처녀 시절 이름이 뭐였는지 알고 싶다고 하지 뭐예요... 참내 원 전 양육원(고아원)에서도 그런 무례한 질문은 안 하잖아요?

하지만 어찌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를 제가 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성씨를 끄적이라도 쥐어짜서 ‘몽고메리’(실제로는 남자 이름임)라고 말해주었죠.

그랬더니 애가,

“그럼 너희 엄마는 매사추세츠(미국 동북부)의 몽고메리 가문 출신이니 아님 버지니아(미국 동부)의 몽고메리 가문 출신이시니?”

라는 거예요.TOT

그 애 어머니 ‘러더퍼드’(러더퍼드는 『키다리 아저씨』가 출간되기 3년 전인 1908년에 노벨화학상을 받은 과학자이름) 가문 출신이라네요.

아주 오래된 가문 출신인데, 조상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헨리8세(결혼을 여러 번 한 영국 왕.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의 결혼과도 연관이 있다나 봐요. 헐~

뭐라더라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원, 글썄 자기 아버지 쪽 조상이 아담(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조상)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대요.

최고로 어처구니없었던 건, 글썄 자기 선조(조상)들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비단결 같은 머릿결과 긴 꼬리를 가진 원숭이의 조상과도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애 정말 제정신일까요~ T0T

아, 오늘 밤엔 정말 아저씨께 멋지고 유쾌하고 재미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아 애 생각을 하니 또 머리가 아프네, 아 근데 넘 졸리다... 시험이 내일인데ㅍㅍㅍ 졸리다니 이게 더 충격. 헐~

새내기(1학년)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요?

시험이 코앞인 당신의,
주디 애벗(여주인공의 이름)이.

(18세. 대학교1학년. 1월에 보낸 편지 4통 중, 2번째 편지 끝)

(다음해 1월 겨울방학이 끝나갈 쯤 해서 총 4통 보냄)

(4통 중 ‘3’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7번째로, 1월 겨울방학이 끝나갈 쯤 해서 총 4통을 보냄)

일요일(2월의 어느 일요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께 말할 끄, 끄, 끄찍한 소식이 몇 개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로 이 편지를 시작하진 않을래요. 무엇이건 시작은 부드러워야하는 걸로 배웠거든요.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의 진짜 이름)이 작가가 되기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시인데요, 제목이,

“옥탑 방(기숙사의 자기 방)에서,”예요.

기숙사 소식지 2월호에 실렸… 자그마치 첫 페이지에 정말이지 새내기(1학년)에겐 영광스럽게도 첫 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제 시가 실렸어요.

저희 국어(영어) 강사님께서도 지난밤에 예배당으로 가다 말고 저를 붙잡고는 여섯째 줄의 문장만 빼면 참 매력적인 작품이었다며 치켜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께서도 읽어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 한 부를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 밖에 전해드릴 만한 기쁜 소식이 더 있는지 살펴볼게요… 아, 맞다! 저 스케이트 배우고 있어요, 이젠 혼자서도 썩 잘 탄답니다.

그리고 체육관 지붕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방법도 배웠어요 헐~

그리고 막대높이뛰기를 1미터 10센티미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빨리 1미터 20센티미터까지 뛸 수 있음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앨라배마(미국 남동부) 주교님의 설교가 저희를 무척 북돋아주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 말라.”(마태복음 7:1)

예요.

다른 이의 실수를 눈감아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교훈이었어요. 모진 잣대로 남의 용기를 꺾어선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아저씨도 들어본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찌나 햇빛이 짹짹하던지 눈이 멀겠던 겨울 오후였어요.

내린 눈의 무게 때문에, 전나무(크리스마스트리 나무. 전나무 사진링크 ► <http://me2.do/xk3ytFr5>)가지와 온 세상에서 고드름이 똑똑 떨어지고 있다고요.

물론 눈의 무게에서 저는 제외예요, 왜냐면 전 지금 슬픔의 심연에 무릎을 굽히고 있거든요.

자 용기를 내자..., 소식 전해드려야지, 주디(여주인공 애칭=별명)!... 넌(=자기 자신) 말씀드려야해.

기분 괜찮으시죠?

저 수학과목과 라틴어산문(=소설이나 수필)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어요.ㅏ
ㅏㅏ

지금 개인지도 받고 있고요 해당 과목들은 다음 달에 추가 시험이 있을 거래요.

제게 실망하셨을 걸 생각하니 넘 미안해요. 그렇지만 강의계획표에서 없던

것들을 넘 많이 배웠단 말예요.

소설을 17편이나 읽어야했고요 시도 산더미같이 배워야했고요... 뭐 물론 『허영의 시장』(영국 작가 새커리의 1847년 장편소설. 이후 모두 네이버사전 참조함)이나, 『리처드 페베렐의 시련 : 아들과 아버지의 역사』(영국 작가 조지 메러디스의 1858년 장편소설)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1865년 동화)(이 당시는 영국이 경제문화 및 사상적인 면에서 폭발하던 때임. 이 당시엔 자국에서 추방된 모든 정치사상범들을 최종적으로 수용해주던 곳이 영국임. 자국에서 쫓겨난 마르○스도 영국으로 건너가 살다 『자○론』을 썼음), 그리고 에머슨(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1803~1882년)의 『에세이집』, 그리고 록카트(영국 스코틀랜드의 작가. 1794~1854년)가 쓴 『스코트의 삶』(스코트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작가, 1771~1832년), 그리고 기번(에드워드 기번. 영국의 역사가. 엄청 부자TT 부럽~ 1737~1794년)이 저술한 『로마제국 쇠망사』(로마제국의 시작부터 멸망까지를 다룬 역사책. 문장이 좋은 역사책임)의 첫 권(로마제국 쇠망사는 총 6권임), 그리고 벤베누토 첼리니(1500~1571년에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다재다능했던 사람이름. 작가이자 예술가이자 범죄자이기도 했음.)의 『자서전』(첼리니가 자서전의 절반만 완성하고 채 완성 짓지 못했음)의 앞부분 절반이 어찌 재미가 없었겠냐? 만은요.

그거 아세요? 벤베누토 첼리니는 아침식사를 하기 전에 한가로이 산책을 하곤 했는데 그러다 불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이기도 했데요. 헐~ 보시다시피, 아빠, 라틴어 때문에 막히긴 했어도 저 나름 똑똑해요.

그러니 낙제 다신 안 받을 테니 절 용서해주시지 않을까요?

비탄(뉘우침)에 잠김 당신의,

주디(여주인공의 별명)가.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63.png> (검색일

자 : 2016-5-19)

그림설명(원문에 있는 사진설명임) :

(그림 맨 위) 이달의 소식

(바로 아래) 주디(여주인공의 별명) 스케이트를 배우다.

(바로 아래, 왼쪽) 막대높이뛰기. 다리가 자꾸 걸려요. (오른쪽) 밧줄 타고 내려오기 성공~

(바로 아래, 왼쪽) 으앙 두 과목 낙제. 눈물이 앞을 가리네. (오른쪽) ‘열’

‘시’ ‘미’ 공부 다짐.

(18세. 대학교1학년. 1월에 보낸 편지 4통 중, 3번째 편지 끝)

(다음해 1월 겨울방학이 끝나갈 쯤 해서 총 4통 보냄)

(4통 중 ‘4’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7번째로, 1월 겨울방학이 끝나갈 쯤 해서 총 4통을 보냄)

(아래 편지는 폭우 치는 밤에 보낸 중간편지임. 시간은 2월의 어느 날임)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밤은 그냥 좀 기분이 그래서 이달 중순에 한 통 더 보내요.

엄청 폭우가 내리치는 밤이에요.

눈이 어찌나 세차게 제 방 창문을 때리고 있는지.

캠퍼스의 모든 조명들이 폭우 때문에 나갔어요(정전되었어요).

게다가 블랙커피(크림과 설탕을 타지 않은 커피)를 마셔서인지 영 잠이 오
질 않네요.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와 ‘줄리
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 그리고 저(여주인공)와
‘레오노라 펜턴’(고향이 텍사스인 여자애) 이렇게 넷이서 저녁식사 겸 파티를

가졌어요.

정어리와 구운 머핀(둥글고 납작한 빵. 버터 발라 먹음) 그리고 샐러드와 ‘연한 캔디’(=초콜릿+ 버터+ 우유+ 설탕)와 커피가 음식으로 나왔답니다.

파티가 끝나자 흥,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는 잘 먹었다면서 그냥 갔구요--+ 대신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설거지하는 걸 도와줬어요~♥. :)

다행히 오늘 밤은 라틴어 공부에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하지만 뭐 의심할 바 없이 전 라틴어 공부라면 아주 마음 내켜하지 않는 학생인지라.ㅌㅌ

수업은 ‘리비우스’(고대 로마 역사가. 기원전 59년~기원후 17년)와 키케로(고대 로마 정치인이자 작가. 기원전 106년~기원후 43년)의 『노년에 관하여』(에세이집임)를 끝마쳤고요, 요즘은 『우정에 관하여』(키케로의 에세이집임)를 들어가고 있어요. 아 참 전 이거(『우정에 관하여』의 원문 『De Amicitia』. ←라틴어는 영어철자처럼 철자대로 발음하면 됩니다.)를요 “제 기랄 짜증이”(원문→Damn Icitia)라고 불려요. 푸하하~

살짝 쿵만 제 할머니인척 좀 해주심 안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가 한 분 계시다고 해서요, 그리고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와 ‘레오노라’(고향이 텍사스인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는 할머니 외할머니 모두 살아계시다 해서요.

오늘 밤 모두 자신들의 할머니가 최고라며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전 안 계시잖아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 뭐예요.

그냥 존경스런 분이시겠구나 하고 말았죠.

그래서 말인데요, 아저씨만 심히 반대하지 않으신다면요... 어제 마을에 갔을 때, 라벤더 꽃 모양 리본에 무명실로 짠 수직 레이스 달린 귀여운 모자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호호~ 할머니의 83번째 생신에 맞추어 제가 그 모자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하하

멘붕~! 멘붕~! 멘붕~! 멘붕~! 멘붕~! 멘붕~! 멘붕~! 멘붕~! 멘붕~! 멘붕~! 멘붕~! (원문엔 느낌표!가 12번 그려져 있음)

이건 지금이 밤 12시라는 걸 알려주며 울리고 있는 교회 예배당 종시계의 울림을 형상화한 거예요.ㅋㅋ

어, 예상과는 달리 잠들 수 있을 거 같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전 당신이 정말 좋아요.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가.

(8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1월에 보낸 편지 4통 중, 4번째 편지 끝)

(입학 후 7번째로, 1월 겨울방학이 끝나갈 쯤 해서 총 4통을 보냄)

9장. 키다리 아저씨

(3월 15일에 총 1통 보냄)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8번째로, 3월 15일에 총 1통을 보냄)

3월 15일을 경계하라.

[날짜설명 : 3월 15일은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을 한 사람)가 암살당한다고 예언되었던 날임]

키다리 아저씨께,(키다리 아저씨께. 원문→D. L. L. =장님거미란 영어단어를 줄인 거임)

라틴어 산문 작성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배우고 있거든요. 따로 공부도 해볼 참이었고요. 안하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재시험이 다음 주 화요일 7교시에 있는데, ‘통과’ 아님 ‘파멸’이거든요.T_T

다음 번 편지에서 뭘 기대하세요, 합격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 행복해하고 있다는 소식? 아님 산산조각 나 있다는 소식...

꼭 잘 되었다는 편지를 쓰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밤은 정말 머리 싸매고서 ‘탈격 독립어구’[←라틴어 문법. 영어의 ‘독립분사구문’(주절에도 주어가 있고 종속절에도 종속절대로 주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네이버검색했음]를 공부해야할 것 같아요.ㅠㅠ

몹시 애가 타는... 당신의,

제이 에이 양이. (원문→J. A. ,=제루샤 에벗)

(9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3월 15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8번째로, 3월 15일에 총 1통을 보냄)

10장. 키다리 아저씨

(3월 26일에 총 1통 보냄)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9번째로, 3월 26일에 총 1통을 보냄)

3월 26일에.

키 큰 스미스 씨께,

나리(키다리 아저씨), 여전히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이 없으시군요.

제게 어떠한 관심도 표명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셨다는 걸 보여주려는 건가요.

아마도 아저씨 가장 나쁜 평의원(=이사)들 중 가장 나쁜 경우일 거예요.

아저씨가 절 교육시키는 이유를 알아요, 그건 제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의무 비슷한 그런 감정이예요.

전 아저씨가 싱글인지도 모른다고요.

여보세요, 전 아저씨 이름조차도 몰라요.

아 참 편지도 이젠 정말 쓰기 싫어지는데요.

설마 제가 보내는 족족 제 편지들을 읽지도 않으시고 휴지통에 던져 넣으시는 건 아니겠죠.

알았어요. 아저씨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앞으로 사무적인 일과만 편지에 쓸 거예요.

알려드립니다. 키다리 씨. 저의 라틴어과목과 기하학과목의 재시험이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둘 다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제 전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응답하라 오버~

당신의 진실 된,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의 실명)이.

(10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3월 26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8번째로, 3월 26일에 총 1통을 보냄)

11장. 키다리 아저씨

(4월 2일에 총 1통 보냄)

(18세. 대학교1학년)

(입학 후 10번째로, 4월 2일에 총 1통을 보냄)

4월 2일.

키다리 아저씨께,

전 ‘짐’‘승’(=동물)이에요.

지난주에 보낸 막말 편지는 제발 잊어주세요.TT... 넘 외롭고 비참하고 편지를 쓰는 내내 목이 아파서 배은망덕한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편도선염(목 안이 붓는 염증)에 독감에다가 이것저것 많이도 가졌더라고요.

지금 양호실에 누워 있어요. 6일 정도는 여기 있어야 된대요. 제게 첫 번

책로 주어진 휴식시간, 앉아도 된다고 해서요,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해서 아저씨께 적고 있어요.

수간호사(관리자) 선생님이 아주 그냥 우두머리 행세를 하려들지 뭐예요. 앙~

하지만 정신이 조금씩 들면서 지난주에 보낸 편지 걱정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아저씨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거 같아서요.ㅠ ㅠ

여기 지금 제 물골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토끼 귀 마냥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어요. 앙ㅏㅏ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69.png> (검색일

자 : 2016-5-20)

그림설명(원문에 있는 사진설명임) :

머리를 봉대로 칭칭 감고 있는 주디(여주인공 애칭. 입이 아니라 여자이름
'주디Judy'임)

동정심이 일지 않나요?

혀밑샘이 부어 말도 제대로 못해요.ㅠ ㅠ

사계절 내내 생리학 수업을 들어오고 있건만 전 혀밑샘이란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요.

세상에 이런 무익한(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강의가 또 있을까요!

아 더는 더 못 쓰겠어요. 무리하게 오래 앉았더니만 바닥이 흔들거리는 느
낌이에요.ㅠ ㅠ

버릇없고 배은망덕하게 군 것에 대해 사과드려요.

아파도 짜죠.ㅠ.ㅠ

사랑가득,

주디 에벗(여주인공의 애칭)이.

(11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4월 2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10번째로, 4월 2일에 총 1통을 보냄)

12장. 키다리 아저씨

(4월 4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1'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2'학기)

(입학 후 11번째로, 4월 4일에 총 4통을 보냄)

양호실에서.

4월 4일.

키다리 아저씨 짱~(원문→가장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어둠이 제법 익어가던 어제 저녁에 침대에 앉아서 비 내리는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틀에 갇힌 삶이 넘 지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 간호사 언니가 새하얗고 긴 박스 하나가 제 앞으로 배달되어 왔으며 전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런 분홍색 장미

봉오리들이 가득 들어 있지 뭐예요.

정말 더 좋았던 건,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손등을 살짝 안쪽으로 굽혀서 꼼꼼하게 쓴 거 같은, 이보다 그 분의 성격을 더 잘 들려주는 건 없죠, 메시지가 담긴 카드도 한 장 들어있지 뭐예요.

감사해요, 아빠, 수천 번 수만 번 감사해요.

주신 꽃은 절 치유하고도 남았어요, 제 생전 받아본 가장 진실된 선물이었어요.

제가 어떤 애인지 알고 싶다면요, 이걸 어때요, 선물을 받고 넘 행복해서 옆드려 펴 펴 울었어요.

이제 전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저씨 제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 이제부터 편지 쓸 땐 훨씬 더 재미나게 적어야겠어요. 그래야 소중한게 보관해주실 거 아녜요….

그러니 지난번에 보낸 그 끔찍한 불평 편지는 제발 꺾어내 태워버려 주세요 넷~

아 그 편지를 아저씨가 읽는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뭐예요. 내가 못살아 정말.ㅠㅠ

넘 꼬이고 아팠던 제 새내기 생활을 기운차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해요.

아마도 아저씨 옆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 혼자인 외로움을 잘 모르실 테죠.

하지만 전 그 반대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절대 다시는 그런 편지 보내지 않을 게요, 그리고 다신 나쁜 생각 안할게요, 왜냐면 이젠 아저씨가 진짜 사람인지 알았으니까요. :)

ㅋㅋ

추가적인 질문으로 다신 아저씨를 귀찮게 하진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자애들을 싫어하시나요?

당신의 영원한,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18세. 대학교1학년. 4월 4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1번째 편지 끝)

(4월 4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2'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2'학기)

(입학 후 11번째로, 4월 4일에 총 4통을 보냄)

월요일, 8교시에.

키다리 아저씨께,

혹시 두꺼비 위에 앉으셨던 평의원(=이사) 분이 아니세요, 아저씨?

터질 때... 평하고 큰 소리가 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
저씨가 그때 그 똥똥이 평의원 분이 아니신지 해서요.

〈존 그리어 고아원〉(여주인공이 있던 고아원) 세탁실 창가 옆에 격자 모
양의 뚜껑 있던 거 기억나세요, 작은 방공대피호 말예요?

두꺼비가 우는 봄만 되면 저흰 그 창문 구멍에 두꺼비를 주어다가 집어넣

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그 두꺼비들이 세탁실 쪽으로 넘어 가더지 뭐예요, 그럼 빨래하는 날 아주 재미난 소동이 벌어지죠.ㅋㅋ

걱정 마세요, 소동 후엔 저희는 항상 엄청난 벌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갖은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두꺼비 수집은 계속되었답니다.하하

그러다 하루는... 글썄, 제가 아저씨를 세세하게 뚫어져라 쳐다본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방공대피소에 넣어두었던 두꺼비 중 가장 뚱뚱하고 크고 윤기 짙은 두꺼비들이 죄다 평의원(=이사)실에 있던 가족으로 된 큰 팔걸이의자 하나로 뛰어들었지 뭐예요. 평의원 미팅이 있던 그날 오후에 말예요...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대 아저씨가 거기 있었다면, 기억나세요?

그때를 냉정히 되돌아보면, 벌 받은 것도 나름... 제 기억이 맞는다면... 온당했던 거 같아요.

봄만 되면 왜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지, 이젠 수집 본능을 일깨우는 두꺼비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데.

하긴 뭐 굳이 찾으려면 있겠지만 웬지 이젠 그러지 말라는 규칙이 없어 안하게 되는 거 같아요.

(18세. 대학교1학년. 4월 4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2번째 편지 끝)

(4월 4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3'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2'학기)

(입학 후 11번째로, 4월 4일에 총 4통을 보냄)

예배(=채플) 마친 후, 목요일.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진심, 좋아하는 책이 3일마다 바뀌요~

『폭풍의 언덕』(1847년 작품. 좀 무서운 내용 같아서 아직도 안 읽은 책임-_- 예전에 라디오에서 책 소개해주기에 듣다가 ‘음, 절대 안 읽어야지!’라고 작심했던 책인데, 작품성은 좋은 책이라네요. 사랑과 증오 복수가 주제라고 합니다. 네이버검색결과)이에요.

에밀리 브론테(영국 여성작가. 29살에 가명으로 『폭풍의 언덕』을 썼음)는 이 소설을 아주 어린 나이에 썼어요. 게다가 그녀는 단 한번도 ‘하워스’(영국중부. 맨체스터 북동쪽. 아래의 네이버지도 참조) 교외를 벗어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어떠한 남자도 알지 못했고 말이에요. 그런 그녀가 히스클리프(『폭풍의 언덕』 남자주인공이름)를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헐~♥

▼ 지도 : ‘하워스’(영국중부. 맨체스터 북동쪽)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53.83118754796634,-1.9559848308563232&zoom=7&size=886x415&sensor=false&markers=53.83118754796634,-1.9559848308563232&client=gme-nhncorp&signature=BBmXQgk4aeq73vR41jKh6_Mtli4=&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6.0 (검색일자 : 2016-5-22)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린데 하긴 〈존 그리어 고아원〉을 벗어나보지 못해본 건 같네요… 하지만 뭔가 세상에서 희망을 본 기분이 들어요.
내가 천재가 아닐 거란 끔찍한 두려움을 극복해준다고나 할까요.
제가 위대한 작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끔찍이도 실망하심 안돼요, 아셨죠, 아빠?

만물이 초록으로 예쁘장하게 돌아나는 봄이에요.

수업에서 도망가고 싶은데, 이런 날씨엔 그냥 훌쩍 떠나는 게 답인데 ㅋ
ㅋ. 그럼 혼나겠죠~

들판을 벗어나면 많은 모험들이 우릴 기다리죠!

그걸 적기보단 생생한 책들(=봄)을 접하는 게 훨씬 낫네요.

앗 ! ! ! ! !

이건 비명이에요.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와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18세. 대학교1학년) 그리고 졸업반 언니가 언더리를 치며 복도를 뛰어가게 만든 지네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75.png> (검색일자 : 2016-5-22)

그림설명(원문에 있는 그림설명임) : 지네(기어 다니는 지네를 말함)

더 나쁜 건, 제가 막 마지막 문장을 쓰자마자 다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털썩!(←지네가 털썩 떨어진 상황 상상 중임)... 그게 천정에서 떨어졌죠. 그
것도 제 바로 옆에요.TT

그 바람에 지네를 피하려다 찻잔에서 컵 두 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더 나빴던 건,TT, 셀 리가 그걸 제 머리숱 뒷부분으로 찢어 내려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 머리숱은 다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앞부분(지네의
앞부분)만 죽었고요, 아 다리 50개가 달린 그 아랫부분은 옷장 아래로 달아
나버렸어요.TT

햇수(=년도)와 담쟁이덩굴로 덮인 벽들 덕분에, 이 기숙사는 지네들(기어
다니는 지네) 천국이에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곤충이에요.

차라리 침대 밑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게 낫다니까요.

(18세. 대학교1학년. 4월 4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3번째 편지 끝)

(4월 4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4'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2'학기)

(입학 후 11번째로, 4월 4일에 총 4통을 보냄)

금요일, 오후 9시 30분.

우당탕 쿠당탕!

아침에 기상 벨을 듣지 못했던 말예요, (여주인공은 기숙사 1인실에서 지내고 있음) 허겁지겁 옷을 입는 등 마는 중 하다 그만 구두끈이 떨어졌고요 칼라(목) 단추는 목 아래에 집어넣고...

아침식사에 늦은 건 물론 1교시 강의 시간에도 늦었지 뭐예요.

게다가 공책도 방에 놓고 왔고 만년필도 챙겨오지 못한 걸요.ㅠㅠ

삼각법(=수학의 한 과목) 수업 중엔 사소한 논리 문제로 교수님과 저 사이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가만 살펴보니 제가 틀렸지 뭐예요.ㅌㅌ

점심으론 양고기 스튜(=국)와 '장군풀의 뿌리'(원문→'식용 대황'. 사진링크 ▶ <http://me2.do/G09Gil8B> . 한약재료 같아 보임)가 나왔는데 아~ 제가 둘 다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둘 다 고아원에서 먹던 음식 냄새가 나거든요.ㅠㅠ

우편함엔 기다리는 편지(키다리 아저씨가 싱글인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 편지)는 안 오고 청구서만 잔뜩 들어있지 뭐예요.^^

그 밖의 편지는 한 통도 없더라 말씀을 꼭 누군가에게 드리고 싶네요. 제 가족 분은 편지를 보내 줄만큼 친절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오후 국어(영어) 수업시간에 예기치 못했던 작문 과제가 주어졌어요.
짠 이게 과제였어요. 들어볼래요~

(아래의 시는 전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줄거리가 느껴지게 해석했습니다.)

(아래는 국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기 위해 칠판에 적혀 놓은 시임)

특별히 바란 건 없지만,
특별히 안 바란 것도 없는데.
배불뚝이 상인 또 웃네.
브라질 커피? 쳐다보지도 않고서
그가(상인) 단추를 빙빙 돌리며.
하지만, 부인, 없다니까요.
오늘은 이게 다예요?

이건 한 편의 시예요.
누가 무슨 의미로 쓴 건진 저도 몰라요.
강의실에 도착해보니 칠판에 누가 적어 놓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 시에 대한 논평을 한 마디씩 달라고 지시받았거든요.

시 첫 문장을 읽고선 전 이렇게 생각했죠... 배불뚝이 상인은 공덕을 쌓은 대가로 축복을 내려주는 천사님이 아니실까 하고요... 하지만 두 번째 문장

을 읽곤 어? 상인이 왜 단추를 빙빙 돌렸을까 이런 불경스러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급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머지 학급친구들도 저와 같은 편견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저희들은 수업시간의 3/4(4분의 3)를 빈 공책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죠 다 같이 머릿속이 멍해져선 도무지 뭘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말예요. 고민 해본 시간만은 좋은 학습경험이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 날의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엔 보통 불행이 겹쳐 일어나잖아요.

비가 오는 바람에 오후에 골프를 할 수 없었어요, 대신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야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여자애가 ‘인디언 클럽’(=곤봉. 곤봉체조 할 때 사용. 사진링크▶ <http://me2.do/5q6IetGB>)으로 제 팔꿈치를 때렸지 뭐예요.

집에 와서 저번에 가지고 온 옷상자에서 파란 봄옷을 찾아냈어요, 다만 스커트는 너무 짝 쪼여서 이거 입곤 못 앉아요.

금요일(편지를 쓰는 오늘)은 대청소날이에요. 청소하시는 할머니께서 제 책상 위에 있던 모든 종이들을 뒤섞어버렸어요.ㅌㅌ

디저트는 죽음이었어요. 바닐라 향이 나는 우유와 젤라틴(동물의 뼈나 가죽으로 만든 단백질. 아무런 맛이 없다고 함. 네이버 검색결과)이였거든요.

요조숙녀(정숙한 여성) 애길 듣느라 평소 예배(채플) 시간보다 장장 20분을 더 좌석에 앉아 있어야 했고요.

아 말도 마세요 끔찍 그 자체... 예배하는 내내 이름이 ‘애커리’(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이고 얼굴에 핏기 하나 없고 엄청 철두철미하게 어리석은 여자애가 “여성의 자화상”을 주제로 냇두리를 널려놓는 걸 들어야 했어요.ㅍㅍ

그 애는 이름인 ‘ㄱ’(맨 처음)으로 시작해서요, 아시잖아요, 제 성이 리벳

원장님(고아원 원장님)의 성함을 따서 ‘ㅎ’(맨 마지막)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는 라틴어 수업시간에 제 옆자리에 앉아요.

다음 주 월요일 수업에 문단 69를 시작하는지 문단 70을 시작하는지를 제게 물어러 왔다가 양ㅍㅍ 장장 ‘한’ ‘시’ ‘간’을 머물다 갔어요. 내가 미쵸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사람을 실망시키는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그런다고 의지가 꺾일 문제는 아니겠지만, 신뢰감이 드는 친구가 있는 반면 대화만으로도 사람의 기를 꺾는 애가 있어요.

웃으면서 폭탄을 만나는 것은... 정말 기력을 요하는 일이라 생각돼요.

전 계속 발전해가는 성격인걸요.

모든 삶은, 가능한 한 숨씨 좋고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펼치는 게임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예요.

만약 진다면, 그저 제 어깨를 으쓱하며 웃고 말지요... 하긴 이겨도 그러겠지만..^^ 하하

어쨌건, 전 스포츠 선수처럼 살 생각이에요.

이젠 제게서 불평불만을 듣지 못하실 거예요, 아빠, 갑자기 왜 이리 기쁘냐고요? ㅋㅋ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에. 18세. 대학교1학년. 여주인공은 줄리아를 마음속으로 싫어함. 하지만 줄리아는 주디를 좋아함^^)가 신고 있던 비단 스타킹에 지네(기어다니는 지네)가 떨어졌걸랑요~♥

당신의 한결같은,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가급적 빨리 답장주세요~

(12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4월 4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4번째 편지 끝)

(입학 후 11번째로, 4월 4일에 총 4통을 보냄)

13장. 키다리 아저씨

(5월 27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1'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2'학기)

(입학 후 12번째로, 5월 27일에 총 2통을 보냄)

5월 27일.

키다리님께.

귀하께. 방금 리펫 부인(리펫 원장님. 고아원의 원장님)으로부터 편지 한통
받음.

품행(행동)과 학업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다짐이셨음.

그리고 이번 여름에 마땅히 갈 데가 없다면 고아원으로 돌아와 가을 학기

가 시작할 때까지 고아원에서 기거하며 일 좀 도우라하십니다.

전 <존 그리어 고아원> 이 정말로 정말로 싫어웁.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웁.

당신의 가장 진실 된,
제루샤 에벗(주인공의 실명)이.

(18세. 대학교1학년. 5월 27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1번째 편지 끝)

(5월 27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2'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2'학기)

(입학 후 12번째로, 5월 27일에 총 2통을 보냄)

(아래의 편지는 여주인공이 넘 기분이 좋아서 고마운 마음에 편지를 프랑스어로 써서 보낸 경우입니다. :)ㅎㅎ 아직 여주인공이 1학년생이기 때문에 모두 프랑스어로 쓰진 못하고 대부분을 프랑스어로 쓰고 나머진 영어로 적었네요)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 께

질 생각해주셔서 넘 고마워요!

농장이라니 넘 행복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인 걸요.

〈존 그리어 고아원〉에 가 여름 내내 설거지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겸손이고 뭐고 성격 다 드러내곤 건물에 있는 컵과 접시를 모조리 깼 것만 같았어요.

그만 적어야겠어요, 아빠.

프랑스어 수업을 듣긴 듣는데 문장으로 다 못 쓰겠어서요.

이 편지를 보면 저희 교수님께서 불러서 저를 혼내실 것만 같아요~

아저씨도 그러실 거죠!

그럼 안녕,

전 당신이 넘 좋아요.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13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5월 27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2번째 편지 끝)

(입학 후 12번째로, 5월 27일에 총 2통을 보냄)

14장. 키다리 아저씨

(5월 30일에 총 1통 보냄)

(18세. 대학교1학년 '2'학기)

(입학 후 13번째로, 5월 30일에 총 1통을 보냄)

5월 30일.

키다리 아저씨께,

대학 캠퍼스(학교) 보신 적이 있나요?

어째 질문이 좀 말장난 같은 질문이라고 절 꾸짖진 않으실 거죠.

5월의 캠퍼스는 거의 천국 같은 관광지랍니다.

키 작은 나무들이 모두 꽃을 피우고 있고, 나무들은 가장 사랑스러운 신록
(새로 돋은 녹색 잎)을 머금고 있죠... 심지어 오래된 소나무들조차도 새롭고
신선해 보인답니다.

잔디밭엔 노랑 민들레들이 점점이 박혀 있고, 수백 명의 여학생들이 파랑 색 흰색 분홍빛 도는 드레스들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모두들 기뻐하고 천하 태평해 한답니다. 방학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번 방학 땐 누구와 무엇을 할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시험도 아랑곳 않죠.ㅋ

그러니 어찌 행복한 마음 상태이지 않겠어요?

오, 아빠! 그 중 제가 제일 행복할 거예요!

더 이상 고아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고, 타자를 안 쳐도 되고, 부기(회계) 장부를 정리하지 않아도 되요. 이 모두가 제가 할 일이었거든요. 물론 잘 하시듯 아저씨를 위해선 언제나 할 수 있지만요. 헤~

제 모든 투덜댐에 대해 미안요.

한때 리벳 원장님(고아원 원장님)에 대해 버릇없이 군거 미안요.

한때 ‘프레디 퍼킨즈’(고아 이름.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 여주인공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프레디 퍼킨즈의 이름을 들먹임^^)의 등짝을 때린 것 미안요.

한때 설탕 통에 소금을 채운 거 미안요.

한때 평의원(=이사) 분들의 등 뒤에서 얼굴을 찌푸린 것 미안요.

제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분께 착하고 달콤하고 다정하게 대할 거예요.

이번 여름 글을 글을 쓰고 쓰고 또 쓰고 계속 쓰서 꼭 위대한 작가가 되야지.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넘 떨려요?

아, 눈부신 주인공을 창조해야지!

추위와 서리에 살짝 눈을 내리깔고서 태양이 내리쬐는 공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주인공을 말예요.

모두 그렇게들 커잡아요.

불행 슬픔 낙담이 정신을 고양시킨다는 이론에 전 동의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 남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 염세가(사람을 싫어하는 것)는 전혀 아니예요.

앗싸! 방금 배운 단어 써먹었다.^^

물론 아저씨도 염세가는 아니겠죠, 아빠?

그럼 저희 캠퍼스(대학교)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잠깐이라도 저희 캠퍼스에 들렸어야 하는 건데, 그럼 저랑 산보하며 이런 담소를 나눌 건데.

“저건 도서관이고요. 이건 백선 꽃이에요, 사랑스런 아빠. 왼쪽으로 보이는 ‘고딕 건물’(중세 유럽의 교회건물 상상바람)이 실내체육관이고요, 그 옆에 자리하고 있는 ‘튜더(=영국 왕실 이름 중 하나) 양식의 로마네스크’(=육중한 성곽) 건물’이 학교 부속의 진료소예요.”

아, 눈앞에 선해요. 고아원을 벗어난 여기선 모든 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참말이에요.

남자도요!(예전엔 남자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의미임)

엄청난 경험이에요. 전엔 결코 남자와 얘기를 나눴본 적이 없걸랑요. 뭐 물론 이따금씩 고아원을 방문한 평의원(=이사)분들과 나눈 대화는 빼고요. 물론 평의원분들은 신경도 안 썼겠지만 요.

용서하세요, 아빠. 평의원분들을 탓해서 아저씨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정말 아저씨 그들(=평의원분들)과 한 부류가 아니세요.

아저씨 닝쿨째 굴러온 당신이에요. 하하^^

똥똥하고 건방지지만 대신 나름 친절하 그런 평의원 분들을 상상해요.

머리엔 모자를 하나 쓰고, 주머니엔 회중 금시계의 쇠줄을 달고 있는 분을
요.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85.png> (검색

일자 : 2016-5-29)

그림제목(원문에 있는 그림제목임) : 똥똥이 평의원분(=이사님)

꼭 ‘왕풍뎡이’이처럼 생기셨죠? 아저씨를 제외한 일반적인 평의원(=이사)분들의 초상화를 그려본 거예요.

어쨌든... 얘기를 계속하자면,

전 남자와 산보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같이 차도 마셨어요. 헐~

아주 흰칠한 남성 과요.

‘저비스 펜들턴’라고, 줄리아(뉴욕 최고의 가문 중 하나)네 가문 출신인데
요, 간단히 말하자면 줄리아의 삼촌이에요.

좀 더 길게 말씀드리자면 그 분은 아저씨만큼이나 키가 커답니다.

사업 구상 차 마을에 머물고 있어요. 대학을 중퇴하기로 결심하고 조카인
줄리아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줄리아의 아빠의 가장 어린 동생이에요.

하지만 줄리아도 삼촌에 대해 아주 자세히는 모르더라고요.

삼촌도 줄리아가 아가였을 때 잠시 본 게 다였나 봐요. 결국 별로 조카를
좋아라 하지 않다 결국 이후 줄곧 눈여겨보지 못한 거죠.

여하튼, 여기 온 거예요, 자기 옆에 모자와 막대기 그리고 장갑을 예의바
르게 벗어놓고서 응접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하지만 줄리와 샬리 모두 그때 7교시 수업중이라 시간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줄리아가 수업 들어가기 전 제 방으로 후다닥 달려오더니 제발 자
기 삼촌이랑 산책좀 같이 해달라며 그래서 캠퍼스를 구경시켜주며 자기 7교
시 수업이 끝날 때까지만 어떻게든 돌아다녀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지 뭐예
요.

별 성의없이 그냥 담담히 그러겠노라고 제가 말했죠. 왜냐면 전 ‘펜들턴’
(뉴욕 최고의 가문 중 하나라고 소설에 나옴) 가문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분(줄리아의 막내삼촌)은 유순해도 이리 유순할 수 없는 거예
요.

진짜 남자더라고요... 전혀 펜들턴(뉴욕 최고의 가문으로 소설에 나옴) 가문 출신 같지 않았어요.

저흰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 제게도 삼촌이 계셨더라면.

아저씨가 제 삼촌 역할 해주실래요?

할머니 역할보단 삼촌이 더 낫지 않나요?

펜들턴(줄리아의 막내삼촌) 씨 얘기를 하니 살짝 생각이 나네요, 아빠, 20년 전엔 어떤 모습이셨어요.

그냥 아저씨를 잘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비록 저희가 일찍이 만난 적은 없더라도요!

삼촌(줄리아의 막내삼촌)은 키가 크고 짙은 피부에 전체적으로 호리호리(=날씬)한 편이었어요.

대놓고 웃진 않는데 입가 끝자락을 살짝 꼬기작거리는 게 정말 미소 짙었어요~

왜 있잖아요, 분명 모르는 사람인데 첫눈에 어디서 만난 거 같은 그런 친근한 인상요. 그분이 그랬어요. 아주 사교적이시더라고요.

저흰(‘여주인공’과 ‘줄리아의 막내삼촌’) 안뜰(대학의 안뜰)에서부터 종합운동경기장까지 캠퍼스 구석구석 돌아다녔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약간 지친다며 차(마시는 차)를 좀 마셔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커피숍(-_-;; 원문→칼리지 인) 가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아 캠퍼스(대학교) 밖에 있는데 ㅋㅋ 그치만 소나무 산책로를 지날 수 있다는 것 :) ㅋㅋ

다만 제가 줄리아와 샬리가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그 분이 글썽 자기 조카(줄리아)들이 차(마시는 차)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같아 싫다며

신경질적으로 만든다고ㅋㅋ

그래서 우린 후딱 뛰어가서 차랑 머핀(작은 옥수수 빵)이랑 마멀레이드(오렌지잼)와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발코니에 있던 작고 깔끔한 테이블에서 해치웠답니다. :)

원래 커피숍(원문→칼리지 인)에 학생들로 부쩍 있는데 이날은 텅 비어있지 뭐예요. 월말이라 용돈이 다 떨어져서요ㅎ

정말 재미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 기차 시간이 다 되서 그만 조카인 줄리아를 못 보고 그냥 가셨어요.

이 일로 T_T 줄리아가 제게 막 화를 내며 자기 삼촌을 빼돌렸다고...아

줄리아 말로는 그 분 엄청 부자시라는데 정말 성격도 좋던데...

그나마 부자시라니 제 맘이 좀 편해졌어요. 왜냐면 커피숍에서 찻값과 다과 비용으로 1인당 6천 원(원문→60센트) 씩이나 나왔었거든요.

오늘 아침, 그래요 월요일 지금요, 오늘 아침에 빠른 배송으로 초콜릿들이 담긴 박스가 3개 왔어요. 줄리아와 샐리 그리고 제 앞으로요.

뭐였게요?

그래요~ 저 남자한테 캔디 받은 거 처음이에요!

고아 느낌 대신 여자애로서의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랄까~

아저씨도 한 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차도 같이 마시고 제가 아저씨를 맘에 들어할지 말지 얼굴도 직접 한 번 보고요.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으니 ㅋㅋ 그렇겠죠?

걱정 마요~ 꼭 좋아해드릴게요~

능숙 능란하게! 칭찬을 해대고 있는 제 목소리가 들리시지 않나요~

(프랑스어로→)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추신.

앗! 오늘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다 세상에 전에 없던 보조개를 발견했지
뭐예요.

넘 신기해요.

이게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세요?

(14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5월 30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13번째로, 5월 30일에 총 1통을 보냄)

15장. 키다리 아저씨

(6월 9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1'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2'학기 마친 후 여름방학)

(입학 후 14번째로, 6월 9일에 총 2통을 보냄)

6월 9일.

키다리 아저씨께,

경축일! 방금 막 마지막 시험을 끝마쳤거든요... 생리학(=생물) 과목이요.

자 그럼, 전 이제부터 석(3) 달 동안을 농장에서 ㅋㅋ~!

농장이 어떻게 생긴 곳인지 전 모르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쳐다 본 적도 없으니, 뭐 물론 달리는 차 안에서 딱 한 번 쳐다본 적은 있지만,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가 그 곳을 사랑하게 될 거란 예감이

들어요, 그곳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할 거니까요.

〈존 그리어 고아원〉에 있을 때조차도 밖에 잘 나가본 적이 없는 저인지라, 농장에 갈 생각을 할 때마다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전율이며 이 안달감~ 리펫 원장님(고아원의 원장님)이 팔을 뻗어 제 등을 움켜쥐시는 건 아닌지 더 빨리 더 빨리 내달리며 등 뒤를 힐끔힐끔 내다보아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 여름방학 땀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ㄱㄱ?

ㄱㄱ 물론 아저씨의 권위는 이 문제(여름방학의 여유로움)에서 제외예요, 아저씨 해를 끼치기엔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ㅎ

이젠 리펫 원장님과 영원히 안녕이에요ㄱ

배은망덕하다고요? 아뇨, 전혀요. 저도 이제 다 컸다고요. 만세!

아 그만 써야겠어요, 지금 막 여행 가방을 싸려던 참이었거든요, 찻주전자와 접시 그리고 소파 쿠션과 책들만 상자로 세 개예요.~)

놀랍죠~

당신의 한결같은,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추신.

그런데 생리학 시험(오늘 시험 친 생물과목) 있잖아요, 아저씨가 생각하기엔 제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나요?

(6월 9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2'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2'학기 마친 후 여름방학)

(입학 후 14번째로, 6월 9일에 총 2통을 보냄)

룩(=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농장,

토요일 밤.

키다리 아저씨 짱~(원문→가장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딱 도착했어요, 아직 짐은 풀지 못했고요, 하지만 농장이 녀 맘에 들어서
빨리 아저씨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이곳은 천국, 천국, 진짜 천국의 장소예요!

가옥(집)이 이렇게 정사각형이에요~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

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92.png> (검색

일자 : 2016-5-30)

그림제목(원문에 있는 그림제목임) : 농장 가옥

오래됐어요. 대략 백년 정도.

그림 실력이 못해 다 그리지 못한 부분엔 베란다가 하나 있고요, 정면으로
달콤한 포치(벽이 뚫려 있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고급현관)도 하나 있어요.

그림이 실제 느낌을 다 살리지 못해 아쉬워요... 깃털로 된 먼지떨이 느낌
이 나는 건 단풍나무들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경계지어며 가시가 돋쳐 있는 건 소나무와 솔송나무가 바
람에 스쳐 샹샹샹 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농장 가옥이 언덕 위에 자리해 있어 수 킬로미터 떨어진 초록색 목초지들
과 구릉지대의 풍경들을 내다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

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93.png> (검색

일자 : 2016-5-30)

그림제목(원문에 있는 그림제목임) : 구릉지대 풍경

마르세유(=프랑스 남부의 항구도시. 원문→마르셀. =호주의 항구도시이름.
키다리 아저씨 원문엔 오타가 몇몇 있음. 여주인공이 아직 대학교1학년인 걸
고려해 일부러 화가 이름이나 도시 이름에 오타를 넣는 경우가 종종 이 소
설엔 있음)의 넘실대는 물결들 마냥 이어진 이 선은 코네티컷(뉴욕 북동쪽에
있는 주.) 가는 길 그린 거예요.

물결 맨 왼쪽 위에 딱하니 자리하고 있는 게 <록(=늘어뜨린) 월로우(=버
드나무) 농장> 이에요.

한 때는 길 건너에까지 헛간들이 쪽 있어 시야를 가렸다네요, 그러다 어느
날 하늘에서 천둥 비슷한 섬광이 한 번 번쩍하더니 다 타버리고 없었네요.

혈~

이곳 사람들로선 샘플 씨 부부(농장주인)가 있고요, 그들이 고용한 여자 가사도우미 한 명과, 고용된 남자 두 명이 있어요.

일하는 분들은 부엌에서 먹고요, 샘플 씨 부부와 주디(여주인공 애칭)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햄과 달걀 그리고 비스킷과 꿀 그리고 ‘젤리를 케이크’(사진링크 ► <http://me2.do/xm8lTZL4>)와 파이와 피클(오이 절인 거)과 치즈 그리고 차(마시는 차)를 저녁으로 먹었고요… 그리고 대화도 엄청 했어요.

아 이런 재미난 나날이 언제 제 삶에 있었던가 싶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두 분은 넘 재미나신 것 같더라고요. :)

하긴 제가 이런 전원생활(시골생활)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 그러실 만도 하죠.

제 질문들은 모두 무지함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X(엑스 자) 표시가 되어 있는 방이 있는데 ㅋㅋ 죄인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제가 머물 방이에요.

방은 큰 정사각형인데 비어 있더라고요. 오래됐지만 꽤 근사한 가구와 창문들이 있는 방인데, 창문들을 막대기에 기대 올리면 녹음(초록색)진 그늘이 마치 달을 듯 금빛처럼 드리워지는 방이에요.(-_-;; 해석 무대책ㅋㅋ)

붉은빛을 띤 갈색의 테이블도 큼직한 걸로 하나 놓여 있는 방이에요… 전 여기다 제 팔꿈치를 툭 뿌려지게 파묻고서 여름을 보낼 예정이에요, 작품(소설)을 구상하면서 말이죠. 뭐 구상이랄 것도 없이 쓰고 또 쓸 거예요. :) 해피~

오, 아빠, 저 넘 긴장돼요!

날이 밝아 이곳을 탐색해볼 때까지 도저히 못 기다릴 것만 같아요.

지금 오후 8시 30분이거든요, 막 촛불을 밝히고 자려고 하던 참인데.

여기 분들은 새벽 5시에 기상하신데요.

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정말 ‘주디’(여주인공의 별명)인지 믿기지가 않네요.

아저씨와 하느님께선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을 주셨어요.

전 정말, 정말, 정말로 착한 사람이 돼서 보답할 거예요.

꼭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여주인공의 별명)가.

추신.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 들어보셔야 하는 건데ㅋㅋ 새끼 돼지들이 꿀꿀 거리는 것도요... 오늘 따라 달이 참 밝네요♥ 오른쪽 어깨 너머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오른쪽 어깨 너머로 달을 쳐다보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서양 미신이 있음)

(15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6월 9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2번째 편지 끝)

(입학 후 14번째로, 6월 9일에 총 2통을 보냄)

16장. 키다리 아저씨

(7월 12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1'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2'학기 여름방학 중)

(입학 후 15번째로, 7월 12일에 총 2통을 보냄)

록(=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농장이름),

7월 12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비서님이 어떻게 〈록 월로우〉(농장이름. 늘어뜨린 버드나무란 뜻
임)를 아셨나요?

어,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인가요?

그래도 전 너무 알고 싶어요. 냇?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저비스 펜들턴(줄리아의 막내삼촌. 뉴욕 최고의 가문이라고 소설에서 나옴) 씨가 이 농장을 소유하고 계셨다네요. 하지만 지금은 소유권을 샘플 씨 부부에게 넘긴 상태래요. 그리고 샘플 씨 부부가 저비스 씨가 어릴 때 돌봐 주신 분들이고요.

이런 재미난 우연의 일치에 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샘플 아주머니께서 지금도 저비스 씨를 “저비스 도련님”이라고 불러요, 그 리곤 세상에 이렇게 얄전하고 사랑스런 꼬마 소년은 없다며 귀여워하시죠.

아주머니께서 저비스 씨가 애기였을 때 자른 곱슬머리카락들 중 하나를 상자 안에 보관하고 계신데, 빨간색... 아님 적어도 붉은 기가 도는 색이더라고요!

제가 그를 안다는 걸 아주머니께서 안 이후론, 전 아주머니의 의견에 부쩍 복종하는 편이 되었어요.:)

〈록 윌로우〉(=늘어뜨린 버드나무. 농장이름)에선 펜들턴(뉴욕 최고의 가문) 가문 출신의 누군가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자기소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화제거리는 어김없이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이세요... 줄리아(여주인공은 너무 부자인 줄리아를 싫어함. 그런데 줄리아는 여주인공을 좋아함)가 삼촌보다 촌수가 낮다고 말하는 것도 전 어찌나 재밌는지.

농장생활이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어제는 ‘건초(=사료) 나르는 마차’도 몰아본 걸요.

큰 돼지 세 마리랑 아주 작은 돼지새끼 9마리도 키우는 걸요, 애네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제 몫이 되었답니다.

ㅋㅋ 돼지들이 먹어대는 모습이란ㅋㅋ!

그리고 농장엔 엄청나게 많은 아기 닭들이란 오리들 그리고 칠면조들과 ‘빨닭’(=닭의 일종임)들이 있어요.

농장에서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음에도 도시 생활을 영위한다는 건 정말 영 아닌 것 같아요.

달걀을 주어 닭아오는 것도 제 하루 일과예요.ㅋㅋ

어제는 검은 암탉이 은밀하게 꾸며놓은 보금자리 위를 제가 네발로 기어 가려는데, 그만 헛간의 다락에서 ‘보’(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나무. 다음Daum 사전 참조) 하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무릎이 굽힌 채로 돌아오니 샘플 아주머니께서 조롱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약물로 감싸주셨어요, 그러면서 연신,

“이럴! 어째! 어머니! 바로 그 보가 떨어져서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 삼촌)이 똑같이 무릎을 굽힌 게 엇그제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이곳 주변 경치는 그야말로 일품이에요.

굴짜기도 하나 있고 강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울창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구릉지(언덕)들이 많이 있어요.

좀 멀리 떨어진 거리엔, 입안에서 정말이지 녹을 듯한 높고 푸른 산이 위치해있어요.

저흰 1주일에 두 번 크림(우유의 백백한 더께이)을 교유기(우유를 휘젓는 기계)로 휘저어 버터를 만들어요.

저장소(시냇물 위에 지은 저장소)에 크림을 보관해두는데요. 저장소는 돌로 지어진 거고요, 저장소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면서 저온을 유지해줘요.

이곳 농부들 중 몇몇은 원심분리기(회전시키면서 무게에 따라 재료가 나누어짐)도 가지고 있는데, 저흰 신식 물건들엔 잘 적응을 못하겠는 거 있죠.

ㅋㅋ

냄비에 담긴 크림(우유의 백백한 더께이)에서 더께이를 건져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팔아도 될 만큼 질이 좋아요.

송아지도 6마리 있습니다. 제가 이 애들 하나하나 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1번 송아지 이름. ‘실비아’(여자이름)예요, 왜냐면 숲에서 태어났거든요.

2번 송아지 이름. ‘레스비아’예요. 카툴루스(기원전84~54년. 고대 로마의 유명한 서정시인)가 쓴 『레스비아』란 작품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3번 송아지 이름. 샬리(여주인공이 좋아하는 친구이름).

4번 송아지 이름. 줄리아(여주인공이 안 좋아하는 친구이름)… 점박이에요, 애는 점박이인 거 말곤 특징이 없거든요.

5번 송아지 이름. 주디(여주인공의 별명), 제 이름에서 따 왔어요.~)

6번 송아지 이름. 키다리아저씨. 아 신경 안 쓰실 거죠, 아빠? 애는 저지섬(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국해협에 있는 섬이름)이 원산인 순종 소거든요. 성격도 온순하고요. 꼭 아저씨를 닮은 거 같아서… 어째 제가 이름을 적절하게 지었나요?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99.png> (검색일

자 : 2016-5-31)

그림제목(원문에 있는 그림제목임) : 긴다리 송아지

불후의 소설을 쓰기엔 아직 시간이 부족해요. 농장 일이 절 늘 바쁘게 하
네요.ㅋㅋ

당신의 영원한,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추신.

저 이제 도넛(먹는 도넛) 만들 줄 알아요~♥

앗! 추신 하나만 더요.

병아리를 키우실 생각이시라면, 누런색 ‘오펅턴’(몸집이 큰 영국 닭. 사진
링크▶ <http://me2.do/xFkmcePh>)을 강력 추천해요. 애네들은 숨깃털이 하
나도 없어요.

추신 3 :)

아저씨께 제가 어제 ‘교유기’(우유를 휘젓는 기계)로 휘저어 만든 신선한 새 버터 한 덩이를 보내고 싶어요. 저 이제 낙농장에서 일하는 여인 다 됐어요!

추신 4

아래의 그림은, 장차 위대한 작가가 될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의 실명) 양이 젓소들을 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00.png> (검색

일자 : 2016-5-31)

그림설명(원문에 있는 그림설명임) : (송아지의 별명들) 귀염둥이, 1등이, 작은새, 베스(여자이름), 점박이. (문장→) 앙! 도저히 몰수가 없어요(헛간으로 다시 몰아넣을 수가 없어요)!

(18세. 대학교1학년. 7월 12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1번째 편지 끝)

(7월 12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2'번째 편지)

(18세. 대학교1학년 '2'학기 여름방학 중)

(입학 후 15번째로, 7월 12일에 총 2통을 보냄)

일요일.

키다리 아저씨께,

재밌지 않나요? 어제 오후부터 제가 기어이 글을 쓰기 시작했걸랑요~♥

어쨌든 뽑은 제목은, 『키다리 아저씨께』 예요, 그런 다음 제가 저녁식사에 먹을 블루베리를 따기로 약속했던 게 문득 생각나, 테이블 위에 원고지를 놓아 둔 채로 나갔다 지금 돌아와 보니 에게 원고지 뭉치 중간에 뭔가가 앉

아 있는 게 보이지 뭐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래요, 진짜 ‘장님 거미’(=장님거미=키다리아저씨. 이 두 단어는 철자가 같음)가 앓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클릭시 주의 바람. 거미 그림임→)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01.png> (검색
일자 : 2016-5-31)

그림제목(원문에 있는 그림제목임) : 키다리 아저씨 ‘표’(닭은) 거미 씨

그래서 제가 그 거미의 다리 한 짝을 아주 우아하게 집어 들어서 창문 밖에다 떨어뜨려 주었어요.

전 이 세상에 있는 장님거미(=키다리 아저씨와 철자가 같음)들 중 단 한 마리도 절대 다치게 할 생각이 없거든요.

장님거미만 보면 아저씨(키다리아저씨)가 생각나서요.

오늘 아침엔 스프링이 달린 농사용 ‘4륜 짐마차’를 끌어당기며 교회 중앙까지 몰아보았어요.

새하얀 ‘골조’(=구조물)로 된 교회던데 어찌나 아담하고 자그마하던지. 정면에 뽕족탑이 하나 있고요 ‘도리스’(=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이름. 남성적인 건축양식. 사진링크▶ <http://me2.do/xWcvF642>)식의 기둥이 세 개 있는 교회였어요.

아 도리스식이 아니라 ‘이오니아’(=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이름. 여성적인 건축양식. 사진링크▶ <http://me2.do/GVCB8xqw> , <http://me2.do/xCuN83qR>)식이었나 그랬던거 같아요... 아 아닌가 머릿속에서 막 헛갈려요. 헐~

뭐 좋긴 하지만 졸린 설교 탓에 모두들 꾸벅꾸벅 졸면서 ㅋㅋ 종려 잎으로 된 부채들을 팔랑팔랑~♥, 성직자(=목사. 소설 속 여주인공의 종교가 가톨릭임)님의 목소리만 자그마하게 들리고 밖에 있던 나무들에서 매미들이 맴맴 울더라고요.

성가(=찬송가) 부르러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저도 졸았지 뭐예요. :)

아, 설교를 듣지 못한 걸 어찌나 후회했던지.ㅠ_ㅠ

성가를 졸면서 연주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겠지 뭐예요.

이렇게요.

오라, 오락과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즐거움에 귀의하라.

그렇지 않음, 친구여, 영원히

지○ 불에 떨어지리.

그래도 하나 알게 된 게 있다면, 샘플 부부와는 종교를 논하는 게 신중치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넘 엄격한 청교도(=엄격함)식 ○○님을 믿고 계신 거 같았어요, 좁고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고 야비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고집불통이신 분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종교를 물려받지 못한 제가 어떻게 보면 하늘에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바라는 대로 그 분을 그릴 수 있잖아요.

전 일단 그 분이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잘 용서해주시고 이해심이 넓은 분이셨음 좋겠어요… 앗 참! 유머 감각도 좀 있으셨음 좋겠구요ㅋㅋ (아, 16장 #9에서 잘못 말했네요, 여주인공은 아직 종교가 없습니다. 쏘리~)

다만 전 샘플 부부를 보자마자 좋아졌는데요, 그 분들이 이론 이상으로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믿는 하느님보다도 더 좋게 행동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분들께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넘 당황하시는 거예요. 헐~TT 아마 그분들은 제가 말씨가 사납다고 생각하셨겠죠… 여하튼 전 그분들께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저훤(여주인공과 샘플 부부) 대화에서 신학 얘긴 쪽 빼고 있어요.ㅋㅋ

지금은 일요일 오후예요.

‘아마새’(성경에 나오는 이름임. 이름 뜻은 ‘무거운 짐진 자’임)라는 고용인

이 있는데요.(샘플부부가 고용한 사람이란 뜻임)

그는 분홍색 리본을 메고 다소 밝은 노란색 양가죽 장갑을 낀 채 피부가 시뻘게지도록 면도를 하고는, ‘캐리’, 캐리(여자이름임)는 가사도우미 아가씨예요,와 함께 막 떠났답니다.

캐리는 테두리에 붉은 장미를 단 큰 모자와 파란색 ‘모슬린’(=무명) 드레스를 입고서 머리카락들을 최대한 둘둘 말아 올렸어요.

아마새는 아침 온 종일을 마차 세차하는 데 다 보냈고요, 그리고 캐리는 교회 안 가고 차라리 집에 머물며 표면상으로는 만찬(식사)준비를 했다지만 ㅋㅋ 실은 캐리도 아침 온 종일 자신의 모슬린(=무명) 드레스를 다림질 하느라 바빴데요. :)

2분 있다가 이 편지를 마치면 제가 다락방에서 발견한 책을 마음 가다듬고서 마저 읽어볼 참이에요.

책엔 『발자국』이란 제목이 붙여있어요, 책 앞 장엔 재미난 소년의 기어가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지 뭐예요.

<저비스 펜들턴(줄리아의 막내삼촌. 펜들턴은 뉴욕의 최고 가문들 중 하나) 거.

이 책이 돌아다니는 걸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이 대략 11살 때쯤 심하게 앓은 적이 있는 데 그때 여기서 여름을 보냈데요.

아마 이 책 『발자국』도 그때 두고 간 걸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읽은 흔적이 있는 게 책에 손때가 종종 묻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ㅜㅜ 깨끗이 좀 읽지.

그리고 다락방 한쪽 구석에 물레방아와 풍차 그리고 활과 화살들이 몇 개 놓여 있더라고요.

샘플 아주머니께서 어찌나 저비스 도련님에 대해 끊임없이 사랑을 해대시는지 전 그가 여기 지금 살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을 정도예요.T.T… 비단 모자와 지팡이를 든 성장한 어른이 아니라, 다정하고 흠투성이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서 야단법석을 떨며 계단을 우당탕 밟고 올라가고 ‘방충망 문’ (모기 안 들어오게 방충망 설치한 문)을 열어놓고 다니며 항상 쿠키를 더 달라고 조르는 그런 꼬마 소년요.

물론 그런 귀여운 애라면 제가 샘플 아주머니였더라도 쿠키를 더 주었을 거지만요!

도련님은 모험을 좋아하는 작은 영혼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감하고 정직했을 거예요.

다만 펜들턴 가문 출신이란 것이 좀 유감이긴 해요. 앙 TT(여주인공은 부자인 줄리아를 싫어하는데 줄리아가 펜들턴 가문출신인 걸 자랑해서임. 펜들턴은 뉴욕 최고의 가문들 중 하나)

물론 그 사실 때문에 도련님의 좋은 점들이 묻히는 건 아니지만요.

내일 ‘귀리’(벼와 비슷하게 생김. 사진링크 ► <http://me2.do/xm86yGfK>) ‘타작’(줄기에서 낱알을 떨어뜨려 거두는 것)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증기기관차도 오고 있고요 일꾼도 추가적으로 세 명 더 고용했어요.

아, 그리고 ‘귀염둥이’ 있잖아요, 뿔이 하나 달린 ‘점박이 소’요, ‘레스비아’의 ‘엄마 소’ 말이에요, 그 소가 끄찍한 일을 경험했어요.

귀염둥이(소 이름)가 금요일 저녁에 과수원에 들어갔다 그만 나무 아래에 놓여 있던 사과들을 먹었는데요 어찌나 먹어댔는지 머리가 취할 정도로까지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틀 동안 귀염둥이가 완전 술에 취해 헤롱 헤롱 거렸어요!ㅠ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다 사실입니다.

소가 취할 정도로까지 사과를 먹었던 말 어디 가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무슨 망신살인지 예구.

선생님,

전 남을래요,

당신의 애정 깊은 고아로,

주디(별명) 애벗(성씨)이.

추신.

(저비스 도련님이 어릴 적에 즐겨 읽었다는 책인 『발자국』 얘기임→) 1장엔 인디언들이 나오고요, 2장엔 말을 탄 노상강도들이 나와요. 깜짝 놀라 숨이 멎었을 정도예요. 그럼 3장엔 뭐가 나올까요? “레드호크(=붉은 매. 말을 탄 노상강도)는 (총을 맞고) 공중으로 6미터를 솟아올라 십중팔구 웨지고(=죽고) 말았다.”라고 나오네요. 완전 얼음~ 책표지를 넘기자마자 떡하니 이런 그림과 문구가 나오지 뭐예요. 주디(여주인공이름)와 저비스(도련님 이름)가 만나면 재밌을 거 같지 않나요?

(16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7월 12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1번째 편지 끝)

(입학 후 15번째로, 7월 12일에 총 2통을 보냄)

17장. 키다리 아저씨

(9월 15일에 총 1통 보냄)

(18세. 대학교1학년 '2'학기 여름방학 중)

(입학 후 16번째로, 9월 15일에 총 1통을 보냄)

9월 15일.

아빠께,

상점 구석에 있던 엄청 큰 저울로 어제 제 몸무게를 재 봤걸랑요.

세상에, 4킬로그램이 찼지 뭐예요!

건강한 휴가지를 찾으신다면 <록(=늘어뜨린) 윌로우(=버드나무. 농장이름)>를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당신의 한결이(한결같은),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07.png> (검색

일자 : 2016-6-2)

그림제목(원문에 있는 그림제목임) : 홀쭉이였다가 똥뎡이가 된 주디(여주인공의 애칭)

(17장 끝)

(18세. 대학교1학년. 9월 15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16번째로, 9월 15일에 총 1통을 보냄)

18장. 키다리 아저씨

(9월 25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1'학기)(미국은 9월이 1학기 시작임. 우리와 다름)

(입학 후 17번째로, 9월 25일에 총 1통을 보냄)

9월 25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 좀 보세요... 어엿한 2학년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도착했고요, 아 ㅏㅏ 눈물을 머금고 <록 월로우> (늘어뜨린 버드나무란 뜻임. 농장이름)를 떠나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캠퍼스(대학교)를 보니 정겹지 뭐예요. :)

친근한 장소에 돌아온 정겨운 느낌이랄까 뭐 그래요.ㅋㅋ

대학이 집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리고 마음 같아선 사실 세

제가 집 같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게 옳겠네요. ㅋㅋ 뭘 소리지 ^^

마치 소속된 느낌이랄까, 제 실수를 웬만해선 눈감아줄 거 같고 어딘가로 옮겨다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전혀 이해 못하시겠죠.

평의원(=이사. 고아원의 이사) 같이 중요하신 분이 자선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할 순 없으실 거예요.

그럼 자, 아빠, 잘 들어봐요.

제가 이번 학기부터 누구랑 방을 같이 쓰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샬리 맥브라이드’(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9세. 대학교2학년)와 ‘줄리아 러틀리지 펜들턴’(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19세. 대학교2학년)예요.

정말이에요.

우린 공부방 하나와 작은 침실 세 개가 딸린 방을 배정받았어요... 어때요!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09.png> (검색

일자 : 2016-6-2)

그림제목(원문에 있는 그림제목임) : 평면도

(왼쪽 위의 침실) 샬리 (가운데 공간) 공부방 (오른쪽 침실) 줄리아

(왼쪽 아래 침실) 주디(여주인공) (오른쪽 아래 통로) 복도

샬리와 전 저번 봄에 2학년부턴 방을 같이 쓰자고 굳게 결심했거든요. 그리고 줄리아(여주인공은 줄리아가 너무 부자라 별로 안 좋아함. 하지만 줄리아는 여주인공을 좋아함)는 샬리와 계속 방을 같이 쓰고 싶어해서... 왜일까요, 제가 보기에 샬리와 줄리아는 전혀 닮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당체 펜들턴(뉴욕 최고의 가문들 중 하나. 줄리아의 성씨) 가문출신들이 보수적이고 변화를 탐탁지 않게, 이 말 예쁘죠^^, 생각해서 말이죠.

어쨌든, 이리 되었어요.

이리하여 〈존 그리어 고아원〉 출신의 비천한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의 실명. 제루샤=이름. 에벗=성씨) 양이 귀천이 고우신 펜들턴 가문의 아가씨와 한 방을 쓰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민주적인 나라인가요.ㅋㅋ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에. 19세. 대학교2학년)가 학년대표에 출마했어요. 선거구호가 먹혀들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음, 샬리

가 무난히 선출될 거 같아요.

너무 술수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요... 헐 저희가 얼마나 정치적인 데요! 헤
헤

오, 있잖아요, 아빠, 저희 여성들이 권리(미국여성의 투표권은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이루어짐. 『키다리 아저씨』는 1912년에 출간된 소설임)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려 들면, 남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고수하려고 들잖아요.

어쨌든 학년대표선거는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희 학년은 모두 핏볼 행렬을 가질 예정이에요.

누가 학년대표가 되던지 간에요. :)

화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넘 낯선 과목이에요.

전엔 결코 이 비슷한 걸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원자니 분자니 완전 멘붕T.T, 그런데 원자나 분자가 물질을 구성한다니 더 멘붕II.II, 하지만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다음 달에 원자와 분자에 관해 집중 탐구해보는 발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완전 멘붕의 연속 II_II

그리고 토론과 논리 수업도 또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사(역사)랑,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연극들이랑,

프랑스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여주인공이 소설 속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프랑스어는 초보적인 수준임. 문장 하나를 프랑스어로 완전히 다 못쓰는 수준임)

이 과목들만 해도 배우는데 수년이 더 걸릴 것을 아 T.T 아마 강의 다 끝날 때쯤엔 제가 엄청 지적인 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에구~

프랑스어 수업보단 차라리 경제학 강의를 들을 걸 그랬어요, 하지만 경제

학도 막막하긴 매한가지 ㅜㅜ 하지만 지금 프랑스어를 안 들어두면 두고두고 발목이 잡혀 졸업 못할 지도 몰라서요... 사실이 그래요, ㅠㅜ

지난 6월 시험 때는 그럭저럭 요행이 통해서 통과할 수 있었지만...

사실 제 고교 프랑스어 성적도 썩 좋았던 아니란 말을 하려고 했어요. ㅜㅜ
ㅜ

고교수업시간에 우리말(영어)만큼이나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재잘거리는 어떤 한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 해외로 나갔다 ‘수녀원 부속학교’를 3년 가량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 수업시간에 나머지 저희들에 비해 얼마나 빛을 발휘했을지 상상이 가능하시죠... 애한테는 불규칙 동사들도 완전 낯이었을 거예요. ㅜㅜ

아 나도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적에 절 ‘기아 양육원’(고아원)에 놓고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프랑스 수녀원에다 내다버리고 가셨더라면...

아, 아니 아니예요, 방금 한 말 취소예요!

그랬다면 전 아저씨를 절대 못 만났을 테니까 방금 제가 한 말 취소할래요.

전 프랑스 배우는 것보다 아저씨를 알게 된 게 더 좋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아빠. 지금 ‘해리엣 마틴’(여학생이름. 이후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에게 부탁할 게 생겼거든요, 이 꼬일 때로 꼬인 화학적 상황에 관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거 같아요, 뭐 그러다 불쑥 대화가 ‘차기 학년 회장’에 관한 얘기로 빠질 테지만요. ㄱㄱ

정치에 막 뛰어들든 당신의,

제이(원문→J.) 에벳(여주인공의 실명은 ‘제루샤 에벳’임)이.

(18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9월 25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17번째로, 9월 25일에 총 1통을 보냄)

19장. 키다리 아저씨

(10월 17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1'학기)

(입학 후 18번째로, 10월 17일에 총 1통을 보냄)

10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실내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에 물 대신 레몬 젤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 가정해보세요, 그래도 사람이 그럭저럭 떠서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뛰어들자마자 가라앉을까요?

디저트로 레몬 젤리가 나와서 이 질문이 화제가 된 거예요.

30분 가량을 친구들이랑 밥 먹다 말고 열띤 토론을 벌였고 정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9세. 대학교2학년)는 그래도 수영할 수 있을 거래요, 하지만 전 완존 최고의 세계 수영 선수가 뛰어들지라도 가라앉고 말 거라 확신해요.

레몬 젤리에 빠지는 거 나름 재밌을 거 같지 않나요?

밥 먹다 말고 열을 낸 질문이 두 개 더 있어요.

첫 번째 질문. 8각형 집에 있는 방의 모양은? 어떤 여자애들은 그게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엔 방의 모양은 아마도 파이(초코파이~♥) 한 조각 같지 않을까 해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두 번째 질문. 거울로 만들어진 아주 거대하고 ‘속이 텅빈 구(=원형)’가 하나 있고, 아저씨가 그 안에 앉아 있다 가정해 봐요. 그럼 아저씨의 얼굴이 반사되는 게 멈추고 아저씨의 등을 비추기 시작하는 건 어느 쪽에 있는 거울일까요? 이 질문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되는 문제예요. 저희들이 밥 먹다 말고 벌인 철학적 사색 나름 귀엽지 않나요ㅋㅋ!

학년 회장 선거 결과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3주 전에 있었고요, 그동안 넘 바빠서, 3주가 중국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말았어요.TT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9세. 대학교2학년)가 당선되었어요, 우리들 모두 그날 햇불 퍼레이드(행렬)을 벌였고요, 걸으면서 이렇게 명료한 구호를 외쳐댔답니다.

“맥브라이드(=샬리의 성씨. 2학년회장) 영원하라~♥”

라고요.

이번 퍼레이드(행렬)엔 14개의 악기들, 그러니까 3개의 하모니카와 11개의 악기들이 하나의 밴드를 이루어 행진했어요.

그 바람에 저희 258명의 2학년생들 중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특히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에. 19세. 대학교2학년)와 제가 이번 퍼레이드(행렬)의 후광을 많이 받았어요.

왜긴요? ㅋㅋ 학년 회장과 같은 방에 살고 있다는 ‘뺨’(뒷배경) 때문이죠.
ㅎㅎ

(인사말 모두 프랑스로 적혀 있음→) 잘 자요, 아빠.

칭찬받고,

우러러 받는,

저는,

당신의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예요.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14.png> (검색

일자 : 2016-6-3)

그림제목(원문에 있는 그림제목임)(영어로 적혀 있음→) : 맥브라이드(=샐리의 성씨. 2학년회장) 영원하라~♥

(19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10월 17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18번째로, 10월 17일에 총 1통을 보냄)

20장. 키다리 아저씨

(11월 12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1'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1'학기)

(입학 후 19번째로, 11월 12일에 총 2통을 보냄)

11월 12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제 새내기(1학년. 여주인공은 현재 2학년임)들과 농구시합을 했어요.

물론 저희(2학년)들이 이겼죠ㅋㅋ... 하지만 아ㅏㅏ, 한 살이라도 어린 친구들과 시합을 벌이다보니! 온 몸 여기저기에 시퍼런 멍이...ㅏㅏ 그 바람에 거의 1주일 동안은 '하마메리스'(=액체 파스^^)를 바르고 압박 붕대까지 하

고서 침대에 머물다시피 했어요.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9세. 대학교 ‘2학년 학년회장’)가 저를 초대했어요, 저랑 크리스마스 휴가를 같이 보내자네요^^

샬리는 매사추세츠(미국 동북부의 주)에 있는 ‘우스터’(도시이름. 아래의 네이버지도 참조)에 산대요. 녀 친절하지 않나요? 전 너무 가고 싶어요. 살아오면서 가정집을 방문해본 건 <록 윌로우> (농장이름)가 전부였는데, 하지만 샘플 부부(농장에 사시는 분)는 어른이시고 연로하시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TT

▼ 네이버지도 (검색어 : 매사추세츠 우스터)(샬리네 집)

[큰 지도]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2.2625932,-71.8022934&zoom=4&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2.2625932,-71.8022934&client=gme-nhncorp&signature=5-bseUOKS_wRM3YLo2boDlfiES0=&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6.1 (검색일자

: 2016-6-3)

[작은 지도]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2.2625932,-71.8022934&zoom=13&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2.2625932,-71.8022934&client=gme-nhncorp&signature=jK-gLG7j17FZCkS1hCQWTCU9kS8=&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6.1 (검색일자

: 2016-6-3)

하지만 ‘맥브라이드’(샬리의 성씨) 네는 아이들이 많고요, 여하튼 두 명 내

지는 세 명의 아이요,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페르시아고양이’(사
진링크▶ <http://me2.do/IG3CbGNs>)도 한 마리 있데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에요!

짐을 꾸려 여행가는 게, 여기(기숙사)에 남는 거보단 더 재밌어요.

넌넌 기대되요~

7교시엔... 리허설(연극 무대연습)하러 가야해요.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연극에 서게 되었거든요.

벨벳(=부드럽고 솜털이 있는 고급원단) 튜닉(고대 그리스의 옷. 소크라테스가 입은 옷)을 입고 노란 곱슬머리 가발을 쓰고서 타워에 갇힌 왕자님 역할을 해야하거든요.

흥, 내가 뭐 종달새인감?

당신의 종달새는 되겠네요ㅋㅋ,

제이. 에이.(‘제’루샤 ‘에’벗)

(19세. 대학교2학년. 11월 12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1번째 편지 끝)

(11월 12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2’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1’학기)

(입학 후 19번째로, 11월 12일에 총 2통을 보냄)

토요일.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시죠?

여기 ‘리어노라 펜턴’(친구이름.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 리어노라=이름. 펜턴=성씨)이 찍은 사진 3장 다 동봉해 보내드립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애가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9세. 대학교 ‘2학년 학년회장’)예요, 그리고 공중에 콧대를 높이 치켜들고 있는 키 큰 애가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19세. 대학교2학년)고요, 그리고 얼굴 가득 머릿결을 흘날리고 있는 작은 애가 ‘주디’(여주인공의 별명)예요... 사실은 이 사진 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데 그만 햇볕이 눈에 들어오는 바람에~♥.

(20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11월 12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2번째 편지 끝)

(입학 후 19번째로, 11월 12일에 총 2통을 보냄)

21장. 키다리 아저씨

(12월 31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1’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1’학기)

(입학 후 20번째로, 12월 31일에 총 2통을 보냄)

매사추세츠(미국 동북부)의 우스터(도시이름. 친구이자 ‘2학년 학생회장’인

샬리의 집임)에 있는,

“돌문(원문→스톤 게이트)에서,”

12월 31일에.

▼ 네이버지도 (검색어 : 매사추세츠 우스터)(샬리네 집)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2.2625932,-71.8022934&zoom=7&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2.2625932,-71.8022934>

[1.8022934&client=gme-nhncorp&signature=aQ11URmLrjK0n7HXH94wqMjFKAk=&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6.1](https://www.nhncorp.com/signature=aQ11URmLrjK0n7HXH94wqMjFKAk=&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6.1)

(검색일자 : 2016-6-11)

키다리 아저씨께,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수표에 대해 아저씨께 별도로 감사편지를 드릴 참이었어요.

하지만 ‘맥브라이드’(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9세. 대학교 ‘2학년 학년회장’) 가족들과의 생활이 여지간이 재밌어야 말이지요.

그래서 잠시 책상에 앉아 찝막한 편지를 쓸 2분의 시간도 낼 수 없었어요.

새 드레스를 한 벌 샀어요... 필요해서라기 보단 제가 원해서예요.

올해 제 크리스마스 선물은 키다리 아저씨에게서 받았어요. 꼭 제 가족이 보낸 사랑 같았어요.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9세. 대학교 ‘2학년 학년회장’) 네를 방문한 것이 제 생애 최고로 아름다운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샬리는 크고 ‘고풍스러운’(오래됐지만 멋진) 벽돌 집에 살고 있어요.

가로에서 조금 뒤로 물러서 위치해 있는데 깔끔한 흰색 장식들로 다듬은 집이에요... 제가 〈존 그리어 고아원〉에 살 때 꿈꾸지 마지않던 바로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제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게다가 여기서 겨울방학을 보내

고 있잖아요! 짱~♥

이곳의 모든 것이 넘 편하고 안락하고 집 같아요.

예쁜 가구며 카펫이며 커튼들에 취해 이 방에서 저 방까지 걸어가 보곤 해요.

여긴 아이들이 자라기에 참 완벽한 집이에요.

숨바꼭질을 할 수 있는 그늘진 모퉁이도 많고요, 팝콘을 튀길 수 있는 열린 벽난로들이며, 비오는 날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다락방이며, 꼭 쥐고 돌 수 있는 계단의 난간동자들이며, 엄청 큰 화사한 부엌이며, 13년 동안이나 가족과 함께 살며 요리를 해주고 있는 성격 좋고 뚱뚱하고 웃음기 많은 요리사 분 그리고 이 분은 빵 반죽을 한 덩어리 내주시며 아이들보고 직접 구워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게 있는 그런 집의 풍경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일 게실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9세. 대학교 ‘2학년 학년회장’)에겐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가 계세요.

샬리 밑으로는 가장 귀여울 때인 3살짜리 곱슬머리 여자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상) 중간에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애는 절대 발을 안 씻어요ㅋㅋ. 그리고 ‘지미’라는 이름의 키 크고 잘생긴 오빠가 한 명 있는데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 3학년생이에요.

▼ 네이버지도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교는 한 번 더 나옵니다. 학교 위치를 아래의 지도

를 통해 간단하게라도 알아놓으시면 소설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검색어 : 프린스턴 대학교 (위치만 대충 확인바랍니다~)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0.3439888,-74.6514481&zoom=4&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0.3439888,-74.6514481&client=gme-nhncorp&signature=vah8IZS845q5W4kRP0e6sX0nNFE=&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6.1 (검색일자 : 2016-6-11)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0.3439888,-74.6514481&zoom=9&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0.3439888,-74.6514481&client=gme-nhncorp&signature=j13-fvWadGldxvB7EGqNGyEjOiU=&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6.1 (검색일자 : 2016-6-11)

식탁에선 더 재미있답니다... 모두들 동시에 웃고 농담들을 던지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선 우아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입 안 가득 음식을 물고서 애길 해도 아무도 꺼려하지 않아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아저씨(키다리 아저씨)께서도 식사예절을 훌훌 털어버리면 구원받는 느낌이 들 겐요.

그런 류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만 이분들께 아저씨 애긴 꺼내지 못 했어요. 그럴 수 없었거든요.

맥브라이드 씨(샬리 아빠)는 공장을 하나 소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이브에 맥브라이드 씨가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해 트리를 하나 구해요

셨어요.

트리클 상록수 가지와 호랑가시나무가지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서 화물칸에 두었는데요, ‘지미 맥브라이드’(샬리의 큰오빠)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했고요, 샬리(친구이름)와 제가 지미(샬리의 큰오빠)를 도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었어요. :)

이럴 어찌나요, 아빠(키다리 아저씨), 좀 생뚱맞은 소리지만!

〈존 그리어 고아원〉(고아원이름)의 평의원(=이사)분만큼이나 저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귀여운 꼬마소년이 부끄러워하기에 제가 뽀뽀도 한 번 해주었는걸요... 하지만 어떤 아이의 머리를 “톡” 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이틀 후엔, ‘저’를 환영하는 의미의 무도회(댄스파티)도 열렸는걸요.

그건 제가 참석한 첫 번째 진짜 무도회였어요... 대학에서 여자애들끼리 춤추는 무도회는 헤아리지 마시고요.

바로 그날, 아저씨의 크리스마스 선물인~정말 감사해요♥~ 흰색 새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긴 흰색 장갑과 광택 고운 구두를 신고 나갔답니다.

제가 ‘지미 맥브라이드’(샬리의 큰오빠)를 리드하며 ‘코티용’(활발한 춤.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OGgdGBMLFxE>)을 추는 모습을 리벳 부인(고아원 원장님)께서 볼 수 없었다는 것만 빼면, 정말이지 단점이 하나도 없는 완전 그 자체인 완벽한 행복이었어요.

그러니 아저씨께서 다음번에 ㄱ.ㅇ.ㅇ.(=고아원)을 방문하실 때 꼭 리벳 원장님께도 말해주세요.

당신의 한결같은,
주디(별명) 에벗(성씨)이.

추신.

끔찍이 실망하셨죠, 아빠, 이제 작가로 성공하는 건 요원한(=먼) 걸로 판
명 났나요, 하지만 저도 그냥 평범한 여자인걸요?

(19세. 대학교2학년. 12월 31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1번째 편지 끝)

(12월 31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2'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1'학기)

(입학 후 20번째로, 12월 31일에 총 2통을 보냄)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아빠께,

저흰 오늘 시내에까지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멘붕! 어찌나 비가 퍼
붓던지T.T.

전 비보단 눈이 오는 겨울이 더 좋은데.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에. 19세. 대학교2학년) 네 막내삼촌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호감 가는 분이라고 말씀드린 분요, 그 분을 줄리아가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분이 오늘 초콜릿이 든 2킬로그램짜리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줄리아와 한방을 쓴다는 게 이점도 많네요.ㅋㅋ^^

저희들이 실없는 농담을 던졌고요, 그 분은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다음 기차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사실 막내 삼촌을 기숙사에 들이는 데 엄청 애 먹었어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오시면 충분히 즐기다 가실 수 있겠지만, 삼촌이라면 그것도 젊은 분이라면 한 단계 엄격해져요, 다음으로 오빠나 남동생 또는 사촌 남자애라면 기숙사 입장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내 삼촌 일로 줄리아가 기숙사 직원 분께 거의 울다시피 하며 빌어야했어요 그런 다음에야 그 직원 분이 허가증을 발급해주었거든요.

아저씨, 법 많이 아세요?

학생감(학과장)님께서 자신이 기숙사 입장을 허락한 남성이 이토록 젊고 현성한 저비스(줄리아의 막내삼촌) 삼촌이란 걸 알았다면 저희들이랑 같이 차를 마실 수 있게 허락하셨을까요?ㅋㅋ

뭐 어쨌든, 저희 ‘흑빵’(원문→브라운 브레드)에 ‘스위스 치즈’(단단하고 구멍이 많이 난 치즈)를 껴들인 샌드위치를 함께 먹었습니다.

저비스 삼촌이 샌드위치 만드는 걸 도와주었고요 그런 다음 넷이서 맛있게 먹었죠.

지난 여름방학 때 제가 ‘록’(=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록 월로우’가 농장이름임)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를 삼촌께 했거든요ㅋㅋ 샘플 부부(농장에 사는 부부)과 말들이며 소들에 관한 아름다운 잡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

졌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비스 삼촌이 알고 있던 말들은 모두 죽었더라고요, ‘그로버’(남자이름임. 여기선 가축이름)만 제외하고요, 그로버는 삼촌이 마지막으로 농장을 방문했을 때 4살 쯤 되는 아기 망아지였는데요… 그리고 불쌍한 그로버는 지금은 농장을 걸으며 간신히 풀을 뜯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아주 많아요.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거든요.

삼촌(저비스 도련님)이 물더라고요, 그분들(농장에 사시는 샘플 부부)이 여전히 도넛(=빵)들을 파란색 접시에 담아, 식료품저장실 바닥 선반 위에 있는 노란색 단지에 보관하시는지? 룰요…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밤이면 농장 바위 뿌리 아래에 있는 구멍에 ‘그라운드호그’(다람쥐 같이 생긴 귀여운 짐승. 사진링크▶ <http://me2.do/GKdjQVc0>)들이 나타나는지를 삼촌이 물었어요… 그라운드호그도 여전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아마새’(농장 남자직원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임. 이름 뜻은 ‘무거운 짐 진 자’임)가 이번 여름에 거기서 굶고 큰 회색 그라운드호그 한 마리를 잡았거든요.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 말로는 아마새(농장 남자직원이름)가 잡은 그 애가, 저비스 도련님이 어릴 적에 잡은 애의 자그마치 25대 손자쯤 될 거래요. :) 헐~

제가 그분 면전(얼굴)에다 대고 “저비스 도련님”이라고 불렀는데도, 그 분은 꺼리는 거 같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줄리아(줄리아의 막내 삼촌이 ‘저비스’임) 말론, 삼촌이 저렇게 불임성 있게 행동하는 걸 일찍이 자신은 본 적이 없데요.

자기 막내삼촌은 보통 때는 다가가기가 쉽지 않데요.

하긴 뭐 사교성이 없는 줄리아가 어지간하겠어요.

사람을 대하는 데도 나름 요령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내가 남에게 호감을 표시하면 남들도 자길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그 반대라면 안 보나 마나고요.^

이건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요. :)

저희 지금 ‘마리 바시키르트세프’(사진링크▶ <http://me2.do/5IKPNU0D> . 러시아 여성이름. 일기 쓰는 작가. 1858~1884년)의 여행기를 다 같이 읽어 보고 있었어요.

이 책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난 밤 난 (시계의) 울림 속에 짐승의 울음소리 비슷한 걸 발견하곤 절망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식당 시계를 바다에 내던지도록 만들고 말았다.”

전 정말 천재가 못 되나 봐요. 시계를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가지고만 다녔지... 에구.

이런 이런!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봐요. 비가 어찌나 퍼붓던 지요. 아마 이 상태로 내일까지 비가 온다면 예배 볼 땐 수영을 할 수 있을 지도 몰라요.ㅋㅋ

한결같은 당신의,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24b.png> (검

색일자 : 2016-6-12)

그림제목(원문에 있는 그림제목임) : 우산 위로 퍼붓는 빗방울들

(21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12월 31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2번째 편지 끝)

(입학 후 20번째로, 12월 31일에 총 2통을 보냄)

22장. 키다리 아저씨

(1월 20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1’학기)

(입학 후 21번째로, 1월 20일에 총 1통을 보냄)

1월 20일.

키다리 아저씨께,

혹시 당신에게 아주 어릴 적에 도둑맞은 예쁜 딸아이가 한 명 있다면?

그게 바로 저(=딸)라면!

저희 지금 소설 구상 중이에요. 어때요, 소설의 결말로 이게 적당한가요,

아닌가요?

소설의 긴장요소와 로맨스의... 본질을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 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예구 T.T

물론 가능성이야 많지만.

아마 저는 미국인이 아닌가 봐요. 미국에 살지만 본토박이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님 저는 고대 로마인의 직통 후손인지도 몰라요, 아님 바이킹(해적)의 딸래미든가, 아님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의 아이든가 그래서 원래 시베리아 감옥에서 지내는 게 더 어울렸을 아이인지도 몰라요, 아님 집시든가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도 전(저는) 집시일지도 몰라요. 방랑벽(여행벽)도 있고, 비록 그런 성향을 키울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이지.

제 고아원 기록부에 있던 오점(수치스러운 점) 하나 아세요... 제가 쿠키들을 훔쳤다고 체벌을 받고 고아원에서 도망친 거요?

이 얘길 듣고 어느 평의원(=이사) 분이 좋아라하시겠어요.

하지만 맹세코, 아빠, 아빠도 그리 생각하세요?

칼을 날카롭게 갈라며 배고픈 9살짜리 여자애를 식료품저장실에 넣어두면, 그럼 그 여자애 팔꿈치에 있던 쿠키가 담긴 항아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애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자리를 뜰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아빠가 별안간 문을 열었을 때, 그 여자애의 입에 쿠키 부스러기가 묻어 있으리라 어찌 생각을 못하세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자그마한 애의 팔을 낚아채 따귀를 때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벌을 서고 있게 하고 온 아이들에게 저 애는 도둑질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해대면, 어찌 그 작은 애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세요?

6킬로미터는 무작정 달렸을 거예요.

그러다 붙잡혀 다시 끌려갔죠.

1주일 동안 매일 묶여 있었어요, 말 안 듣는 강아지마냥, 휴식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도 전 뒤뜰 말뚝에 매어 있어야했어요.

오, 이런!

지금 막 ‘채플’(=예배) 종이 울렸어요.

채플 마치고 제가 위원회 면담이 잡혀 있거든요.

이번엔 엄청 재미난 얘기들로 편지를 쓸 작정이었는데 미안해요.

(독일어로→) 안녕히 계세요

(프랑스어→)사랑하는 (영어→)아빠

(라틴어=고대 로마 언어→) 주님이 당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영어로→) 주디(여주인공의 별명).

(다시 영어로 계속→) 추신.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제가 중국인(외국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22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1월 20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21번째로, 1월 20일에 총 1통을 보냄)

23장. 키다리 아저씨

(2월 4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1'학기)

(입학 후 22번째로, 2월 4일에 총 1통을 보냄)

2월 4일.

키다리 아저씨께,

‘지미 맥브라이드’(샬리의 큰 오빠)가 프린스턴(대학교이름) 교기(이런 식으로 생겼음 ► <http://me2.do/GeMfj7WK>)를 제게 보내왔어요. 어찌나 큰지 기숙사 방 한쪽 편을 모두 채우고도 남아요. :)

저와 보낸 시간이 오빠에게 대단히 소중하대요.ㅎ

하지만 도대체 저토록 커다란 교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멘붕이네요.*_* 넘 커요.

그래서인지 샬리와 줄리아도 저보고 포기하라네요.ㅋㅋ

그렇게 해서 올해 저희 방은 붉은 색으로 치장(교기가 붉은 색임)하게 되었어요.

오렌지색과 검정색을 약간 추가하면 나름 분위기 나요, 상상이 가세요.

하지만 나름 깔끔하고 부드럽고 두꺼워 버리긴 싫더라고요.

화장복(목욕 후에 입는 가운)으로 사용할까 했는데 그것도 부적당한 거 같아서요?

예전에 교기를 한 번 물에 담갔다가 쪼그라든 기억이 있어서요.

아 그리고 보니 늦게라도 제가 요즘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말씀드리려던 걸 깜빡했네요, 하긴 아저씨도 제 편지에서 요즘 제 강의 내용을 볼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지만요.ㅋㅋ

요즘 오로지 학업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다섯 과목을 듣자니 나름 어리둥절해서요. 예구 T.T

*이 부분에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과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 링크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29.png> (검색

일자 : 2016-6-13)

그림제목(원문에 있는 그림제목임) : 옥조를 차지한 일찍 일어난 새

(그림 위) 아침6시

(여자 옷에 적힌 글자 뜻) 케토(=CETO) 여신의(=IN) 힘(=PR)

(참고사항 : 케토는 그리스신화 속 여신 이름. 땅의 여신인 ‘가이아’와 바다의 신인 ‘폰투스’의 딸. 폰투스는 포세이돈이 바다를 차지하기 전에 바다의 신)(여자 옷에 적힌 글자는 또한 ‘프린스턴’에서 엔N을 뺀 것이기도 함. 여주 인공이 키다리아저씨에게 자신이 요즘 공부만 하고 있다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임. 케토 여신 사진 링크는 생략합니다. 관련 되서 같이 보이는 이미지들이 좀 잔인한 게 많아서...)

“장학금 수여여부는,”라며 화학 교수님이, “그 학생이 세부적인 항목까지 노력하는 성실함이 지녔느냐 입니다.”라며 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세부적인 것에서 눈을 떼지 안 돼,”라며 역사 교수님께서도, “대상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을 가져야 하네.”라고 말씀하시구요.

화학 교수님과 역사 교수님 사이에서 배의 뜻을 가지런히 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감 잡으셨겠죠.

그래도 역사 교수님의 말씀(“전체를 봐라”)이 더 좋은 방법 같아요.

만약 제가 ‘정복왕 윌리엄’(영국을 정복한 사람. 사진링크▶
<http://me2.do/xGaWw8v3> . 영국 정복 당시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이었음.
정복왕 윌리엄은 프랑스에서 계속 살다 영국으로 건너가 정복한 후 계속 프
랑스에서 살다가 프랑스에서 죽었음. 생애 1027~1087년)은 1492년(콜럼버
스의 아메리카 발견이 있었던 해)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왔고, 콜럼버
스(1451~1506년)의 아메리카 발견은 1100년 아니면 1066년(정복왕 윌리엄
이 영국을 정복한 해)에 있었다고 말한 다면 물론 가정 상 그렇게 제가 말한
다면 그건 제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세부사항을 간과한 것일 거예요.

그럼 역사 시간에 방심하고 태만한 것이고, 완전히 화학적 죽(공감대)이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뭘 소리...-_-;; 횡설수설~)

6교시 종이 울려요... 실험실로 가봐야 할 거 같아요, 산과 염 그리고 알
칼리에 대해 좀 조사해볼 게 있거든요.

ㅋㅋ 저 어제 화학시간에 제 앞치마에 이따만 한 접시만큼이나 큰 구멍을
내버렸어요. 태웠거든요.TT 에구 웃을 일이 아니네요. 염산이 묻어 그리 됐
는데.

이론대로라면 그 구멍이 강력한 암모니아와 함께 중화되었어야 하는데 왜
안 됐죠?

실험은 다음 주에 또 있어요, 흥 누가 겁낼 쇼냐?ㅋㅋ

당신의 한결이,
주디(여주인공의 별명)가.

(23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2월 4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22번째로, 2월 4일에 총 1통을 보냄)

24장. 키다리 아저씨

(3월 5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23번째로, 3월 5일에 총 1통을 보냄)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3월인데 강풍이 엄청 불어요. 하늘엔 온통 짙은 회색빛 구름이 지나가고
있고요.

까마귀들이 소나무에 앉아서 어찌나 울어대는지!

뉘이 나갈 정도로 신이 나 외쳐대는 소리 있잖아요. 딱 그래요.

바람을 맞으며 언덕을 거니는 거 보단 책과 보다 가까워지고 싶을 때죠.ㅋ
ㅋ

지난 토요일엔 질퍽질퍽한 시골길을 거닐며 거의 8킬로미터까지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한 사람이 종이를 흘리며 도망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추적해 가는 놀이)를 해봤어요.

술래는 여자에 3명과 30리터짜리 통에 담은 색종이 조각들이었고요, 저희들보다 30분 먼저 출발했어요. 당근 추격자들은 저희고요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저도 이 27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

중도에 8명이 추격을 포기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간 건 27명 중 19명뿐이었어요.

뒤를 밟다보니 언덕을 하나 넘었는데 그게 옥수수 밭이란 게 함정이죠. 헐~ 애네들 무슨 놀이를 이렇게 힘들게...T_T 그런데 그 옥수수 밭 다음이 바로 늪이라 저희 이 흠더미 저 흠더미로 살짝 살짝 건너뛰며 나아가야 했어요.

저희들 절반(1/2)은 밭목까지 다 젖었지만 말예요.

그러다 보니 길을 잃고 늪에서만 25분 정도를 허비했지 뭐예요.

그런 다음 약간의 나무들을 지나 언덕 위로 올라가니 농가의 헛간이 하나 나오지 않겠어요!

헛간의 문들은 죄다 잠겨 있고, 위로 높이 열린 아주 자그마한 창문이 있는 헛간이었어요.

이럼 반칙 아닌가요?

일단 저희는 그 헛간으로 들어가진 않고서 지붕 아래와 울타리 위에 살금 살금 훌쩍여져 있는 색종이 조각들을 집으며 헛간 주위를 돌았답니다.

술래들은 거기서 저희를 따돌릴 거라 생각했겠지만 어림 반 푼어치도 없

는 생각이예요.

기복(울퉁불퉁) 있는 늪지대에서 곧장 3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색종이 조각들도 듬성듬성 흩뿌려져 있어 쫓아오기가 몹시 힘들었어요.

이건 정말 반칙이란 말예요.

원래 술래들과 말을 나누길 색종이 조각들을 최소 2미터 간격 내로 뿌리기로 했는데 애네들은 거의 2미터 간격을 넘기면서까지 색종이 조각들을 뿌렸단 말예요.

결국, 2시간을 총총 걸음(빠른 걸음)으로 걷고 난 이후에야 저희 그 술래 ‘님’(원문엔 ‘님’자를 프랑스어로 적었음)들의 흔적을 ‘크리스탈 스프링’(도시 이름인 거 같음. 크리스탈=수정. 스프링=봄)에 있는 어느 부엌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거긴 여자애들이 치킨이나 와플을 먹으러 밥슬레이 경주하듯 몰려드는 농장이란 말예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 못된 세 명의 술래들을 침착하게 찾아냈고, 그 술래들은 저희는 신경도 안 쓰고 우유와 꿀 그리고 비스킷을 먹어대느라 정작 저희가 다가오는 것조차도 몰랐더랬죠.--

애네들 말로는 저희를 그때 그 헛간에서 따돌린 줄 알았대요. 문은 잠겼지만 열려 있는 헛간의 창문 때문에 우리가 그 헛간에만 매달릴 줄 알았다네요.

양쪽 편으로 나뉘서 서로 우리들이 이겼다고 우겼어요.

제 생각엔 저희가 이긴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저희들이 술래들이 캠퍼스(대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술래를 잡았잖아요.

어쨌든, 저희 19명은 탁자에 메뚜기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선 벌꿀 음료수를 사라며 왁자지껄 아우성들을 쳤죠.

부질없는 농성이 아니었던 게, 크리스탈 스프링 부인에게서, 크리스탈 스프링이 알고 보니 그녀의 애칭(=별명)이었더라고요, 원래는 ‘존슨’ 가문 출신이래요, 여하튼 크리스탈 스프링 부인에게서 딸기 잼이 든 향아리 하나와, 단풍나무시럽이 든 캔 하나를 지난주에 갓 만든 거라며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흑빵(브라운 브레드)도 세 개 내주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저녁식사 시간인 6시를 30분 넘길 때까지 대학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옷도 가라 입지 않고 기숙사 식당으로 직행해선 이 날 처음 식사를 하는 것처럼 먹어치웠답니다!

결국 저희 모두는 저녁 채플(=예배)도 빼먹었죠, 저희들의 부츠(신발) 상태가 도저히 봐줄만하지가 못했거든요.

그리고 보니 시험 애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네요.

저 가뿐히 모두 다 통과했어요~♥

지금이야 비밀이지만 절대 1학년 때처럼 재시험 보기 싫거든요 T0T.

제 때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비록 1학년 때 짐승 같은 라틴어 산문과 기하학(=수학) 과목이 있었지만. 내가 못살아...ㅠ.ㅠ

뭐 전 신경 쓰지 않아요.

“아저씨가 군불(=돈) 때주실 거죠?”

이 인용문은 전에 국어(영어) 강의시간에 읽은 대목이에요.

고전(=책)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햄릿』(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은 덴마크 왕자. 비극 마지막에 주요인물들이 모두 죽음)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직 안 읽어보셨담, 얼른 읽어보세요.

아주 썩 괜찮은 글이거든요.

셰익스피어(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극작가. 1564~1616년)의 글이

좋다는 건 살아오면서 누누이 들어왔지만 이정도로 좋을 지는 미처 저도 몰랐어요.

정말 짱이에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그의 명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그게 더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태어나기도 한 참 전에 쓰인 글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니.

요즘 읽고 있는데요, 꼭 책 속 어느 인물(햄릿을 짝사랑한 ‘오펔리아’를 말함)이 저인양 생각하며 매일 밤 잠들고 있어요.

지금 전(저는) 오펔리아(햄릿을 짝사랑한 여인)예요... 아주 민감한 오펔리아요!

햄릿이 항상 제 기분을 풀어줘요, 그러다 그에게 응석을 부리거나 잔소리를 하고 그가 냉담해지면 그의 목덜미를 감싸 안죠.

제 우울함은 햄릿으로 완전히 극복되었어요.

왕(덴마크의 왕)과 왕비는 둘 다 돌아가셨어요... 바다에서 사고로요.

장례식은 필요 없었고요...

그래서 햄릿과 저(오펔리아)는 어떤 성가심도 없이 덴마크에서 즉위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잘 통치를 하고 있고요, 자선단체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제가 막 1등급 고아원 몇몇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나 또는 몇몇 다른 평의원(=이사)분들께서 그곳들을 방문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제가 손수 나서 그 곳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아저씨(키다리 아저씨)로부터 많은 도움 되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요(생각돼요).

당신의 자비로운 친절을 꼭,
기억할게요,
덴마크(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임)의 애인인,
오페리아(햄릿을 사랑하다 죽은 여인이름)가.

(24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3월 5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23번째로, 3월 5일에 총 1통을 보냄)

25장. 키다리 아저씨

(3월 25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24번째로, 3월 25일에 총 1통을 보냄)

3월 24일

아마도 25일에.

키다리 아저씨께,

제가 천국에 갈 거라 믿기지 않아요... 여기 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저 세상에 가서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들어보세요.

매년 한 달 동안 벌어지는 단편소설 공모전에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의 실명)이 당당히 우승했습니다. 상금은 차그마치 30만원(원문→25달러). 그리고

그리고 두근두근 그녀는 이제 2학년 밖에 안 되었어요! ^.^

그동안 4학년 언니들이 줄곧 우승을 도맡아 왔거든요.

포스트(=벽에 붙인 종이)에 적힌 제 이름을 보는 순간, 심쿵~♥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_* 도무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결국 작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아, 리셋 여사(고아원 원장님 이름)님께서 이 명칭해 보이는 이름만 좀 더 작가 느낌 나는 이름으로 지어주었더라도 훨씬 더 나았을 건데, 안 그런가요?

그리고 저 봄 연극제에... 야외(바깥)에서 하는 〈뜻대로 하세요〉(설명→ 셰익스피어의 낭만 희극작품. 남장한 여주인공이 나옴. 나름 재밌는 희극임)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저는 ‘로잘린드’(극 중 남장 여주인공. 추방된 이전 공작의 딸)의 사촌 언니인 ‘셀리아’(현재 공작의 딸) 역을 맡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리아(친구이름)와 샬리(친구이름) 그리고 저(여주인공) 이렇게 셋이서 다음 주 금요일에 뉴욕으로 가서 봄 쇼핑을 하며 밤새 머물다 다음날 극장에 가기로 했어요. 누구랑 가게요? ㅋㅋ ^^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이름)과 같이 가요.

그분이 저희들을 초대해주셨어요.

줄리아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거고요, 샬리와 저는 ‘마르다(=’여주인‘이란 뜻임) 워싱턴 호텔’(뉴욕의 유서 깊은 호텔. 1903년에 지어진 호텔. 사진링크 ▶ <http://me2.do/5xoQLDwJ> . 호텔실내360도사진▶ <http://me2.do/5FLMhTCY> , 올해 호텔 이름을 ‘레드버리 뉴욕 호텔’이라고 바꾸었음. 위키백과 참조함)에 머물거예요.

▼ 네이버지도 (검색어 : ‘마르다 워싱턴 호텔’)(=현재 이름은 ‘레드버리 뉴욕 호텔’)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0.744558,-73.98458699999999&zoom=12&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0.744558,-73.98458699999999&client=gme-nhncorp&signature=A8Z_ZooM7Ku39uD7sCIY0Pf6ViA=&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6.1 (검색일자 : 2016-6-22)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0.744558,-73.98458699999999&zoom=17&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0.744558,-73.98458699999999&client=gme-nhncorp&signature=r3rYQT2bayUMBzSZ6xKb39WW3Uw=&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6.1 (검색일자 : 2016-6-22)

정말 흥분되지 않나요?

제 생애에 호텔 같은 데를 다 가보다니 ㅏ.ㅏ 감격 감격, 극장은 또 어떻고요, 비싼 데라곤 어릴 적 고아원생들이 단체로 가톨릭교회 축제날 초대받아 가본 게 다인 걸요. 하지만 그때도 진짜 연극은 없었으니 이걸 계산(=횟수)에 넣어선 안 되겠죠.

저희들이 보려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햄릿〉(연극이름) 말이에요. 팬창쥬! 셰익스피어만 거의 4주 동안이나 연구한 걸요 그래서 지금은 그를 진심 잘 아는 것 같거든요.

아,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실제로 보게 된다니 넘 떨려서 잠이 올 거 같지 않아요.

그럼 잘 자여, 아빠.

여긴 참 재미난 곳 같아요.ㅋㅋ

당신의 한결같은,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추신.

방금 막 달력을 봤는데요, (오늘이 24일도 25일 아닌) 28일이었네요.

또 다른 추신.

오늘 시내전차 차장님을 봤는데요, 한쪽 눈은 갈색 또 다른 눈은 파란색이 시더라고요.

추리소설에 나오는 멋있는 악한(나쁜 사람)이 생각나지 않나요?

(25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3월 25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24번째로, 3월 25일에 총 1통을 보냄)

26장. 키다리 아저씨

(4월 7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25번째로, 4월 7일에 총 1통을 보냄)

4월 7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머나! 뉴욕(도시이름) 크지 않나요? 우스터(미국 동북부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도시이름. 여주인공의 친구인 샬리의 집이 있는 도시이름. 아래의 네이 버지도 참조바람)도 뉴욕에 비하면 껌이래요. 이 혼돈을 잠재워줄 실거주자(저비스 도련님)의 조언이 필요했다고나 할까요?

▼ 네이버지도 (검색어 = 우스터)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2.2625932,-71.8022934&zoom=7&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2.2625932,-71.8022934&client=gme-nhncorp&signature=aQ11URmLrjK0n7HXXH94wqMjFKAk=&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6.1 (검색일

자 : 2016-6-23)

이틀만 가 있었는데도 전 알아요 제가 이 문화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는데
수개월은 족히 걸릴 거라는 걸요.

제가 본 것들이 어찌나 어마어마한지 뭐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키다리 아저씨는) 거기서 쪽 사셨을 테니 제가 하려는 말 짐작이
가시겠죠.

거리풍경들이 너무 유쾌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또 어땠고요? 가게들이며?

전 이토록 살아 움직이는 듯 한 쇼윈도들을 본 적이 없었던 걸요.

그 중에 몇 벌만 떼어다 아저씨께 입혀드리고 싶었을 정도예요.

샬리(친구이름)와 줄리아(친구이름)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토요일 아침
에(뉴욕에 도착한 건 금요일임)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줄리아가, 눈이 동그래져있는 저를 데리고 그 중 가장 아름다운 상
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흰색 벽과 금빛을 한 벽들이며 파란 카펫(융단)이
며 푸르른 비단 커튼들과 금박을 입힌 손님용 의자들까지. *_*

바닥에 질질 끌리는 긴 검정색 비단 드레스를 입은 금발의 아가씨가 저희
들을 화사한 미소로 맞아주시며 다가오는 거예요.

저흰 그냥 보기만 하려던 거였는데 점원 아가씨가 너무 아름다워 깜짝 놀

라며 악수를 건넸더랬죠.T.T 그래서 엉겁결에 모자를 사러 온 것처럼 가장했어요... 적어도 줄리아(뉴욕이 원래 고향인 2학년 대학생)는 그렇게 행동했어요.

줄리아(뉴욕 최고의 가문들 중 하나 출신임)는 전신거울 앞에 앉아서는 T.T 12개나 되는 모자들을 씻다 벗었다, 제가 보기엔 하나같이 다 예뻐는데, 줄리아는 이 중에서도 가장 예쁜 모자 2개를 사더라고요.

전신거울 앞에 앉아 가격표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자를 고르며 앉아 있는 거보다 인생에서 더 재미난 게 있을까 싶더라고요!

절대 있을 리 없어요, 아빠.

뉴욕은, 〈존 그리어 고아원〉이 여전히 짙어지고 있는 철통같은 스토아 학파(절제를 중시하는 고대 로마의 학파)의 엄격함은 재빨리 벗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쇼핑을 마친 후, ‘세리(가게 주인 이름임. 남자이름)네 레스토랑’(당시 뉴욕에 실제로 있었던 레스토랑이름. 사진링크 ▶ <http://me2.do/FrDGZSV8> . 레스토랑 가게 주인의 이름이 '루이스 세리'였음. 루이스 세리 사진링크 ▶ <http://me2.do/FBdrfOBQ>)에서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을 만났어요.

아저씨도 뉴욕에 사시니 이 레스토랑을 가본 적이 있겠네요, 그쵸?

상상하세요, 〈존 그리어 고아원〉 식당의 방수포(물기를 스며들지 않도록 한쪽에 방수포를 입힌 식탁보)를 입힌 식탁들을 말이에요, 한번이라도 보셨담 숨이 막히실 걸요. 나무로 된 나이프(칼)와 포크는 또 어떤데요.

그러니 세리네 레스토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 심정이 어땠을 거 같으세요!

저는 포크를 잘못 잡고서 생선을 먹었는데요, 그러자 웨이터 분께서 친절

히 다른 포크를 가져다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지 않고도 식사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

거나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에 저희가 간 곳은 짜짠~ 극장이에요... 눈부시고 불가사의하고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더랬죠... 제가 그토록 꿈꾸워마지 않았던 바로 그 곳에 오게 된 거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놀랄만하지 않았냐고요?

“햄릿”(덴마크의 왕자임)은 제가 수업시간에 배우며 이해했던 것보다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상상이상이었어요. 전에도 이 작품의 진가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더욱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 어쩔 좋아!

제 생각엔, 만약 아저씨만 꺼려하지 않으면, 제가 작가(소설가)가 되기 보단 여배우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더랬어요.

어떠세요 아빠 제가 대학을 중퇴하고 연극학교에 들어가도 계속 절 후원 해주실 건가요?

그럼 언제가 제가 제 모든 흥행작품마다 아저씨를 초대할 거고 그럼 저는 풋라이트(무대 앞에서 배우를 비추는 전등)를 받으며 아저씨에게 미소지어보 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단추 구멍에 빨간 장미를 단 아저씨가 바로 키다리 아저씨라고 제가 말 할 거예요.

그러다 제가 사람을 잘못 가리키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이 조명되고 그래서 대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 어때요?

(토요일) 밤이 되어서 돌아오는 기차간에서 저녁식사를 했어요.

분홍빛 램프와 웨이터들이 있는 자그마한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고요.

기차간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지는 처음 알았어요. 게다가 그만 부주의하게도 식사 중에 이 얘기(처음 알았다는 얘기)를 무심코 하고 말았지 뭐

예요.ㅌㅌ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러자, 줄리아(부자친구)가 제게 이러는 거예요.

“넌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기에 기차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듣는다는 거니?”

“시골에서...”라며 제가 용기 없이 줄리아에게 말했죠.

“하지만 그곳에도 기차는 다닐 거 아냐?”라며 줄리아가 제게 말했어요. ㅍ
ㅍ

“하지만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진 그러니까 고작 260킬로미터 오자고 밥을 먹진 않아, 우리 마을에선,”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줄리아에게 하고 말았어요. ㅌ0ㅌ

제가 넘 멍청한 소리를 웃기게 말하니까 점점 ‘줄리아’(부자친구이름) 더 제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엉뚱한 소릴 안하려고 애를 썼는데 급기야 제가 깜짝 놀랐을 때... 거의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할 때쯤 때마침 친구들이 자리를 떠야 해서.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보낸 18년의 시간과 비교해보아도 실로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아빠, 이제 막 새로운 세계 속으로 내던져진 제 자신을 발견했다랄까요.

하지만 저도 뭐 이젠 익숙해져서 그런 끔찍한 말실수는 예전만큼 안해요.

다른 여자애들과 있으면 예전엔 무척 다른 듯 느껴졌는데 요즘은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애들이 저를 쳐다볼 때는 지금도 머뭇 머뭇거리며 어색해하긴 해요. 마치 새 옷들 아래로 줄무늬 고아원복이 보여지기 라도 하는 듯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주눅 들림을 하지 않으려고요.

그런 주눅 들림이라면 어제(기차간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생전 처음으로 기차에서 식사를 해본다”고 말을 해 줄리아의 질문공세를 받으며 찢찢 맨 거) 그 한 번으로 충분히 족하거든요. T_T

앗 참 꽃 받은 애길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저비스 도련님께서 저희들(줄리아, 샬리, 여주인공인 주디)에게 각각 한 아름의 제비꽃과 은방울꽃을 선물해주셨어요.

달콤하지 않나요?

남자에 대해 크게... 물론 평의원분(=이사)들 포함해서요... 신경쓰지 않았는데 이 분 때문에 나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이번엔 11장을 썼네요... 이게 바로 편지죠! 용기 내서. 이제 그만 적을래요.

당신의 영원한,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26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4월 7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25번째로, 4월 7일에 총 1통을 보냄)

27장. 키다리 아저씨

(4월 10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26번째로, 4월 10일에 총 1통을 보냄)

4월 10일.

친애하는 부자(=키다리 아저씨) 나리께,

보내주신 50만 원(원문→50달러)짜리 수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받으면 안될 거 같아서요.

제 용돈으로도 필요한 모자들을 사고도 남는 걸요.

지난 번 편지에서 여성용 모자 가게 얘기를 너무 경솔하게 꺼낸 거 같아서 죄송해요.

생전 처음 가본 곳이라 그만 너무 경솔했네요.

용돈이 부족하단 얘기를 아니었는데!

제가 받는 것보단 자선단체에 건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체루샤 에벗(여주인공의 실명)이,
드림.

(27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4월 10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26번째로, 4월 10일에 총 1통을 보냄)

28장. 키다리 아저씨

(4월 11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27번째로, 4월 11일에 총 1통을 보냄)

4월 11일.

사랑하는 아빠께,

제가 어제 부친 편지내용에 대해 용서해주실 거죠?

저도 부치고 나서야 제 말이 좀 심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려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쁜(원문→짐○ 같은) 우체국 직원이 그러길 거부하더라고요.T_T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제가 넘(너무) 벌레 같이 느껴져서 몇 시간동안이나 자질 못하고 있었어요.

벌레요... 다리가 수천 개는 달린 은혜를 모르는 벌레요... 이 상황에서 제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서재로 향하는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줄리아와 샬리가 깨지 않게요. 제 일기장에서 한 장을 떼어내 침대에 앉아 아저씨께 편지를 쓰고 있어요.

보내주신 수표(50만 원짜리 수표)에 대해 제가 너무 실례되는 말을 한 거 같아 거듭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요.

의도는 제게 친절을 베푸시려는 것이었을 텐데, 제가 모자 같은 쓸데없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경솔했던 거 같아요.

주신 호의(50만 원짜리 수표)는 최대한 빨리 반송해야할 거 같아요.

더욱이 이번 경우는 꼭 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저와 다른 여자애들의 차이에요.

여자애가 다른 이에게서 응당 뭔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아빠나 엄마 아니면 이모나 삼촌이시라면요.

하지만 전(저에겐) 그런 친척분들이 안 계신 걸요.

이 경우도 그냥 제게 할머니(키다리아저씨)가 계신 것처럼 아저씨가 꾸며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상황극이라지만 아저씨가 제 진짜 할머니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전 잘 알아요.

전 그냥 혼자인걸요... 벽에 등을 기대든 채 한 발짝도 더 물러나지 않기 위해 세상과 싸우는 아이요... 한번은 제가 집시가 아닌지 적어도 그런 유형의 아이는 아닌지 생각했더랬어요.

아빠? 지금 주시는 용돈(매달 35만원. 35달러가 35만원임) 이상의 돈은 어떤 경우라도 받지 않겠어요.(여주인공이 키다리 아저씨로부터 받는 학비

및 식대 및 용돈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바람. 1장 #21 ►
<http://blog.naver.com/osy2201/220703436553>)

그리고 지금 주시는 돈들(학비, 식대, 기숙사비, 용돈 등등)도 제가 그럴 수 있을 만큼 성공한 작가가 되면 차츰차츰 갚아 나갈 거예요. 그게 아무리 큰 부채가 되어 있더라도 언젠가 꼭 갚을 거예요. 그러니 빚을 계속 질 순 없어요.

제가 모자와 그런 걸 좋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로 제 미래를 저당 잡힐 순 없어요.

절 용서해주실 거죠, 그래주실 거죠, 왜요 너무 무례해서요?

처음 떠오르는 감정대로 글을 쓰는 끔찍한 습관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걸요. 이제 또 이 편지를 부치곤 급당황해 우체국 직원에게 돌려달라고 때를 쓰고 있겠죠.

하지만 아, 전 이따금씩 생각 없고 은혜를 모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정말 제 인생을 통털어서 전 아저씨께 항상 감사해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제게 주신 지금의 생활과 자유 그리고 독립에 대해서요.

제 어린 시절은 너무도 길었고 우울했어요. 반항심의 연속이었죠.

그에 비하면 지금의 전 도무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제 현재의 모습에 매번 행복해하고 있어요.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된 기분인걸요.

(새벽) 2시 하고도 15분이 더 지났어요.

까치발(발 앞부분으로 걷는 것)로 나가 ‘우편 투함’(높은 건물의 각 층에서 우편물을 아래층으로 내려 보내는 관)에 이걸(=편지) 넣는 것으로 털어버리고 싶어요.

물론 이 편지를 받으시자마자 “아니라”는 또 다른 편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정말 아저씨 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겠죠.ㅠ_ㅠ

잘 자여, 아빠,
당신을 언제나 사랑하는,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28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4월 11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27번째로, 4월 11일에 총 1통을 보냄)

29장. 키다리 아저씨

(5월 4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1'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28번째로, 5월 4일에 총 4통을 보냄)

5월 4일.

키다리 아저씨께,

지난 토요일은 학교 운동회 날이었어요.

대축제였어요.

우선 저희들 모든 학년들이 새하얀 옷을 입고 가두 행진(퍼레이드)을 벌었어요.

특히 4학년 졸업반 언니들은 파란색과 금색인 일본식 우산을 휴대하고 나

갔고요, 3학년 언니들은 흰색과 노란색의 ‘기’(국‘기’ 할 때의 ‘기’)들을 들고 나왔어요.

저희 2학년생들은 진한 빨강색 풍선들을 들고서... 에구 T.T 풍선을 손에서 놓치고 날려보내는 바람에 애 좀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내기(1학년생)들은 긴 장식 리본을 단 초록색 종이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또한 시(시청)에서 청색 유니폼들을 입은 음악대를 파견해주었어요.

또한 12명의 재미난 분들이 서커스의 어릿광대 복장을 하고서 저희와 함께 가두 행진을 해주시는 바람에 행사 내내 구경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답니다. :)

이날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에. 19세. 대학교2학년)는 꼭 똥뽕이 시골 총각처럼 변장을 하고 왔는데요, 널널한 여름옷을 입고 구레나룻(귀 밑에서 턱까지의 수염)까지 덕지덕지 붙이고서 축 늘어진 우산까지 펼치고서 저희들을 따라왔어요.

그럼 이 시골 총각(줄리아)의 아내가 없음 안 되겠죠? 그래서 어리숙한 ‘모리아티’(사람이름임)가, 앗참 애 진짜 이름은 ‘퍼트리샤’(여자이름)이에요, 이런 이름 흔치 않은데 아저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긴 뭐 ‘리벳 부인’(고아원 원장님 이름)이란 성함보다 낫긴 하죠.ㅋㅋ, 여하튼 이 어리숙하고 키 크고 마른 ‘모리아티’(사람이름)가 괴상망측한(엉터리 같은) 초록색 ‘보닛’(턱밑에서 끈을 묶는 여성모자)을 한쪽 귀에 아슬아슬하게 걸치고서 줄리아의 아내 역을 하며 같이 걸었는데요. ㅋㅋ

보는 사람들마다 어찌나 웃어대는지 애네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줄리아가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 해낼지 몰랐어요.

펜들턴(뉴욕 최고의 가문들 중 하나) 가문에도 이런 기발한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애가 있을 수 있다니 쏏킹! 쏏킹! ^^

앗 제가 이런 말을 하니, 팬스레 저비스 도련님(펜들턴 가문 출신. 줄리아의 막내삼촌)에게 미안해지는데요.

하긴 뭐 저비스 도련님이 전혀 펜들턴 가문 출신 답지 않아 보이듯이 사실 뭐 아저씨(키다리 아저씨)도 평의원(고아원의 이사) 같진 않으세요. :)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에. 19세. 대학교 ‘2학년 학년회장’)와 저는 가두 행진(퍼레이드)에 참석하진 않았어요.

저흰 운동회 경기 중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둘 다(샬리와 여주인공) 이겼어요!

일냈죠.ㅋㅋ

다만 저희 둘 다 멀리뛰기에도 참가했는데 이걸 둘 다 떨어졌어요.

대신 샬리는 장대높이뛰기에서 우승했고요, 기록이 99센티미터(원문→3피트 3인치)나 나왔어요. 최고~

그리고 저는 50미터(원문→50야드. =45.72미터) 달리기에서 우승했는데 기록이 자그마치 8초나 나왔답니다. ㅎㅎ :)

제가 숨을 헐떡이며 결승점으로 달려오자 환호성이 있었고요 전 학년들이 파도타기를 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이렇게요,

“어머나, 주디 에벗(여주인공의 이름. 주디=애칭=별명. 에벗=성씨)이 뭔일 이래?

제 정말 주딘데.

정말 개 맞니?

정말 주디 에-벗이잖아!”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50.png> (검

색일자 : 2016-6-25)

(원문에 있는) 그림설명 : 50미터 달리기에서 이긴 ‘주디’(여주인공의 애칭
=별명)

아빠, 이게 정말 큰 명성 아닌가요.

그런 다음 탈의실로 가서 알코올로 냉수마찰을 한 다음 레몬 음료로 목을

적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노는지 이제 아셨죠.

물론 이상적인 건 저희 2학년이 이기는 거지만 그래야 아저씨도 좋아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가장 많이 우승한 학년이 그 해 우승트로피를 거머쥐는 거라.

4학년 언니들이 올해 우승했어요. 7개 경기에서 우승했거든요.

운동회 측에선 경기 우승자들(4학년)에게 실내 체육관에서 저녁을 대접해요.

저희 2학년생들은 ‘딱지가 연한 식용 게(바다에 사는 게. 옆으로 기어 다니는 게)’를 구웠고요,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농구공 모양으로 만들어 우승자들(4학년)을 대접했어요.

어젯밤의 거의 반은 『제인 에어』(영국소설. 여성작가인 샬럿 브론테의 작품. 여성 성장소설임. 1847년 작품. 참고로 『키다리 아저씨』는 1912년 미국 작품임)를 읽느라 앉아 있었어요.

혹시 아빠(키다리 아저씨)도 60년 전 일이 기억나실 만큼 나이가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게 연로하신(나이 많은) 분들이 말하는 방식인가요?

거만한 블랑쉬(여자이름)이 마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잡담 그만 해, 이 악한아, 시킨 거나하라고.”

천국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로체스터 씨는 돈 얘기를 해요, 마치 하이에나(동물이름)처럼 웃는 미친 여성이 침대 커튼에 불을 붙이고서 신부 면사포(얼굴을 가리는 천)을 갈기 갈기 찢으며 물어뜯듯이...

이건(영국소설인 『제인 에어』. 여성작가인 샬럿 브론테의 작품. 여성 성장소설임. 1847년 작품) 가장 순수한 멜로드라마예요. 정말 그래요, 아저씨

도 보시면 읽고 읽고 또 읽게 되실거예요.

어떻게 여성이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는지 도저히 상상이 가질 않아요, 게다가 태어난 자기 동네를 생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여성(『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럿 브론테. 샬럿 브론테 사진링크▶ <http://me2.do/xGalBgaQ>)이요.

브론테 자매(언니 브론테와 여동생 브론테 모두 유명한 영국소설가임. 브론테 자매는 모두 3명인데, 단, 막내여동생도 작가인데 언니들만큼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음. 브론테 자매에겐 남동생도 1명 있었는데 일찍 죽었음)들의 작품엔 사람을 매료시키는 뭔가가 있어요.

그들의 작품, 그들의 생애, 그들의 정신 속에 깃든 뭔가가 있다고요.

그 언니들은 어디서 그런 걸 얻었을까요?

동생 브론테(유명한 소설인, 1847년 작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제인 브론테’. 사진링크▶ <http://me2.do/xMiWDmrE>)가 (벨기에 브뤼셀에) 자선학교를 열고자 했으나 실패했다는 글을 읽고는 넘 화가나 책을 덮고 잠시 산책을 하러 나가야했을 정도예요.(브론테 자매는 벨기에 브뤼셀에 자선학교를 열려다 실패했음. 브론테 자매의 아버님이 영국 성공회의 신부님이셨음)

그녀(『폭풍의 언덕』을 쓴 동생 브론테)가 느낀 감정이 온전히 전해져서예요.

특히나 리벳 원장님(고아원 원장님)을 알고 있는 저로선, 브로클허스트 씨의 속마음이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화내진 마세요, 아빠.

존 그리어 고아원(『키다리 아저씨』의 여주인공이 나온 고아원이름)가 로우드학교(영국소설 『제인 에어』에 나오는 학교이름)라 생각진 않으니까요.

저흰 그래도 먹을 건 충분히 먹고, 입을 것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물도 충분히 씻을 수도 있었고요 난방도 되는 방이었어요.

하지만 끔찍이도 닳은 게 하나 있다면.

존 그리어 고아원의 저희나 로우드학교의 그 애들이나 너무도 단조롭고 밋밋한 삶이었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나마 일요일날 나오는 아이스크림 배식이 특별했달까, 하지만 그마저도 너무도 매번 나와서.

18살 때(여주인공이 고아원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게 18세 때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험 하나를 저질렀는데요... 장작 태울 때 말예요.

불잡힐까봐 밤에 일어나 옷을 입었죠.

하지만 불들리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냥 침대로 돌아왔거든요.

모든 사람은 원래 약간 놀라운 걸 좋아하잖아요. 갈망(=원함)은 원래 인간 본성에 부합(=일치)하나 봐요.

저도 그랬는걸요.

하지만 리벳 원장님(고아원의 원장님)이 저를 집무실로 불러, 존 스미스(존=이름. 스미스=성씨. 키다리 아저씨의 가명) 씨가 저를 대학에 보내주기로 하셨다는 통보를 전해 받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당시 원장님이 소식을 찢끔찢끔 찢러주셨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놀랄 타이밍을 놓쳐버렸지만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아빠, 인간이 응당 가져야 할 기본 자질 중 최고는 상상력이라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말이죠.

상상력은 우리를 어떤 곳이든지 데려다 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상상력은 사람을 친절하고 심정적이고(동정적이고) 배려심 있게 만들어 줘

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 그리어 고아원〉을 보세요. 아주 작은 상상의 반짝임조차 발로 밟아서 불을 꺼버리는 곳이에요.

오로지 가르치는 거라곤 본분(=의무감)뿐이죠.

세상에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 왜 필요한가요.

그 의미를 안다고 아이들에게 뭐가 달라지나요.

불쾌하고 혐오스런 일이에요.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요.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될 때 어떻게 되나 두고 보라죠!

잠들기 전 제가 꿈꾸는 일상이에요.

작은 것까지 다 고쳐버릴 거거든요... 식사며 옷이며 공부며 오락이며 체벌들까지 다요.

이런 것들은 최고급 등급을 받는 좋은 고아원들마저 상황이 좋지 못하거든요.

여하튼 그럼 아이들(고아원의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는지 그러니 행복한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만 생각할 수 있다면 가능하리라 봐요.

특히 제 아이들은 비록 제가 어릴 때 행복하진 않았지만 절대 제 아이들만은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떤 걱정거리 없이 키울 거예요.

앗, 채플(=예배) 종이 울렸어요... 하느님이 편지 그만 쓰라는 신호를 보내시네요(원문→편지 나중에 다시 마무리 할게요.)

(19세. 대학교2학년. 5월 4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1번째 편지 끝)

(5월 4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2'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28번째로, 5월 4일에 총 4통을 보냄)

목요일.

화학 실험실에서 오늘 오후에 돌아와보니까요, 다람쥐 한 마리가 제 차(마시는 차) 탁자 위에 앉아 있지 뭐예요, 아몬드를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날이 풀리다 보니 이런 훈훈한 방문자들이 종종 들어온답니다, 창문을 열어둬서 그럴 수도 있고요~ ㅎㅎ :)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55.png> (검색

일자 : 2016-6-26)

(원문에 있는) 그림제목 : 지네(기어 다니는 지네) 부인, 각설탕을 하나만
넣을까요? 아님 두 개 다 넣을까요?

(19세. 대학교2학년. 5월 4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2번째 편지 끝)

(5월 4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3'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28번째로, 5월 4일에 총 4통을 보냄)

토요일 아침.

제가 오늘 수업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어제 금요일이라고 생각하실런가요
ㅋㅋ

상금(운동회 50미터 달리기 우승했음)으로 산 스티븐슨(영국 소설가 이름.
1850~1894년. ‘스티븐슨’의 사진링크 ► <http://me2.do/FeHr8Znv>)의 책
세트(『보물섬』과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 등등)를 읽으며 어제 금요일
밤을 자분하게 재미나게 보냈거든요.

하긴 뭐, 아저씨 여대에 다녀본 적이 없을 테니, 아빠~.

친구들 6명이 잠시 들러 캔디를 만들고 샀어요, 하지만 한 애가 캔디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나마 다행인 건 캔디(액체 상태의 캔디)를 만드는 도
중에 떨어뜨려서 캔디가 액체였다는... 바닥 용단 한가운데에 달라붙어 있는
데. 예구, 아무도 치울 생각을 안했답니다. ㅋㅋ 비싼 용단인데...

최근엔 교과목 애긴 하나도 안 했네요, 뭐 매일 잘 배우고 있으니까.ㅋ
ㅋ^^

그리고 보니 일방적으로 한쪽이 삶에 대해 말하는 건 수업이나 아저씨께
보내는 제 편지나 같네요.ㅋㅋ

뭐 아저씨 실수는 아니지만요.

언제든 제 편지에 대한 답장을 주실 거라면 전 너무 너무 환영~

그만 사흘(=3일) 내리 편지만 썼네요, 그만 적어야 할까 봐요, 갑자기 제
편지에 (프랑스어로→) 아저씨가 (다시 영어로→) 슬슬 지겨워하실까봐 걱정
돼서요!

안녕, 착한 홍길동 씨,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19세. 대학교2학년. 5월 4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3번째 편지 끝)

(5월 4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4'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28번째로, 5월 4일에 총 4통을 보냄)

키다리 아저씨께,

짬~ : 논증 시간에 배운 거예요, 논제(=주제)를 하나씩 나누는 거요.

그래서 이 편지에도 적용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지금 적용해보려고요.

모두 사실이고요 군말(=말이 많음)은 달지 않았어요.

I (1). 이번 주에 이 과목들의 필기시험이 있었다.

가. 화학

나. 국사(역사)

II (2). 새 기숙사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가. 재질(건물의 재료)은,

(1) 붉은 벽돌.

(2) 회색 돌

나. 수용능력(기숙사의 수용능력)은,

(1) 학생과장님 한 분과, 전임 강사(교수)님 5명과,
(2) 200명의 여학생들과,
(3) 건물관리인 1명, 요리사 3명, 웨이트리스(식당 보조) 20명, 방
청소하시는 분 20명임.

III(3). 오늘 밤 디저트로 우유가 나왔다.

IV(4). 나는 요즘 셰익스피어(영국 작가)의 연극들을 주제로 특별한 주제
의 글을 쓰고 있다.

V(5). 루(‘루이자’라는 여자이름의 애칭) 맥마흔이 오늘 오후 농구 시합
도중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그녀는,

가. 어깨가 ‘탈골이 되었고’(빠졌고),

나. 무릎에 멍이 들었다.

VI(6). 나는 새 모자에 다음을 달았다.

가. 파란색 ‘벨벳’(짧고 고운 털) 리본과,

나. 청색 깃(=날개‘깃’) 2개와,

다. 빨간 ‘방울술’(털실로 만든 방울. 사진링크 ▶

<http://me2.do/xMiW6w20>) 3개.

VII(7). 지금은 (저녁) 9시 30분.

VIII(8). 안녕히 주무세여~♥.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29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5월 4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4번째 편지 끝)

(입학 후 28번째로, 5월 4일에 총 4통을 보냄)

30장. 키다리 아저씨

(6월 2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29번째로, 6월 2일에 총 1통을 보냄)

6월 2일.

키다리 아저씨께,

상상바라기를 해보신 적 없으시죠.

글쎄, '맥브라이드'(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9세. 대학교 '2학년 학년회장')가 이번 여름을 '애디론댁 산맥'(미국 뉴욕주 북동쪽. 아래의 지도 참조바람)에 있는 가족 산장에서 같이 보내자고 제게 제안해왔지 뭐예요!

▼ 네이버지도 (검색어 : 애디론덱 산맥)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4.12471540000001,-73.8693043&zoom=4&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4.12471540000001,-73.8693043&client=gme-nhncorp&signature=TkTx3Z0kVzdWTj7AYoo5qnqe6JM=&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0 (검색일자 : 2016-6-26)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4.12471540000001,-73.8693043&zoom=11&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4.12471540000001,-73.8693043&client=gme-nhncorp&signature=esC6UIvABqgHyLQXOOzaBbknHIY=&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0 (검색일자 : 2016-6-26)

숲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랑스런 작은 호수에 일종의 회원제 비슷하게 산장을 소유하고 있대네요.

다른 가족들도 그 주위로 듬성듬성 오두막집을 지어놓았대요, 그래서 호수에서 카누(뱃놀이)하는 사람도 많이 온대요, 아님 다른 산장으로 산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1주일에 한 번은 다 같이 클럽하우스에 모여 춤도 춘대요...

지미 맥브라이드('샬리 맥브라이드'의 큰 오빠)도 대학 친구들과 함께 이번 여름에 그 산장으로 올거래요, 그래서 샬리와 저흰 많은 남자들과 춤을 춥수 있을 거 같아요. ㅎㅎ

게다가 샬리 어머님께서도 제게 오라고 하셨다면 믿으시겠어요?

넌 친절하지 않나요?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방문했을 때 저를 좋게 보셨나 봐요.

이번 편지는 너무 짧죠. 미안해요 아저씨. 편지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 정도는 미리 아저씨께 알려드려야할 것 같아서요.

자기 삶에 만족해하는,
당신의,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30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6월 2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29번째로, 6월 2일에 총 1통을 보냄)

31장. 키다리 아저씨

(6월 5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30번째로, 6월 5일에 총 1통을 보냄)

6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비서분이 제게 편지를 보낸 걸 지금 봤어요.

스미스 씨(=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의 가명이 '존 스미스'임)는 제가 '맥브라이드'(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9세. 대학교 '2학년 학년회장') 어머니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하는 편지였어요. 대신 이번 여름은 지난해 여름과 마찬가지로 록 월로우(농장이름이 록 월로우임. 록=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농장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거고요.

왜, 왜, 왜요, 아빠?

아저씨께서 잘못 아시는 거 같아요.

‘맥브라이드’(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9세. 대학교 ‘2학년 학년회장’)의 어머니는 정말 좋은 뜻에서 제가 그곳에 오길 원하신다고요. 정말 진실하신 분이란 말예요.

전 그 집에서 문제 하나 일으킨 적이 없는 걸요.

저도 일손(도우미)이라고요.

그 집엔 일꾼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켈리(켈리 맥브라이드. 여주인공의 절친)와 제가 유용한 많은 일을 해드릴 수 있단 말예요.

이건 제가 가사 일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모든 여성들이 배워두어야 하는 그거 말예요, 전 고아원에서만 자라서 가사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른단 말예요.

산장(산속의 캠핑장)엔 저희 또래의 여자애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켈리네 어머니께서도 켈리(친구) 동무로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저흰 함께 책도 많이 읽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아.

내년(3학년)에 어차피 국어와 사회 과목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해서요.

교수님도 이번 여름동안에 저희 생각대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말씀하셨단 말예요.

이러니 산장(산속의 캠핑장)에서 켈리와 책도 읽고 많은 대화를 거듭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켈리네 엄마 같은 분과 한 집에 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단 말예요.

재미있으시죠, 인자하시죠, 애정 깊으시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참한 어른이실 거예요.

그 분은 정말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 이번 여름방학을 리벳 부인(고아원 원장님)과 함께 보냈을 경우와 샬리 네 어머니와 보냈을 경우를 비교 분석해 보시란 말예요.

제가 사람들과 밀치락달치락하며 다니는 걸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집은 대부분의 마감이 고무라 다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일단 남자 애들은 숲에다 텐트를 치고 지낼 건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 틈에 저희들도 야외에서 운동도 하고 그럼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잖아요.

‘지미 맥브라이드’(‘샬리 맥브라이드’의 큰 오빠이름)가 말(승마) 타는 거며 ‘카누’(작은배)의 노를 젓는 걸 가르쳐주기로 했는데, 총 쏘는 것도요… 그런데 아 정말 이번 여름에 많은 걸 배우기로 했는데 T_T

이렇게 친절하고 재미난 무료 교습은 제 생전 처음이란 말예요.

모든 여자애들이 일생에 한 번 꿈꿀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물론 저는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 부디, 제게 가도 좋다고 말해 주세요, 넷 아빠, 전 정말 다른 건 아무 것도 원하지 않아요. 승낙만 해주세요.

이번 편지는 장차 위대한 작가가 될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의 실명. 제루샤=이름. 에벗=성씨)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로서… 그냥 한 꼬마 숙녀로서 쓰는 거예요.

(31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6월 5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30번째로, 6월 5일에 총 1통을 보냄)

32장. 키다리 아저씨

(6월 9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31번째로, 6월 9일에 총 1통을 보냄)

6월 9일.

존 스미스 씨께. (존 스미스는 키다리 아저씨가 자신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한 가명임)

나리께 : 비서 분을 통해 아저씨의 7번째 명령서를 지금 막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금요일에 여길 떠나 〈록 윌로우 농장〉으로 가서 이번 여
름을 보낼 겁니다.

그림 이만.

여전히 남고 싶은,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의 실명) 양이.

(32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6월 9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31번째로, 6월 9일에 총 1통을 보냄)

33장. 키다리 아저씨

(8월 3일에 총 1통 보냄)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32번째로, 8월 3일에 총 1통을 보냄)

룩(=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농장에서,

8월 3일에.

키다리 아저씨께,

저번 편지 보내고 꼭 두 달이 지나가네요, 나름 이곳도 나쁘진 않지만, 아
시죠, 이번 여름엔 아저씨를 저번처럼 많이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시다
시피 전 솔직하거든요!

‘맥브라이드’(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19세. 대학교 ‘2학년

학년회장’) 네 산장(캠핑장)에 가는 걸 포기하고서 제가 얼마나 상심에 겨워 했는지 아저씨는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걸요.

물론 저도 잘 알아요, 아저씨가 제 후견인(=보호자)라는 것어요, 그리고 제 모든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아저씨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동안 너무 복에 겨운 일만 있어서 그런가.

만약 제가 아빠고 그리고 아저씨가 제 딸(여주인공은 자신을 진짜 이름인 ‘제루샤 에벗’이 아니라 ‘주디 에벗’으로 불러주길 원함. 대학교 친구들에게도 자신이 ‘주디 에벗’이라고 알려주었음)이었다면, 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려무나, 내 딸아, 어서 가서 뛰어놀거라.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오거라. 바깥 공기를 마시고 더 강인해지고 돌아와 올해 남은 학기(3학년 1학기)를 잘 보내려무나.”라고요.

또한 전혀! 비서 분을 통해, 저보고 록 윌로우 농장으로 가란 말도 그렇게 통명스럽게는 절대 전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정말이지 제 마음을 상처 입히는 너무도 비인격적인 명령이었어요.

만약 제 감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실 생각이었다면 아저씨가 손수 쓴 메시지를 제게 보내주셨어야 했어요.

누가 봐도 말을 받아서 비서 분이 타자기로 친 거 같은 그런 몹쓸 편지 말고요.

적어도 제가 받은 편지에 조금이라도 저를 배려하는 구석이라도 보였담 전 모든 걸 이해하고 기꺼이 아저씨가 바라는 대로 했을 거예요.

예의바르게 (편지를) 써야 한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리고 길고 자세히 적어야 하고, 답장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것도요.(이것이 키다리 아저씨가

여주인공을 대학에 보내주는 조건이었음)

그것이 저를 대학에 보내주는 것에 대해 아저씨 쪽에서 요구한 조건이었
고… 하지만… 가령 그래도 그렇지 제 기대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빠가 제시한 그 조건은, 제겐 너무 가혹한 것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전 몹시 외로워요.

제가 아는 분이라곤 아저씨뿐인데, 아저씨는 늘 그림자 속에 있죠.

그냥 제가 만들어낸 상상속의 그대인가요… 정말 제가 상상하는 모습과
조금이라도 닮긴 닮으신 건가요.

그냥 아저씨가 모습을 드러낸 건 딱 한 번, 그것도 제가 양호실에서 아파
몸져누워 있을 때, 제게 장미와 카드(메시지)를 보내준 게 다예요, 그리고 지
금 전 그마저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저씨가 보내준 그 카드(메시지)를 꺼
내 읽고 또 읽었어요.

제가 아저씨께 이런 식의 투정을 부리게 될 줄은 생각 못해봤어요.

비록 제가 마음 상했을 지라도, 이런 투정은 염치없는 짓인데.

싫고 독단적이며 비이성적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안 보이는 섭리(=하
느님)에 의해 발동된 거라도, 지금까지 제게 이렇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려
깊게 대해준 아저씨께 말이죠.

아저씨는 저를 막대하고 독단적으로 대하고 비이성적으로 대할 응당 권리
가 있는데 말이죠….

네, 제가 아저씨를 용서할게요, 저 다시 기운 차릴 거예요.

하지만 썰리(2학년 학년회장)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사람들과 엄청 재밌게
잘 놀고 있대요, 이건 어쩔 건가요. 힙! ㄷ_ㄷ

하지만…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번 여름방학 땀 쓰고 또 썼어요.

단편소설 4개를 마무리 지었고요 서로 다른 잡지사 4군데에 보내봤어요.

자 봐요 결국 제가 해냈죠, 뭐 성공한 건 아니고 노력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지만요. :)

아 참 저 작업실도 하나 만들었어요, 뭐 거창한 곳은 아니고요 어린 ‘저비스
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이 아팠을 때 놀이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다락
방 한쪽 구석에 제 작업실을 만들었죠.ㅋㅋ

지붕에 낸 창문이 두 개 있는 시원하고 통풍 잘 되는 구석이에요. 단풍나
무 한 그루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곳인데, 헤헤 그 단풍나무엔 다람쥐 가족도
살고 있어요.

며칠 있다 좀 더 산뜻한 편지를 쓸게요, 왜냐면 그땐 농장 소식을 아저씨
께 알려드릴 거거든요.

어서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당신의 변함없는,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가.

(33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8월 3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32번째로, 8월 3일에 총 1통을 보냄)

34장. 키다리 아저씨

(8월 10일에 총 3통 보냄)

(3통 중 '1'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33번째로, 8월 10일에 총 3통을 보냄)

8월 10일.

키다리 아저씨께,

목장 저수지 옆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 갈라진 두 번째 틈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어요.

아래에선 개구리 한 마리가 개굴개굴 울고 있고, 제 머리 위론 귀뚜라미
한 마리가 노래 부르고 있고요, 바람이 산들산들 나무줄기들을 위 아래로 흔
들어주고 있어요.

한 시간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포근한 장소예요. 더욱이 폭신한 소파 쿠션 두 개를 가져다 등을 받쳐 놓았더니 더 폭신하지 뭐예요.

펜과 종이를 꺼내 불멸의 단편소설을 하나 써보려 했는데 음, 여주인공이 끔찍한 경험을 하는 것까진 풀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머릿속에서 그만 꼬이고 말았지 뭐예요.T_T

그래서 막 줄거리를 고쳤고 그냥 아저씨께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 안심은 안되는 게, 왜냐면 아저씨 또한 제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소설 속 캐릭터(인물)가 아니기 때문이죠.

뉴욕생활이 끔찍하신가요, 그럼 제가 이곳의 사랑스럽게 살랑살랑 산들바람 부는 화창한 풍경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데.ㅋㅋ

1주일 전에 비가 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여긴 거의 천국이에요.

천국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곳 얘기를 전해드리며 편지로 말씀드린 ‘켈로그’ 씨 기억나세요?... 귀통이에 있는 작고 하얀색 교회의 목사님 말이에요.

아 그 가련한 영혼께서 돌아가셨지 뭐예요... 지난 겨울에 폐렴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분이 설교를 맛깔스럽게 하시는 걸 6번은 족히 들은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분의 신학이론에 나름 꽤 친근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분은 이 세상에 그 시작이 있었으니 또한 끝도 있을 거라 믿으셨거든요.

지난 47년 동안을 변치 않고 오로지 그 한 가지 생각을 주변 분들에게 펼쳐오신 분 같았거든요.

하프를 타시며 황금 왕관 얘기를 즐겨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

그런 건 어디서 그렇게 잘도 찾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분이 돌아가시고 새로 너무 활동적이신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이 분은 젊으신데 너무 활동적이라...-_- 설교가 어찌 미덥지가 못해요, 예구. 그 바람에 커밍스(사람이름) 집사님 주도로 교회 내에 파벌 아닌 파벌도 생겼어요.

이러다 이 조그마한 교회가 갈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예요.

젊은 목사님이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걸 이곳 이웃 분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예요.

비가 온 1주일 동안은 다락방에 앉아 독서에 탐닉했습니다(빠져들었답니다).... 거의 대개는 스티븐슨(영국 소설가 이름)의 책들(『보물섬』과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이었지만요.

정말이지 독자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책에 빠져 신나할 수 있을 지를 아는 작가 같았어요.

실감나는 주인공들도 잘 만들어냈고요.

아세요? 스티븐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으로 1억 원(원문→1만 달러)을 남겨주셨는데요, 글썄 스티븐슨은 이 돈으로 요트를 한 대 사서는 남태평양으로 항해를 떠났데요, 아셨나요?

이후 줄곧 모험 지상주의라는 자신의 신조를 지키며 살았대요.

만약 저희 아빠가 제게 1억 원을 남겨주셨담, 음 ㅋㅋ 저도 역시 그렇게 했을 거 같아요, 바다로의 항해요~

‘베일리마’(=스티븐슨의 집 이름. 『보물섬』의 작가 스티븐슨은, 38살에 영국을 떠나 남태평양의 사모아섬에 베일리마라는 집을 짓고 살았음)에 대한 생각이 저를 흥분시켜요.

▼ 네이버 지도 (검색어 = 사모아 섬의 베일리마 강)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13.8427084,-171.7658487&zoom=10&size=886x415&sensor=false&markers=-13.8427084,-171.7658487&client=gme-nhncorp&signature=-7OlsIw3S8GXxF3y9fJ5n0j1CG8=&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0 (검

색일자 : 2016-6-27)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13.8427084,-171.7658487&zoom=2&size=886x415&sensor=false&markers=-13.8427084,-171.7658487&client=gme-nhncorp&signature=nPaLLub6xXnSXaMoOzz52-inyak=&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0 (검

색일자 : 2016-6-27)

왜긴요? 열대지방을 보고 싶어서죠.

아니 전 세계를 보고 싶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저도 여행을 나설 거예요... 정말예요, 아빠, 제가 성공한 작가 되어 돌아오면, 아니 작가로 성공 못하면 화가나 여배우나 연극배우나... 기타 뭐 어떤 종류의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 돌아오던 간에.

저도 끔찍이도 방랑벽(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함)을 지니고 있거든요.

지도만 봤다하면 당장 모자와 우산을 챙겨 떠나고 싶은 걸요.

“남해의 영웅으로서 생을 마치기 전까지 절 못 보실 걸요.”

(아래의 글은, 여주인공이 상상해서 만든 신문기사임)

신문제목 : 목요일 저녁 땅거미를 바라보며 그녀는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신문기사 : 최신 속보! 최근 철학 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 일상의 평범함 속에 함몰되는 대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루어보길 원했던 그녀. 자 그녀에 대한 최신 소식이 탐난다면 여길 보시라.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72.png> (검

색일자 : 2016-6-27)

(원문에 있는) 그림제목 : 9마리 어린 돼지들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 인터뷰 기사 : 지난주 화요일 9마리의 어린 돼지들이 시내를 걸어서 건너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8마리만 돌아왔죠.

누굴 타하는 건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이 죽고 홀로 된 ‘도트’(여자인름) 여사의 집에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는 것은 누구 공이죠.

(아래의 글은 여주인공의 상상 속 신문기사 계속임)

위버 씨(위버=‘베를 짜를 사람’. 베=피륙=옷)가 자신의 헛간과 두(2) 창고를 밝고 노랑 호박색으로 칠했습니다. 아주 그냥 디자인 감각 최악의 선택이었죠. 위버 씨 말론, 이번 페인트 칠로 건물의 표정이 달라졌다 말하고 있네요.

브루어(브루어=‘맥주 양조업자’) 씨 부부가 지난주에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브루어 부인의 여동생과 두(2) 조카들이 오하이오(미국 동북부의 주) 주에서 왔답니다.

▼ 네이버 지도(검색어 = 오하이오 주)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0.4172871,-82.907123000000001&zoom=4&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0.4172871,-82.907123000000001&client=gme-nhncorp&signature=5gEs_HLRA7uCbVQg7nyt2_ocTSw=&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

=149.0 (검색일자 : 2016-6-27)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73.png>

그림제목 : hen with three chicks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73.png> (검색

일자 : 2016-6-27)

(원문에 있는) 그림제목 : 암탉과 병아리 세 마리

저희 집(여주인공의 집) ‘로드아일랜드 레드’(=미국산 닭 이름. 사진링크 ▶ <http://me2.do/xjrGICZ3>)가 낳은 15개의 달걀 중에서 세 개‘만’ 부화해 병아리가 3마리만 태어났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상상이 안 되네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 ‘로드아일랜드 레드’(미국 닭 이름)가 순종이 아니었지 않나 싶어요.

이래서 제가 누런색 ‘오펙턴’(몸집이 큰 영국 닭. 사진링크 ▶ <http://me2.do/xFkmcePh>)을 선호한 거예요.

(아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주인공의 편지내용임)

왜, 보니릭(주소이름) 네거리에 있는 우체국 있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직원이 글썄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던 ‘자메이카산 생강주(=엑기스?)’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버렸데요… 세상에 7만 원(원문→7달러)짜리라던데… 이 직원은 퍼질러 자고 있었다네요.

늬은 ‘아이라 해치’(농장의 일꾼이름. ‘아이라 해치’는 이 소설이 출간되기 3년 전에 죽은 모르몬교의 유명한 선교사이름임)가 류머티즘(관절이나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병)에 걸려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막상 젊을 때 월급을 많이 받을 때도 저축을 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마을사람들이 조금씩 그의 생계를 도와주고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아이스크림 사교모임’(자선모금 행사. 다음Daum 영어사전 링크 ▶ <http://me2.do/GSwYrgUg> . ‘채트리 오맘쫌’님의 블로그 링크 ▶ <http://me2.do/Fm8JZOMw>)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일 예정이에요.

우체국에서 2천 5백 원(원문→25센트)을 주고 새 모자를 하나 구입했어

요.

그리고 이건 제 최신 사진이에요, 건초(건초용 풀)를 갈퀴로 긁어모으고
있다 찍힌 사진이에요.

점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인지 글자가 잘 안보여요.

이것으로 농장 소식은 다 적었어요.

잘 자요,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
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75.png> (검색

일자 : 2016-6-27)

(원문에 있는) 그림제목 : 이따만 하계 큰 새 모자를 쓴 주디(주디는 여주
인공의 애칭임)

(19세. 대학교2학년. 8월 10일에 보낸 편지 3통 중, 1번째 편지 끝)

(8월 10일에 총 3통 보냄)

(3통 중 '2'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여름방학)

(입학 후 33번째로, 8월 10일에 총 3통을 보냄)

금요일.

좋은 아침~!

몇몇 소식이 있어요~!

뭘까요?

지금 누가 <록 월로우 농장> (록=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로 오기로
되어있는지 아저씨께선 상상에 상상도 못 하실 겐요.

펜들턴 씨(=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 펜들턴은 뉴욕 최고의 가
문들 중 하나로 소설 속에 나옴)로부터 샘플 부부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요,

그 편지엔 펜들턴 씨가 자동차여행 중이라 ‘버크셔’(영국의 버크셔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버크셔. 어디인지는 모르겠네요? 쏘오리~)를 지나갈 건데 피곤할 거니 아늑한 농장에서 좀 쉬었음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샘플 부인께서는 한밤중 언제든 저비스 도련님(=펜들턴 씨)이 현관 계단에 나타나신다면 대환영해줄 용의가 있으시네요.

아마 그가 1주일을 머무시건 아님 2주일이나 3주일을 머물게 되든지 간에, 여기 들리신다는 게 세상에 어디예요. 저희는 최고의 휴식을 제공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을 날 것 같아요!

아치부터 대청소를 하고 있어요, 커튼들도 죄다 빨고 있고요.

특히 저는 오늘 아침에; 바로 네거리로 차를 몰고 나가 손님용 새 식탁보를 샀고요, 복도 바닥과 집 뒤쪽 계단 바닥에 칠할 갈색 페인트도 2통 샀어요.

도드 부인(남편이 죽고 홀로 살고 있는 여성)이 내일 와서 창문 닦는 걸 거들어주기로 했어요. 사실 도드 부인은 저희 농장의 돼지 새끼 한 마리를 훔쳐간 유력한 용의자잖아요, 그런 분에게조차 도움을 청했으니 지금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 손님을 맞게 되었는지 아시겠죠. 췌췌하게 지금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문제인가요.

이와 같이 부산을 떨고 보니 지금은 집에 먼지 한 톨 없다고 확신하셔도 좋아요.

정말이에요!

샘플 부인(샘플 씨 부부는 저비스 도련님에게서 농장을 받은 부부이름임)의 최대 장점이자 최대의 단점이 바로 영락없는 ‘가’‘정’‘주’‘부’시란 거거든요.

하지만 펜들턴 씨(=저비스 도련님)가 어지간해야 말이죠, 그쵸 아빠?

오늘 현관 계단을 밟으며 오실지 아님 오늘로부터 2주일 후에 도착하게 되실지 힌트 비슷한 거라도 안 주셨지 뭐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완존 숨죽이며 그가 나타날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왜냐면 좀 천천히 오실 거라면 집 대청소를 다시 할까 논의 중이거든요.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77.png> (검

색일자 : 2016-6-28)

(원문에 있는) 그림제목 : 익숙한 길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아마새’(농장 일꾼이름임. ‘아마새’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기도 함. 이름 뜻은 ‘무거운 짐진 자’임)가 ‘그로버’(나이 많은 말 이름. 다리를 심하게 절뚝 거림)와 4륜(=바퀴 4개) 짐마차와 함께 아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혼자서 4륜 짐마차를 끌고 오긴 했는데… 익숙치 않아서 그만, 뛰니 뛰니 해도 익숙한 길이 제일 안전한 거 같아요, ㅋㅋ 제 안전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되요.

내 심장에 손을 얹고서(←오래도록 만나고 싶다는 애정의

표현임)…안녕히.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추신.

이 마지막 인사 괜찮죠? 스티븐슨(『보물섬』을 쓴 영국 소설가. 생애 1850~1894년)의 편지들에서 뽑은 문구예요.

(19세. 대학교2학년. 8월 10일에 보낸 편지 3통 중, 2번째 편지 끝)

(8월 10일에 총 3통 보냄)

(3통 중 ‘3’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여름방학 중)

(입학 후 33번째로, 8월 10일에 총 3통을 보냄)

토요일.

좋은 아침 한 번 더~!

이 편지를요 어제 밤에 편지봉투에 넣었는데 ㅋㅋ 글쎄 우체부 아저씨께서 도착하시지 않으셨지 뭐예요, 그래서 몇 자 더 추가하려고요.

농장에 도착하는 편지가 보통 낮 12시에 하루에 한 통 씩 있어요.

시골이다 보니 우편물이 도착할 때면 경사도 이런 경사도 아니에요!

시골의 우체부 아저씨는 단순히 편지만 전달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시골 사람들을 위해 읍내에까지 심부름도 손수 해주세요. ㅋㅋ 물론 저희도 그냥은 부탁 안 드리고 심부름 1건당 5백 원(원문→5센트)씩 드려요.

어제는 우체부 아저씨께서, 제가 전에 부탁드린 구두끈 몇 개와 콜드크림(=화장품) 한 병을 사다주셨어요.

코 이쪽으로 해서 햇볕에 다 탔지 뭐예요, 뭐 물론 지금은 새 모자가 있어 다행이지만요.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가 사다준 제 목록으로는, 검은 비단으로 된 폭이 넓은 넥타이 하나와, 천 원짜리(원문→10센트) 검정색 구두약 한 병이 있어요.

다 엄청 싸게 산거예요, 한꺼번에 제가 많이 부탁해서 그래요. ㅋㅋ

우체부 아저씨는 저희들에게 바깥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들려주세요.

며칠 지난 신문을 가져다주시는데 그럼 몇몇 마을 분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보세요, 아님 우체부 아저씨께서 소리 내 신문을 읽어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저희 마을에서 신문구독을 하지 않고서도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혹시라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경우나, 대통령께서 암살을 당하실 경우나, 아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ㅋㅋ 록펠러 씨(당시 73세. 미국의 석유 재벌이름. 록펠러 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기부로 유명한 이 당시 미국의 유명 기업인들은 살아생전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 모아서 동시대인들 사이에서 악명을 떨쳤음)께서 〈존 그리어 고아원〉(여주인공이 다닌 고아원이름)에 100억 원(원문→백만 달러)을 기부하신다는 얘기가 있을 때 유용해요. 혹시 아나요 정말 기부하신단 얘기를 듣게 될지 말예요.

그런데 어째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은 코빼기도 안 보이시네요.

언제 오실런가.

어쩔까요? 아저씨도 저희가 집청소를 새로 다시 하길 원하시나요... 왜 있잖아요, 침대에 들기 전 발을 다시 닦고 싶으실 때 말예요 지금이 그래요!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이 얼른 오셨음 좋겠어요.

사실은 샘플 부인(종교적으로 개신교임. 여주인공은 가톨릭교에 가까움)과 얘기하는 게 나름 좀 단조로워서요.

좋은 분이시긴 한데 생각의 나래를 펼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게 이곳 분들의 기묘한 부분이에요.

이곳 분들에겐 그냥 언덕이 다예요.(농장 주변으로 언덕들이 많은 곳임)

세상과 원체 소통이 없다 보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단조롭다는 게 〈존 그리어 고아원〉과 너무도 일치해요.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도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없었거든요, 사방에 철제 울타리를 뚝뚝 둘러쳐져 있어서요, 어리고 바쁠 땐 그게 그리 불편하진

않았어요.

어릴 땐 그냥 자고 나면 침대 정리하고 아이들 얼굴 씻겨주고 학교 갔다
고아원에 되돌아와 다시 아이들 얼굴 씻겨주고 양말 껴매주고 ‘프레디 퍼킨
스’(여주인공과 같은 고아원의 소년. 이름 알 필요 없음. 다시 안 나오는 이
름임)의 바지를 수선해주면 다였는데, 애들이 매일 같이 양말과 바지를 찢어
놓아서 그건 좀 힘들었지만요. 물론 이 모두를 저도 제 학교 공부하는 틈틈
이 할 수 있었고요...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도 잠자리에 들면 되었고요, 이
땐 참 대화의 부족이라든가 사회적 교류의 필요성 이런 걸 의식하진 못했는
데.

하지만 이젠 대학 생활도 2년이나 했고 제 또래의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한 뒤라, 모든 게 그리워요, 정말로요.

누군가 저와 같은 언어로 잠시만이라도 대화를 나누어주었음 좋겠어요.

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편지를 끝마쳤어야 했는데.

걱정 말아요 아빠 아무 일도 없으니까요... 다음번엔 좀 더 길게 편지를
쓰도록 할게요.

당신의 한결같은,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추신.

올해 수확(=농작물)은 전혀 좋지 않아요.

아마도 여름 초기에 너무 건조했었나 봐요.

(34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8월 10일에 보낸 편지 3통 중, 3번째 편지 끝)

(입학 후 33번째로, 8월 10일에 총 3통을 보냄)

35장. 키다리 아저씨

(8월 25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1'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입학 후 34번째로, 8월 25일에 총 4통을 보냄)

8월 25일.

짠,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이 여기 계세요, 아빠.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적어도 저에겐 그래요, ㅋㅋ 물론 저비스 도련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ㅋㅋ 그도 역시 좋아하지 않을까요. :)

잠시 머물다 간다더니 한 번 오시고 나서는, 앗 참 오신지 10일 되었어요, 한 번 오시고 나서는 도무지 가신다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ㅋㅋ 재수~

샘플 부인 말로는 원래 남자들이 좀 응석박이래요.

저비스 도련님은 어릴 적에 특히나 더 그랬고요, 그런데 헐~ 이렇게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나시다니.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과 저는 포치(사방의 벽이 뚫려 있는 현관)에 있는 작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님 이따금씩 나뭇가지 아래에서 식사를 해요 그것도 아님... 비가 올 때나 밖이 추울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뭘 응접실만한 곳이 없죠.ㅋㅋ

저비스 도련님이 “오늘은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심 캐리(여자이름. 가사도우미)가 식탁을 들고 종종걸음으로 따라오고요.

그런 다음이면 아무리 그 장소가 밥 먹기에 말도 안 되는 장소일지라도, 캐리(여자이름. 가사도우미)가 멀리에서 접시들을 날라 와야 해요, ㅋㅋ 대신 그녀는 팁으로 설탕 병 아래에 1만원(원문→1달러)을 발견한답니다.

왜 있잖아요, 벳 삼기에 정말 좋은 사람 말예요, 저비스 도련님이 그래요.

뭘 물론 아저씨께서 그를 처음 딱 보면 아니다 싶겠지만요, ㅋㅋ 왜냐면 첫인상은 정말 영락없는 펜들턴(뉴욕 최고의 가문들 중 하나로 소설 속에서 나옴) 가문 출신의 남성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실제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솔직하시고 진실 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남자를 설명하기에 좀 별난 단어들이지만 하지만 실체가 그러세요.

이곳 주변 농부들에게도 엄청 친절하시거든요.

남자들끼리 흥금 없이 대하며 마음을 즉시 터놓게 하는 분이거든요.

농부들도 처음에 다들 괴이쩍어하지만, 나중엔 그의 웃은 신경도 안 쓰세요! (참고사항→농장에서 저비스 도련님은 ‘무릎 아래에서 졸라매는 반바지’를 입고 다님)

저비스 도련님의 복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좀 별나시거든요.

무릎 아래에서 졸라매는 반바지에 주름 잡힌 재킷(옷옷)이거나, 형겔 같은 흰색 바지 위에 부푼 승마복을 입도 다니세요.

도련님이 새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오실 때마다, 샘플 부인은 ‘애가 바로 내가 키운 애야’라는 자부심 가득한 눈빛을 내뿜으며 도련님을 모든 각도에서 감상하신 후 도련님이 앉을 자리를 살피고 또 살피거든요. 샘플 부인 예겐 도련님의 옷에 먼지가 묻는 게 넘 싫은가 봐요.

이게 좀 저비스 도련님을 난처하게 해요.

그래서 항상 도련님은 샘플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리 가요, 리지(엘리자베스라는 여자 이름의 애칭), 일 보시라고요. 저 좀 그만 괴롭히시고요. 저 다 컸다고요.”

정말 생각만 해도 웃겨요, 저토록 다리가 긴 남자가, 앓 그러고 보니 아빠(=키다리 아저씨)만큼 저비스 도련님도 다리가 기네요ㅋㅋ, 저렇게 다리가 긴 남자(저비스 도련님)가 한때 샘플 부인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세수를 당했다는 게요.ㅋㅋ

아저씨께서 샘플 부인의 무릎을 본다면 웃으실 겐요!

무릎은 두 개인데, 턱은 세 개 시거든요.

그런데 저비스 도련님 말로는 샘플 부인이 한때는 엄청 마르시고 날씬하면서도 어찌나 기운차신지 어린 도련님보다도 더 빨리 뛰어다니셨대요.

엄청 많은 모험들을 저희(여주인공과 저비스 도련님)는 즐기고 있어요!

한번은 수 킬로미터 넘어서까지 시골길을 탐험해보았고요, 또 한 번은 깃털을 파리인양 낚시용 미끼로 만들어 낚시도 해봤고요.

아세요, 저 저비스 도련님 덕에 라이플총(=소총)과 연발 권총도 쏘아봤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말인 그로브(다리를 절뚝거리는 나이 많은 말)가 깜짝 놀랄 무게인 제 몸무게 ㅋㅋ... 말 등에 타고 가보기도 했고요.

3일 동안 그로브에게 ‘귀리’(벼와 비슷하게 생김. 사진링크 ► <http://me2.do/xm86yGfK>)만 먹였더니 글썽 망아지(어린 말)를 보고도 수줍어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저를 태우고서 도망칠 뻔 했어요. 헐~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84.png> (검색

일자 : 2016-6-29)

(원문에 있는) 그림제목 : 말

(19세. 대학교2학년. 8월 25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1번째 편지 끝)

(8월 25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2'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여름방학 중)

(입학 후 34번째로, 8월 25일에 총 4통을 보냄)

수요일.

저희는 월요일 오후에 '하늘 언덕'(산 이름)에도 올라가보았습니다.

이 근처 산 이름이에요. 몹시 높은 산은 아니고요 그냥 뭐 아저씨가 가쁜 숨을 쉬면 정상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예요.

산 정상에 눈은 없지만 좀 낮은 경사면엔 수풀산림으로 덮여 있어요. 맨 꼭대기엔 그냥 바위들만 있는 황무지고요.

저희 거기서 해질 녘까지 머물다 불을 피우고 저녁요리도 해먹었습니다.

저비스 도련님이 요리를 했어요.

요리라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과거 한때는 캠핑을 자주 하셨대요.

그러다 달빛을 받으며 내려왔지요, 어두운 산속 오솔길에 다다랐을 땐 저비스 도련님이 호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밝혀주셨어요.

넌 재밌지 뭐예요!

내려오는 내내 재치있는 얘기며 농담이며 재미난 것들을 많이 말해주던걸요.

더욱이 제가 읽었던 책들은 모두 다 읽었던 걸요. 그밖의 책들도 많이 읽었고요.

저비스 도련님이 너무도 생뚱맞은 새로운 사실들을 어찌나 많이 알고 있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여주인공과 저비스 도련님)는 오늘 아침에도 도보여행을 떠났는데 ㄱ ㄱ 그만 폭풍우에 갇혔지 뭐예요.

집에 도착해보니 옷이 다 흠뻑 젖어 있었고요... 폭풍우에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간 상태였죠.

부엌에서 옷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본 샘플 부인의 얼굴을 아저씨께서 보셨어야 하는 건데. :)

“오, 저비스 도련님... 미스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 양! 흠뻑 젖고, 지금 이게! 오 이게! 어쩜 어떻게 한담? 저 좋은 새 외투가 다 망가지고 말았네.”

샘플 부인이 어찌나 웃기시던지. 저희들(여주인공과 저비스 도련님)이 마치 열 살 먹은 악동들이라 괴로운 엄마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지 뭐예요.

다시는 말썽을 피우지 못하게 샘플 부인의 호주머니 속에 저희들이 뽕뽕 들어가는 건 아닌지 잠시 심각하게 걱정했거든요.ㄱㄱ

(19세. 대학교2학년. 8월 25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2번째 편지 끝)

(8월 25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3'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여름방학 중)

(입학 후 34번째로, 8월 25일에 총 4통을 보냄)

토요일.

이 편지 날짜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 두 번째로 고치는 거거든요.

스티븐슨(『보물섬』와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를 쓴 영국소설가. 생애 1850~1894년)의 사상이 참 맛깔스럽지 않나요?

“세상은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우리가 왕처럼 행복해지려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상은 행복으로 가득해요, 행복이 여기저기서 방실 거리고요, 그걸 가지려는 의지만 있음 되요.

방법은 그냥 능청스러워지는 거예요.

특히나, 시골에선, 그런 재미난 게 많거든요.

땅은 어디든 밟고 지나갈 수 있고, 누구든 쳐다볼 수 있고, 시내(물이 흐르는 시내)에서 밭을 물에 담그고 철버덕거릴 수도 있고요, 마치 여기가 제 땅인 양 능청스레 탐닉해도… 누구하다 벌금을 내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래의 점 7개는 원문에 있는 마침표들임. 위의 편지를 쓰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 아래의 편지를 쓴 결과. 생략부호가 생겼음↓)

.

지금은 일요일 밤이에요, 시계가 대략 11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좀 일찍
자면 예뻐질런가 싶지만 ㅋㅋ 저녁에 블랙커피(크림이랑 설탕 안 넣은 커피)
를 마시는 바람에 ㅋㅋ... 미인 되기는 다 걸렸네요~! ㅎㅎ

오늘 아침(=일요일)에, 샘플 부인께서,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펜들턴 씨(=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1시까지 교회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10시 15분인 지금 출발해야 된다니
까요.”

“잘 알아요, 리지(여자이름),”라며 저비스 도련님이 말했죠. “마차만 준비
되면, 제가 옷도 입기 전에, 가버리실 거면서ㅋㅋ.”

“기다린다니까 그러시네요.”라며 그녀가 말했죠.

“좋은 대로 해요,”라며 그가 말했죠, “말(달리는 말)만 바깥에 너무 오랫동안
안 세워두지만 마세요.”

그런 다음 그녀가 옷을 챙겨 입는 동안, 저비스 도련님은 캐리(여자이름.
가사도우미)에게 점심바구니를 챙기게 하신 다음, 제게는 운동복으로 얼른
가라 입으라 말하시곤 ㅋㅋ 그렇게 해서 저희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유유히
წყ시를 하러 갔답니다.

저비스 도련님은 가사도우미 분들을 무척 곤란하게 하세요.

룩(=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농장은 일요일이면 2시에 식사를 하는
데요, 하지만 저비스 도련님은 7시에 먹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드시고 싶
을 때면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식사를 주문하세요.

여기가 레스토랑인 줄 아시나 봐요ㅋㅋ... 그 바람에 캐리(여자 가사도우미)와 아마새(농장의 남자직원)는 마차놀이를 갈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캐리(젊은 여성)의 보호자 분께서 안 계신 상황에서 그렇게 젊은 남녀가 드라이빙을 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편(식사준비 관계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비스 도련님이 말씀하시네요.(당시엔 사교계에 젊은 여성이 진출할 때는 나이 많은 여성이 대동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젊은 여성의 보호자 운운 하셨던 저비스 도련님이 글썽 저보고는 자기와 함께 드라이빙을 가자고 조르지 뭐예요.

이 상황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불쌍한 샘플 부인, 이 분은 일요일 날 교회를 땡땡이 치고 낚시를 가는 사람은 훗날 지글지글 소리를 내는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믿으시는 분인데!

자신이 이렇게 고이 교육시키고 키운 악동 분께서 교회 땡땡이를 밥 먹듯이 하시니 T_T

게다가 오늘(일요일) 샘플 부인이 저비스 도련님을 교회에 뿔내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날이더라고요.

어쨌든, 저흰 지옥불도 아랑곳 않고 낚시를 갔고요, 저비스 도련님은 작은 놈들로 4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고 그것을 요리해 맛난 점심 식사를 했어요.

뽀족한 지팡이에 콧아 불에 구웠는데 뭇 때문인지 잘 구워지지 않아 구운 생선에서 약간 재 맛이 났지만 그래도 저흰 다 먹었습니다.

오후 4시에 농장으로 돌아와 5시에 다시 마차를 끌고 드라이빙을 나갔다가 와서 7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10시에 침대에 들었어요... 지금 제 침대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아 침대 애길 했더니 점점 줄리기 시작하는 데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기 제가 잡은 꼬부기(=바다거북) 그림이에요.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89.png> (검

색일자 : 2016-6-30)

(원문에 있는) 그림제목 : 꼬부기(=바다거북)

(19세. 대학교2학년. 8월 25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3번째 편지 끝)

(8월 25일에 총 4통 보냄)

(4통 중 ‘4’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여름방학 중)

(입학 후 34번째로, 8월 25일에 총 4통을 보냄)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190.png> (검

색일자 : 2016-6-30)

(원문에 있는) 그림제목 : 해적선 깃발

어어이, 이봐 그 배, 선장이 키다리 아저씨라며!

그만둬! 밧줄을 감아! 어어, 야, 저런, 그리고 럼주(사탕수수로 만든 술) 한 병.

제가 방금 읽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것들은 지난 이틀 동안 저희(여주인공과 저비스 도련님) 사이에 오고간 배와 해적에 관한 대화예요.

어때요, 보물섬 같이 재밌죠?

보물섬 읽어보셨어요, 아님 소년이셨을 때 마스터한 책인가요?

스티븐슨(『보물섬』을 쓴 영국소설가. 생애 1850~1894년)은 연재물(=시리즈)에 대한 원고료로 1회당 1천2백만 원(원문→30파운드. 스티븐슨의 생애에 1파운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정도임)을 받았대요... 물론 저는 이 정도 돈이 위대한 작가에 대한 과한 원고료라 생각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앗 죄송해요, 제가 그만 스티븐슨(『보물섬』을 쓴 영국소설가이름) 얘기로 도배를 하고 말았네요.

요즘 그만 그(스티븐슨)에게 너무 빠져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금 제 작업실(=다락방 한 쪽 구석)은 그(스티븐슨)의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2주 동안 이 편지를 적고 있네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길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ㅋㅋ.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아빠,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저씨(키다리 아저씨)도 여기 계셨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건데.

서로 다른 구석이 많은 친구를 알아가는 걸 저는 즐기거든요.

펜들턴 씨(=줄리아의 막내삼촌)에게 아저씨(키다리 아저씨)를 아는지 왜요, 같은 뉴욕에 사시니까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저씨도 고상한 상류층 사교 모임에 가입해 보셔야 해요, 아저씨나 펜들턴 씨나 두 분 다 사회개혁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고... 음 ㅋㅋ 전 아니거든요, 전 아저씨(키다리 아저씨) 진짜 이름도 모르잖아요.

제가 들어본 가장 실없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리셋 원장님(고아원 원장님)께서 경고하시길, 아저씨(키다리 아저씨)는 별나시니 절대 이름을 알려해선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리 생각하지 않으세요! 헐~

심쿵이~♥,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추신.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전부 스티븐슨(『보물섬』을 쓴 영국소설가이름) 얘기만은 아니네요.

하나 또는 둘 정도는 저비스 도련님 얘기인 게 언뜻 보였어요.

(35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8월 25일에 보낸 편지 4통 중, 4번째 편지 끝)

(입학 후 34번째로, 8월 25일에 총 4통을 보냄)

36장. 키다리 아저씨

(9월 10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1'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여름방학 계속)

(입학 후 35번째로, 9월 10일에 총 2통을 보냄)

9월 10일.

사랑하는 아빠,

그(저비스 도련님)는 가버렸어요, 저희는 지금 그 분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생활방식이든 뭔가에 익숙해지고 나서 외락 자기 것으로 낚아채고 나면, 남는 건 마음을 갉아 먹는 공허함(=빈 감정)뿐이에요.

샘플 부인의 대사(말)들이 얼마나 양념 안 된 음식인지(재미없는 말들인지) 다시 알아가고 있어요.

2주일만 있음 개학인데요, 얼른 다시 수업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엔 나름 많은 글을 썼어요… 단편소설 6개랑 시 7편을 썼어요.

이 애들을 잡지사에 보냈는데 ㅏ_ㅏ 어찌나 빨리 결과가 통보되는지 저도 미국의 우편체계에 놀랐을 정도예요.

그래도 전 신경 쓰지 않아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죠 뭐.

이 작품들을 저비스 도련님도 읽어보았거든요… 잡지사에서 반송되어(되돌아) 온 걸 가져 가서 읽어줬지 뭐예요 전 저비스 도련님이 제 글을 읽지도 몰랐어요… 그리곤 제게 한다는 말이 “끔찍 그 자체”라네요. ㅠ_ㅠ 내가 미쳐 정말.

글들이 너무 진지하데요. 실없는 소리가 한 마디도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주구장창 써놓았다네요.

그게 아닌데, 저비스 도련님은 글을 너무 예의바르게만 쓰서 진실을 방해하지 말래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쓴… 제 대학생활을 소재로 한 찝찝한 단편소설요… 이건만은 그리 나쁘지 않았데요.

그래서 저비스 도련님이 그걸 다시 타자기로 써주셨고요, 저는 다시 잡지사에 보내보았답니다.

보낸지 2주일이 되었는데 이번엔 미국우편체계가 엄청 느린 걸로 봐선 잡지사 쪽에서도 엄청 고민 중인가 봐요.

이곳 하늘을 아저씨께서도 보셨어야 하는 건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희한하게 생긴 오렌지 색 빛깔들로 온 하늘이 물들여

있어요.

곧 폭풍이 오려나 봐요.

(아래의 점 7개는 원문에 있는 마침표 7개입니다. 위의 편지와 아래의 편지 사이에 시간 경과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

.

막 시계만큼이나 큰 빗방울들이 덧문이란 덧문을 죄다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뛰어가 창문들을 닫고 오느라 잠시 펜을 놓았네요.

그 사이 ‘캐리’(여자 가사도우미 이름)가 우유 통들을 한 아름 다락방(여주인공의 작업실)으로 가져와 물이 새는 지붕 아래에 놓아두고 갔어요.

그리 하여 막 다시 펜(볼펜)을 들려는 찰나에(순간에) 아 이런 과수원에 있는 나무 아래에 쿠션(방석)과 깔개 그리고 모자와 ‘매튜 아놀드’(여주인공이 좋아하는 영국시인이름. 생애 1822~1888년)의 시집을 놓아두고 온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뛰어가 껌싸게 가져오긴 했는데 이런 다 젖어버렸네요.

시집(매튜 아놀드의 시집)의 빨간색 표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네요.

“장차 ‘도버 해변’(매튜 아놀드의 시 이름임. 변덕스러운 지중해 날씨를 애기하고 있음. 도버 해변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바다’. 아래의 네이버지도 참조바람)은 분홍빛 파도에 씻겨내려 가리라.”

▼ 네이버지도 (검색어 : 도버)

Dover Beach

[해변. 영국과 프랑스 사이]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51.1278758,1.3134027&zoom=6&size=886x415&sensor=false&markers=51.1278758,1.3134027&client=gme-nhncorp&signature=-0uB-krfxQebG2PZKFu-0-uUgzs=&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0 (검색일자 : 2016-7-1)

[도버 : 도시]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51.1278758,1.3134027&zoom=15&size=886x415&sensor=false&markers=51.1278758,1.3134027&client=gme-nhncorp&signature=cToS8dLMQ0y2XIKEMdZfro7QuM0=&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0 (검색일자 : 2016-7-1)

폭우가 너무 내리고 있어요, 이러다 온 시골이 떠내려갈 기세예요.

생각할 게 넘 많아서, 아저씨께 편지를 쓰며 정리해보려 했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네요.

(19세. 대학교2학년. 9월 10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1번째 편지 끝)

(9월 10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2'번째 편지)

(19세. 대학교2학년 ‘2’학기 여름방학 계속)

(입학 후 35번째로, 9월 10일에 총 2통을 보냄)

목요일.

아빠! 아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우체부 아저씨께서 편지 2통을 전해주고 가셨어요.

첫 번째 편지는... 제 단편소설 원고가 받아들여졌다는 거고요. 50만원(원문→50달러)예요.

만세! 이제 저도 작가예요.

두 번째 편지는... 대학교 행정실 직원에게서 온 편지예요.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장학금에는 기숙사비와 식대 그리고 학교 수업료가 포함된대요.

저희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이 주시는 장학금인데, 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국어(영어) 과목 성적이 대단히 훌륭하며, 여타 다른 과목 성적도 대체적으로 우수하여 이 장학금을 수여하게 됨.”라고 적혀 있어요.

아 제가 타게 될 줄이야!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제가 탈 수 있을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1학년 때 성적 특히 수학과 라틴어 과목에서 과락(=기준 점수 미달로 낙제)을 맞은 경험이 있는 저로선 더더욱요.

제 손으로 이제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몹시 기뻐요, 아빠, 이젠 아빠에게서 돈을 후원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학비에서 자유로워지면 이제 아저씨가 매월 주시는 용돈까지도 제가 작품을 팔거나 아님 개인교습을 해주거나 기타의 방법들을 통해 제 손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얼른 학교로 돌아가 수업 받고 싶어 까무러칠 지경입니다.

당신의 한결이,

체루샤 에벳(여주인공의 실명)이,

곧 모든 신문가판대(판매대)에서,

1천원에 판매하게 될,

『2학년생들이 운동회에서 우승하던 날』(여주인공이 쓴 짧은 단편소설)의
저자로부터.

(36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9월 10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2번째 편지 끝)

(입학 후 35번째로, 9월 10일에 총 2통을 보냄)

37장. 키다리 아저씨

(9월 26일에 총 1통 보냄)

(20세. 대학교3학년 '1'학기)(미국은 9월이 1학기임. 우리와 학년의 시작이 반대임)

(입학 후 36번째로, 9월 26일에 총 1통을 보냄)

9월 26일.

키다리 아저씨께,

학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한 학년 더 올라 3학년이에요.

올해 수업은 좀 수월할 거 같은데요... 거대한 창문이 두 개나 나 있는 남향 강의실이거든요... 그리고 사물함도 좋은 걸로 있어요, 오호 통재라!

용돈이 무제한인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에. 20세. 대학교3학년)는 개학 이틀 전에 미리 도착하는 바람에 몇 일간 친구들이 도착하길 초

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저훤(여주인공과 줄리아) 새 벽지와 인도산 용단들 그리고 ‘멀구슬나무’(사
진링크▶ <http://me2.do/FD5HxV5b>)로 만든 의자를 배정받았는데요… 작
년에 이미 멀구슬나무를 만족하게 사용했던 터라 의자에 새로 페인트칠은
하지 않았어요.

정말 멋진 의자예요, 그치만 과연 제가 이렇게 비싼 의자를 사용해도 되는
지 의문인지라...

그리고 잘못해서 잉크 방울이라도 떨어뜨릴까 안절부절 하거든요.

아빠, 기숙사에 도착해서 제게 보내신 편지를 발견했어요… 아, 뭐가 잘못
된 거죠… 제 말은 아저씨의 비서분 말이에요.

왜 제가 장학금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좀 더 이해가능 한 이유를 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셨던가요?

왜 반대하시는지 저로선 조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 어쨌든, 반대하셔도 소용없네요 뭐, 왜냐면 제가 이미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다시없는 기회잖아요!

버릇없이 구는 게 아니라, 저도 빈 말은 아니었어요.

아저씨가 제 대학교육을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적어도 제가 대학
학위를 받는 기간까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거 아녜요.

이번엔 제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보세요.

전 제 학비를 아저씨께 빚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갚을 돈들이잖아요, 그
러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도움을 받고 싶어요.

물론 저도 잘 알아요, 아저씨께선 도움주신 돈을 제게서 돌려받길 원치 않
으시리란 것을 말예요, 하지만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요, 제 쪽에서 더
돌려드리고 싶은 걸요, 물론 그게 가능하다면요.

그러니 지금 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제게 주신 도움을 갚는 게 더 쉬워지
않아요.

제가 졸업 후 평생 부채(빌린 돈)들을 갚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꼴을 보고
싶었던 건가요, 하지만 지금(여주인공은 현재 대학교 3학년임) 장학금을 받
게 되면 그 나머지 인생 받을 버는 거잖아요.

제 처지를 좀 고려해주세요 차마 입장 바꿔 생각해보란 얘기까진 안 드릴
테니까요.

매월 용돈은 계속 고맙게 받을 거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20세. 대학교3학년)와 그녀의 가구들
과 비슷하게라도 생활하려면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저도 줄리아가 돈 좀 그만 썼음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 애가 제 룸메
이트(한 방 사람)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 편지는 변변치 못해요. 많이 쓸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4개 창문의
커튼들과 3개의 문에 갇혀, 제가 지금 바느질 한 길이를 아저씨가 못 보셔서
기빠요, 그리고 가루 치약으로 황동(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된 책상의 윤
기를 내고 있는데 넘 힘들어요 ㅠ_ㅠ, 그리고 매니큐어 손질하는 가위로 그
립액자를 자르고 있었어요.

믿겨지지 않아요,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의 실명. 제루샤=이름. 에벗=성
씨)이 그녀의 옷가지들로 가득 찬 여행 가방 두 개의 소유자라니!

작업 중간 중간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는 정든 50명의 친구들도 맞아들이
고 있습니다.

개학날은 언제나 기빠요!

잘 자여, 사랑하는 아빠, 당신의 빼악이(원문→병아리)가 스스로 할퀴고 있
다고 속상해하진 마세요.

꼬꼬 우는 결연한 목소리와 예쁘고 많은 깃털을 지닌... 몹시 에너지 넘치는 어린 암탉으로 자란 걸요.

모두 아빠 덕분이예요.

심쿵이~♥,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가.

(37장 끝)

(19세. 대학교2학년. 9월 26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36번째로, 9월 26일에 총 1통을 보냄)

38장. 키다리 아저씨

(9월 30일에 총 1통 보냄)

(20세. 대학교3학년 '1'학기)

(입학 후 37번째로, 9월 30일에 총 1통을 보냄)

9월 30일.

사랑하는 아빠에게,

왜 아직도 장학금 타령이세요?

이렇게 고집 세고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집요하고 황소고집에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분은 생전 처음 봐요. 아저씨 말예요.

제가 왜 다른 분(졸업한 대학교 선배들의 장학금)들에게선 호의(장학금)를 받으면 안 되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다른 분이러니요!... 어떻게 저희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이 다른분이란 거죠?

그분들(졸업한 선배들) 말고 저와 관계있는 분들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된다고 그러세요?

아저씨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거리에서 아저씨와 마주치면 제가 아저씨를 알아볼 수 있거나 한가요.

자, 보시라고요, 아저씨께서 생각이 있으시고 사리분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가련한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에게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심 안 되었어요, 힘내라 기운내라 뭐 이런 아빠같은 편지를 보내며 제 머리를 토닥여주고 네 생각이 기특해 기뻐한다는 편지를 썼어야지요... 제가 언제 아저씨 나이 많다고 놀리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아님 제가 공손한 딸이 되길 바라는 아저씨의 바람을 차버리기라도 한다는 말인가요.

정말 낮서네요! 혹시 아저씨는 겉으로만 착한 체 하며 거짓을 꾸미는 사람인가요, 스미쓰 씨.(키다리 아저씨가 고아원 원장님을 통해 여주인공에게 알려준 자신의 가명(가짜 이름)이 존(이름) 스미스(성씨)임)

더욱이, 이건 호의가 아니라고요, 이건 상과 같은 거란 말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번거요.

모두가 국어(영어) 성적이 좋다면, 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할리가 없잖아요. 몇 년이고 수여하지 않을 걸요.

또한... 아저씨랑 다투는 게 뭘 소용이 있단 거예요?

스미스 씨(키다리 아저씨의 가명), 아저씨의 말엔 이성에 대한 미묘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어요.

보조를 맞추려면 두 가지 방법뿐이네요. 아저씨가 저를 달래든가, 아님 제가 아저씨 마음에 더 들지 않든가.

아세요, 전 제가 바라는 걸 막는 사람이 싫어요. 그러니 이 경우엔 그냥 제가 아저씨 마음에 안 들고 말래요.

장학금을 포기하라는 아저씨의 말씀을 정중히 거절하는 바입니다.

자꾸 이렇게 안달복달 못하게 만드실 거면, 매달 주시는 용돈을 제가 안 받을 거예요, 어느 바보 같은 새내기(1학년)들에게 개인과외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신경쇠약자로 만들고 말거예요.

이게 바로 저의 최후통첩(마지막 발언)입니다!

들어보세요... 망금 좀 더 생각해봤는데요.

아저씨께서 제가 이 장학금(졸업 선배들이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 여기시며 그리도 꺼려하신다면,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아저씨가 제게 주시는 그 돈들을 이제부터 〈존 그리어 고아원〉(여주인공이 나온 고아원이름)의 다른 새 여자아이를 교육시키는 데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꽤 팬찮은 해결책인거 같지 않나요?

그럼 됐죠, 아빠, 새로 학생을 선발해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래도 부디 그 아이를 저보다 더 좋아하진 마시고요.

편지에서 제안한 바에 대해 제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아저씨의 비서 분께서 마음 상해하지 않았음 해요. 그리 믿어요.

하지만 비서 분께서 마음 상해하시더라도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아빠 비서 분은 응석박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 분의 일시적 기분에 신경쓰 답을 했다면, 이번만은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예요.

가식 없는 세상에서,

완전무결 하고픈,

마음가짐을 가진,
당신의,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의 실명)이.

*이 부분에 사진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사진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lateIII.jpg> (검색

일자 : 2016-7-3)

(원문에 있는) 사진제목(친구와 찍은 사진임) : 줄리아, 샬리, 저비스 도련님과 여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주디(여주인공)의 사진 (사진 속에서 가장 키가 작은 여인이 여주인공임)

사진 아래 설명 : “제가 아는 분들끼리 서로 인사시켜드리는 게 저는 좋아

요.”

(38장 끝)

(20세. 대학교3학년. 9월 30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37번째로, 9월 30일에 총 1통을 보냄)

39장. 키다리 아저씨

(11월 9일에 총 1통 보냄)

(20세. 대학교3학년 '1'학기)

(입학 후 38번째로, 11월 9일에 총 1통을 보냄)

11월 9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시내에 들러, 검은 구두약 한 병과, '칼라'(목 부분의 옷?) 몇 개와, 새 블라우스(옷)에 사용할 재료와, 보라색 크림 한 병과, 천연비누 한 개를 사 왔어요... 모두 꼭 필요해서 구입한 거니 걱정마세요~

애네들 없으면 하루도 행복하게 지낼 수 없는 물품들이거든요... 그건 그거고, 버스요금 내려고 보니 깜빡하고 다른 외투 호주머니 속에 지갑을 놓아 두고 왔지 뭐예요.

그래서 내려 다음 버스를 잡아야했어요, 그 바람에 체육 시간에 좀 늦었어요.

참 끔찍하지 않나요, 세상에 외투가 두 개인 걸 기억 못하다니!

‘줄리아 펜들턴’(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에. 20세. 대학교3학년)이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 때 저를 초대했어요.

꽤 충격적인 소식이죠, 스미스 씨?(키다리 아저씨의 가명이 ‘존 스미스’임. 존=이름. 스미스=성씨)

부자집 식탁에 앉아 있을 〈존 그리어 고아원〉 출신의 ‘제루샤 에벗’(여 주인공 진짜이름. 제루샤=이름. 에벗=성씨)이 상상이 가나요.

글쎄요, 줄리아가 왜 저를 좋아할까요 아 정말 모르겠네... 최근 부쩍 저와 붙어다니려고 하지 뭐예요.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전 줄리아 네 보단 썰리 네 집에 가고 싶은데, 양 _T _T 줄리아가 먼저 저를 초대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스터’(도시이름. 친구인 썰리의 집임. 아래 네이버지도 참조바람) 대신에 뉴욕에 가게 되었어요.

▼ 네이버지도(검색어 : 우스터)(친구인 썰리의 집)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2.2625932,-71.8022934&zoom=7&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2.2625932,-71.8022934&client=gme-nhncorp&signature=aQ11URmLrjK0n7HXXH94wqMjFKAk=&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0 (검색일자 : 2016-7-3)

펜들턴 가 사람들을 (프랑스어로→) 단체로 (다시 영어로→) 만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경외감이 살짝쿵 든답니다.

그러려면 새 옷도 많이 장만해야 하는데... 돈이 T_T 그래서 말인데요, 사랑하는 아빠, 만약 제가 뉴욕에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제게 조용히 학교에 머물며 지내라고 말씀해주신다면, 이번만은 제가 아저씨 말을 잘 듣는 어린 양으로 변신해드릴게요. 냇?

『토머스 헉슬리의 삶과 편지들』이란 책을 읽으며 나름 좋은 기분 전환을 하고 있어요. (토머스 헉슬리는 영국의 동물학자이름임. 『키다리 아저씨』가 출간되기 17년 전에 돌아가심. 토머스 헉슬리 사진 링크 ▶ <http://me2.do/xwa7A6Pb> . 네이버캐스트 인물세계사 ‘토머스 헉슬리’ ▶ <http://me2.do/GznGTbwO>)

읽고 보니 팬찮은 책 같아서 톼툼이 집어 들고 읽고 있어요.

시조새가 뭔지 아세요? (시조새 사진링크 ▶ <http://me2.do/5QThbDLJ> ← 이 사진과 함께 징그러운 사진들이 함께 검색되니 클릭 시 주의바람) 새라네요.

굳센 턱이란 뜻이래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빨을 지닌 ‘새’와 양 날개를 가진 ‘도마뱀’ 사이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새 같다네요.

아니, 새도 도마뱀도 아직은 아니고요.

그냥 책에 나와 있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중생대 포유동물이었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이번 글은 본문이 아니라, 본문의 그림 속에 있는 문장을 해석해보았습니다. 본문아님. 그림설명임)

*이 부분에 그림(=시조새=새의 조상)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205.png> (검

색일자 : 2016-7-3)

그림 속 문장들 :

(왼쪽 위)

이것은 현존하는 시조새의 유일한 사진입니다.

(오른쪽 아래)

시조새는 뺨을 닮은 머리와, 개를 닮은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암소를 닮은 발과, 도마뱀을 닮은 꼬리,

백조를 닮은 날개와,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가 야옹이 같은,

예쁘고 보드라운 털을 온 몸에 가지고 있었어요.

올해 선택과목으로 경제학을 선택했어요.

전도유망한 과목이죠.ㅋㅋ

이걸 마치고 자선 단체나 사회 개혁 관련 단체에 참여해보려고요.

그럼, 평의원 분들처럼, 저도 고아원이 어떻게 운영되어야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제(=여성)게 참정권(공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진다면 유권자들도 구워 삼을 것 같지 않으세요?ㅋㅋ

지난 주(11월 2일)부로 저 21살이에요.(그동안 여주인공 나이를 1살씩 적게 계산했네요. 지금까지 잘못 적은 건 그대로 두고, 앞으로 21살로 고치겠음)

이렇게 정직하고 교양 있고 성실하며 지적인 시민(=여주인공)에게 정치참여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몹쓸 나라인가요.(미국이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건 이 소설이 출간되고 8년 후인 1920년부터임)

안 그래요, 아빠?

당신의 언제나이고픈,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39장 끝)

(20세. 대학교3학년. 11월 9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38번째로, 11월 9일에 총 1통을 보냄)

40장. 키다리 아저씨

(12월 7일에 총 1통 보냄)

(21세(-_-...다시 생각해봤는데 그동안 나이계산 맞게 한 거 같은데...왜 원문에서 갑자기 21살이라고 하지-_-;; 아 내가 더 헛갈리네). 대학교3학년 ‘1’학기)

(입학 후 39번째로, 12월 7일에 총 1통을 보냄)

12월 7일.

키다리 아저씨께,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21세. 대학교3학년) 네 방문하는 거 허락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침묵의 동의로 받아들일게요. :)

저흰 요즘 사교 모임에 휘말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일 기념 댄스파티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저희 학년(3학년 1학기)이 댄스파티에 참여한 첫 번째 년도예요.

상위 학년(3학년, 4학년)들만 댄스파티 참가가 허락되거든요.

저는 ‘지미 맥브라이드’(샬리의 큰 오빠)를 초대했고요, 샬리는 프린스턴(대학교이름)에 있는 지미의 룸메이트(동숙인)를 초대했어요. 지미는, 사실 작년 여름에 저희들(여주인공과 샬리)들을 캠핑장에 초대했었던 바로 그 오빠예요. 붉은 머릿결을 한 정말 멋진 오빠죠.ㅋㅋ

그리고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에. 21세. 대학교3학년)는 뉴욕에서 어떤 남성 한 분을 초대했는데 재밌게 놀지는 않았지만 나름 흠잡을 데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치체스터파’(당시 뉴욕의 범○조직들 중 하나의 이름)의 대부वाद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던데. 헐. 혹시 아저씨(키다리 아저씨)도 그런 거 아니겠쥬? 절대 그런 돈으로 저를 도우시면 안돼요.

여하튼... 저희 손님들은 금요일 오후 제 때에 도착하셔서 4학년생들 복도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러더니 저녁식사 때가 되니 후다닥 호텔로 가시던데요.

호텔 당구대 위에는 줄지어 잠을 청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그리고 ‘지미 맥브라이드’(샬리의 큰 오빠)가 말하기를,

“내가 이 꼴 날 줄 알았지. 다음번 여대 사교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되면, 내 반드시 인디언(원문→아디론택족.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의 텐트를 빌려다가 캠퍼스(대학교) 한 복판에다 텐트 치고 자리라.”

7시 30분(저녁)에 남자 분들이 다시 돌아와 총장님 환영인사와 춤을 추었습니다.

ㅋㅋ 저희들은 미리 다 준비했죠!

사전에 작성해놓은 남자들 명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춤추고 나면, 남자들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첫 글자 별로 모이게 했거든요, 그 바람에 여자들은 다음 댄스 파트너로 쉽게 지목될 수 있었어요. :)

예를 들면, ‘지미 맥브라이드’(샬리의 큰 오빠)는 차례가 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ㅁ’(맥브라이드의 ‘ㅁ’)자 아래에서 서 있었어요.

다만 참을성 있게 서 있어야 하는데 방향을 잃곤 ‘ㄷ’자와 ‘ㅈ’자 아래의 사람들과 뒤섞이더니 나중엔 모든 성씨와 다 뒤섞이지 뭐예요. T_T

참 처치곤란한 손님이죠 이 오빠 말예요.

저하고만 내리 세 번을 춤을 춰서 좀 얼굴이 실췌해있더라고요.

뭐라더라 ㅎㅎ 자기는 모르는 여자애들이랑 춤을 추는 게 부끄럽데요! :)

다음 날 아침에 저희의 무반주 합창이 있었어요... 하하 이런 경우 누가 이 웃긴 새 곡을 작곡하리라 생각하세요?

당근, 저죠. ^^

네, 맞고요, 제가 작곡했어요, 아빠, 아빠가 주어다 후원하고 있는 아이는 이렇게 쑥쑥 걸출한 인재로 자라고 있습니다! :)

어쨌든, 저희의 즐거운 이 이틀은 대단히 즐겁게 막을 내렸고요, 제 생각에 남자들도 즐거웠을 거 같아요.

하긴 남자들 중 몇몇은 천 명이나 되는 여학생들을 마주하곤 처음엔 심하게 당황하긴 하더군요.ㅋㅋ

하지만 곧 익숙해지던데요.

샬리와 제가 초대한 두 프린스턴(대학교 이름) 남자들도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즐거웠다고 말해주는 예의를 둘 다 가졌던데요, 내년 봄에 학교(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댄스파티가 있을 건데 저희(샬리와 여주인

공)를 꼭 초대해주겠다네요.

그래서 저흰(샬리와 여주인공)은 당장에 승낙했죠,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빠.

줄리아(친구이름)와 샬리(친구이름)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은 새 드레스를 장만했어요.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죠?

줄리아가 산 드레스는 ‘핑크 크림새틴 드레스’(사진링크 ▶ <http://me2.do/GwkttSGn>)와 ‘자수용 금실 드레스’(사진링크 ▶ <http://me2.do/FvY33QE7>)였어요.

그래서 마치 ‘자주색 연꽃’(사진링크 ▶ <http://me2.do/GqtGG941>)을 입은 거 같더라고요. 파티에서 막 돌아온 것 같은 꿈같은 드레스였죠. 가격이 자그마치 백만 원(원문→백만 달러)~ 헐~

샬레가 산 드레스는 ‘페르시아(=이란)산 자수로 수를 놓아 장식한 옅은 색 깔의 블루 드레스’(비슷한 사진링크 ▶ <http://me2.do/xBqdd7O4>)였어요. 그치만 그녀의 붉은 머릿결 덕에 전체적으로 옷이 화사하게 아름답던 걸요. 이 드레스는 백만 원(원문→백만 달러)엔 훨씬 못 미치지만 입은 후의 느낌이 효과 만점이라 줄리아의 드레스 만큼이나 좋아보였어요.

제 건 베이지 색 레이스와 장미 새틴으로 수를 놓은 옅은 핑크빛 ‘크레이프 드 신(=비단 크레이프. 크레이프 드 신 드레스 사진링크 ▶ <http://me2.do/G9jQQivH>)’예요.

그리고 ‘지미 맥브라이트’(샬리의 큰 오빠이름)가 보내준 산뜻한 붉은 빛깔의 장미를 옷에 달았답니다. 제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샬리가 지미(샬리의 큰오빠)에게 말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모두는 파티 때 ‘수자(=새틴)로 만든 구두’(비슷한 사진 링크

▶ <http://me2.do/xO8ttzWv>)와 비단 스타킹과 ‘모슬린 스카프’(비슷한 사진 링크 ▶ <http://me2.do/FJZMMs9z>)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

이러한 섬세한 디테일들에 깊은 감동을 받으셔야 해요!

생각을 안하려면 안할 수가 없는 게요, 아빠, 남자들은 색에 다급해하지 않잖아요, 모슬린(얇고 보드라운 모직물)이니, 베네치아산 바늘로 뜬 레이스니, 손으로 놓은 자수니, 아일랜드산 코바늘로 뜬 뜨개질이니 하는 말들에 그냥 담담하게 반영하잖아요.

반면 여자들은, 상대가 아기든 동물이든 남편이든 시인이든 가사도우미이든 수학 선생님이든 정원사이든 철학자든 일꾼이든... 기본적으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항상 관심이 가기 마련이에요.

“세상 사람의 마음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

이 문장 팬찮죠, 셰익스피어(영국 작가)의 풍자 희극인 「트로일로스과 크레스이다」에서 가져온 구절이에요.

하지만,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나중에 알게 된 비밀 하나를 아저씨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팬찮죠?

우쭐댄다고 말하지 않기에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전 예뻐요.

정말 귀엽고 예뻐요. 아름다운 정도는 아니지만~

방에 거울이 세 개나 있는데도 이제야 알게 되었다니 저 정말 바보죠.

어느 친구가.

추신.

이 편지는 당신이 소설에서 읽은 짓궂은 익명의 편지들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여주인공의 말장난임. 별 뜻 없음)

(40장 끝)

(21세. 대학교3학년. 12월 7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39번째로, 12월 7일에 총 1통을 보냄)

41장. 키다리 아저씨

(12월 20일에 총 1통 보냄)

(21세. 대학교3학년 ‘1’학기)

(입학 후 40번째로, 12월 20일에 총 1통을 보냄)

12월 20일.

키다리 아저씨께,

잠깐만요, 2시 수업에 참석한 다음, 여행 가방을 썩싸게 꾸려, 4시 기차를 타야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박스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편지로라도 간단하게나마 알려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목도리와 목걸이 그리고 ‘리버티 원단으로 제작된 스카프’(사진링크 ► <http://me2.do/xxcGG7K9>)와 장갑과 손수건 그리고 책과 지갑까지… 대부

분 제가 애정애정하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빠, 이런 식으로 저의 인성을 망치실 건가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여자라고요.

이런 세속적인 기호품들로 저를 비트시면, 제가 어떻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니 〈존 그리어 고아원〉(여주인공이 나온 고아원)에서도 크리스마스트리와 일요일이면 아이스크림을 주시는 평의원 분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강한 의심이 드는 걸요.

그 분은 이름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익명으로 선물을 하시는 걸 좋아하는 게 꼭 누구와 닮아서요!

아이들에게 선사해주신 선물 때문에라도 언젠가 꼭 복 받으실 거예요.

잘 자요, 그리고 제가 심하게 메리크리스 마스라고 인사드리고 싶은 거 알죠~

당신의 언제나이고픈,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추신.

보잘 거 없는 감사의 표시(여주인공의 사진을 보낸 거 같음)를 같이 동봉했어요.

그녀를 안다면 좋아하실 거 같아서요~

(41장 끝)

(21세. 대학교3학년. 12월 20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40번째로, 12월 20일에 총 1통을 보냄)

42장. 키다리 아저씨

(1월 11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1'번째 편지)

(21세. 대학교3학년 '1'학기)

(입학 후 41번째로, 1월 11일에 총 2통을 보냄)

1월 11일.

뉴욕에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만, 아빠, 뉴욕이 좀 마음을 사로잡는 도시여야 말이죠.

정말 재미나고... 화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족(줄리아의 가족)에 속하지 않은 게 어지나 다행이던지요!

차라리 〈존 그리어 고아원〉이 뒷배경인게 더 나은 거 같던데요.

입양된 제 뒷배경이 뭐든 간에 적어도 거기엔 가식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말을 할 때면 상대방의 마음을 짓누르는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아님 그러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거 같네요.

당장에라도 무너질 거 같은 집안 분위기랄까요.

돌아오는 기차에 다시 앉을 때까지 전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어요. 그 집에서요.

왜일까요, 모든 방에 커튼 양탄자 손으로 만든 가구들로 꾸며져 있어 빛까 번쩍했는데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찌나 아름답게 옷을 입고 있고 살랑살랑한 목소리로 어찌나 암전하게 구는지 저도 처음엔 그게 진실인지 알았는데, 헐, 아빠, 저희(줄리아와 여주인공)가 그 집에 도착해서 출발할 때까지 진짜 대화는 단 한 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현관문을 들어설 때도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곤 꿈도 꾸지 못한 걸요.

웬들턴 부인(줄리아의 어머니)은 보석과 여성복재봉사 그리고 사교모임 말고는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맥브라이드 부인(샬리의 어머니)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 있죠!

만약 제가 남자이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된다면 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맥브라이드 부인을 선택할 거예요.

만약 제 아이들이 웬들턴 가의 아이들처럼 된다면 아 끔찍, 그럼 도대체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물론 저도 잘 알아요, 자신이 방문한 집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심히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들리셨다면 부디 용서해주세요.

그러니 이번 편지는 아저씨와 저 사이의 비밀이에요.

차(마시는 차) 마실 때 저비스 도련님이 방문해서 잠깐 본 게 다였어요, 아세요? 전 그분께 혼자서 말할 기회도 없었어요.

지난여름 즐겁게 보낸 후 처음 만나는 건데 넘 아쉽지 뭐예요. 기대에 어긋나도 이리 어긋나다니. T_T

제가 보기에 그 분은 친인척분들께 그리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건 아닌 거 같았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그 분의 친인척분들도 그 분께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줄리아 엄마 말로는 그분이 제정신이 아니시라고. ㅠ_ㅠ

저비스 도련님이 사○주의자이시라는데... 하지만 다행인건, 머리를 길게 기르지도 붉은 넥타이를 대놓고 매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는 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웬들턴 부인(줄리아의 엄마)은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이 어디서 그런 요상한 사상에 물들었는지 도통 알 수 없네요.

웬들턴 가문은 몇 대에 걸쳐서 ‘영국 국교회’(=성공회. 수장은 영국 여왕임)를 믿어왔네요.

그런데 갑자기 저비스 도련님이 돈을 제정신이 아닌 사회개혁 운동 같은 곳에다 퍼붓기 시작했대네요. 다른 친척들처럼 돈을 요트를 사거나 자동차를 모으거나 폴로 경기용 조랑말을 구입하는 현명한 곳에다 사용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도 캔디를 사긴 하시죠! ㅋㅋ

왜 있잖아요, 저번 크리스마스 때 줄리아와 제게 각각 한 박스 씩 보내주셨거든요.

음, 지금 막 생각해봤는데요, 저도 사○주의자 같아요.

그래도 신경 안 쓰실 거죠, 그렇죠, 아빠?

사○주의자라고 다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잖아요, 둘은 전혀 다른 거 아녜요.

그리고 사○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한다고도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 저도 이론적으로는 한 명의 사○주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제가 프롤○타리아트(최하층 무산 계○)에 속한 건 맞잖아요.

하지만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직 없어요.

아니다, 이번 일요일에 좀 더 살펴보다 다음주 일요일 쯤해서 제 권리청원 같은 걸 선언해볼까 하고 생각은 막 해보았어요. :)

정말 수많은 극장들과 호텔들 그리고 예쁜 집들을 보고 왔네요.

어찌나 많은 오닉스(=보석)과 금박제품 그리고 모자이크식 바닥들과 장갑의 손바닥들을 보았던지 나중엔 정신이 다 아찔할 정도였어요.

여전히 숨막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다시 학교로 돌아와 책을 집어들게 되니 나름 뭐 기쁘네요... 나름 정말 학생이 된 기분이랄까요.

차분한 학구적인 학교 분위기와 면학 분위기가 뉴욕보다 더 제 기운을 북돋네요.

학교가 솔직히 아주 만족스러워요. 책이며 공부며 규칙적인 강의시간이 저의 정신을 살아있게 유지시켜주거든요. 그리고 공부에 지칠 때면 실내체육관이나 야외 운동을 통해 풀 수 있고, 그리고 비슷한 주제들에 대해 마음 맞는 친구들도 많고요.

저희는 저녁 내내 수다만 해요... 수다 떨고... 또 수다 떨고... 또 또 수다 떨고... 그러다 아주 정신이 고양되어선 잠자리에 들죠. 마치 정신을 억누르는 몇몇 세속적 문제들을 영원히 푼 기분이랄까~

일상의 긴장을 푸는데 난센스(농담)만한 게 없잖아요... 방실방실 솟아나는

사소한 일상들에 대한 실없는 농담 말예요... 실없어도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것~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들의 재치 있는 입담에 감사할 정도예요!

맨날 진지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뉘 놓고 웃을 때도 있어야죠... 이제 제가 발견한 행복의 척도예요, 아빠,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ㅋㅋ

과거에 목매서도 그렇다고 미래에 매달리자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랍니다.

흡사 농부 같죠.

넓게 농사를 할 수도 있고, 좁은 곳에 집중적으로 농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담, 저는, 네 맞고요, 뉴욕을 다녀온 이후론, 집중적으로 사는 쪽을 택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라, 매순간 매초 즐길 거예요, 그것을 즐기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갈 생각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죠, 단지 내달리기만 하죠.

지평선(=땅)에서 멀찍이 떨어진 목표에 닿으려고만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숨까지 헐떡이며 그것에만 매달리다 보니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며 평온한 시골 풍경들을 놓치는 거죠.

그러다 문득 시간이 지나 그들이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라곤, 자신들이 늙었다는 거 그리고 이젠 지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 자신들에겐 목표에 도착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 저는 틈틈이 앉아 행복을 작게 작게 쌓아 나갈래요, 이러다 나중에 성공한 작가가 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제가 구체화시키고 있는 이런 유의 철학 학파가 따로 있나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당신의 한결같은,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추신.

오늘 밤은 비가 억수 같이 내리네요.

방금도 황소 같은 빗방울이 창턱(창문 아래 부분. 사진링크 ►
<http://me2.do/FZNfU8PN>)을 쿵하고 때리고 달아났어요.

(21세. 대학교3학년. 1월 11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1번째 편지 끝)

(1월 11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2'번째 편지)

(21세. 대학교3학년 '1'학기)

(입학 후 41번째로, 1월 11일에 총 2통을 보냄)

사랑하는 밋에게,

만세! 전 이제 페이비언 주의자예요. (참고. 페이비언은 과격한 방법보다는 계몽과 개혁을 통한 사○주의 운동을 가리킴)

그건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주의자란 뜻이에요.

내일 아침 당장 혁명이 일어나길 저희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그리되면 너무 엉망진창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미래 충격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페이비언 협회랍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노동이나 교육 또는 고아원의 개혁을 이루면서 차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신께, 형제애를 품고 있는,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월요일, 3교시에.

(42장 끝)

(21세. 대학교3학년. 1월 11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2번째 편지 끝)

(입학 후 41번째로, 1월 11일에 총 2통을 보냄)

43장. 키다리 아저씨

(2월 11일에 총 1통 보냄)

(21세. 대학교3학년 '1'학기)

(입학 후 42번째로, 2월 11일에 총 1통을 보냄)

2월 11일.

ㅋ.ㄷ.ㄹ ㅇ.ㅈ.ㅍ.ㅈ.ㅈ.ㅈ(=키다리 아저씨께)

이 편지가 너무 짧다고 절 나무라진 마여~

아셨죠~ 이건 편지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시험이 끝나는 대로 곧 편지를 쓰겠다고 한 제 말에 대한 약속 차원에서 보내는 거예요.

굳이 편지까지 보내는 이유는 제가 시험을 통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잘' 치루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장학금을 탈 팔자인가 봐요.ㅋㅋ

열심히 공부중인, 당신의,

ㅈ.ㅇ.(=제루샤 에벗. 여주인공의 실명)

(43장 끝)

(21세. 대학교3학년. 2월 11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42번째로, 2월 11일에 총 1통을 보냄)

44장. 키다리 아저씨

(3월 5일에 총 1통 보냄)

(21세. 대학교3학년 '2'학기)

(입학 후 43번째로, 3월 5일에 총 1통을 보냄)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커일러(흔치 않은 남자이름) 총장님(대학총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연설을 하셨는데요, 요즘 세대들이 까불고 천박한 것에 대해서...헐. -_-;;

총장님이 말씀하시길, 이 땅엔 지금 젊음의 열정과 학구열이 사라진지 오래래요. 특히 잘못된 권위에 대항하는 자세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네요.

게다가 연장자에 대한 경의 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데요. -_-+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채플(=예배)을 나왔어요.

제가 너무 버릇없게 편지를 쓰나요, 아빠?

아님 이제부터라도 좀 더 품위 있고 제 3자적 관점에서 편지를 적어야 할
까요?... 넷, 말씀해주세요, 그럴까요? 이 편지도 다시 쓸까요?

(아래의 점 7개는 원문에 있는 마침표 7개입니다. 위의 편지와 아래의 편
지 사이에 시간이 좀 흘렀음을 나타내주고 있음 ↓)

.

사랑하는, 저의 스미스 씨께 (키다리 아저씨의 가명(가짜이름)이 ‘존 스미
스’임)

제가 (3학년 1) 학기 말 시험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소릴 들으시고
아저씨께서 기뻐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과제 중이에요, 새 학기(3학년 2학기. 애네들은 우리와 반대임. 3
월이 2학기이고, 9월이 1학기임)가 시작되었거든요.

화학은 지난 학기(3학년 1학기)에 끝났어요... 질량 분석까지 과정을 마쳤
어요... 이번 학기(3학년 2학기)엔 생물을 배우게 되요.

생물은 좀 망설여지는 과목인 게, 교과목 중에 지렁이와 개구리를 저희가
해부해야 하거든요.

지난 주 채플시간(=예배시간)엔 이탈리아 말의 로마 방언이 남부 프랑스
에 남아 있는 것을 주제로 엄청 흥미롭고 귀중한 강연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주제여서인지 학과 과목이 분명해지는 게 좋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국문학(영문학) 과정과 연관이 있는, ‘워즈워스’(유명한 시인

임. 영국의 서정시인. 생애 1770~1850년. 서정시=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 다음Daum사전 참조했음)의 「틴턴 수도원」을 읽고 있어요.

예민하고 세련된 작품이에요. 자연숭배에 관한 워즈워스 자신의 콘센트(생각)가 잘 녹아난 시인 거 같아요!

지난 세기(19세기. 워즈워스가 활동한 시기) 초의 낭만주의 운동의 사례는, 셸리(여주인공이 좋아하는 시인이자 영국 낭만파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임. 생애 1792~1822년.)와, 바이런(아주 유명한 시인임. 영국 낭만파 시인. 생애 1788~1824년)과, 키츠(영국의 낭만시인. 생애 1795~1821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워즈워스의 시들에 잘 녹아나 있어요.(시인들의 이름과 생애 및 낭만파 시인이라는 것은 영한엡센스 사전을 보고 알았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시인들은 모두 유명하지만 번역된 걸로 읽으면 느낌이 전혀 잘 전달되지 않으니 괜히 읽을 생각 마시길~~. 그냥 서점에 들렀을 때 서서 몇 장 읽는 게 더 도움 됨)

영국 낭만파 시인들의 시가, 제게는 낭만파 이전에 있었던 고전과 음악(베토벤 음악 같은 거 말함) 보다 더 와 닿지 뭐예요.

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들 시인들의 작품을 소리 내 읽어보시길 바래요, 혹시 ‘테니슨’(영국의 계관시인. 계관시인이란 영국 왕실이 시인에게 내린 가장 명예로운 칭호임. 생애 1809~1892년)의 「록슬리 홀」(1835년 작품. 출간은 1842년에 됨. 청혼했다 거절당한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가며 부르는 감정적인 시라네요. 위키백과 참조) 같이 매력적인 짧은 시들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실내체육관에도 최근엔 규칙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최근에 시험 감독관 제도가 적용되었는데요, 그러다 많은

불편함 들이 야기 되어서 제대로 적용은 안 되고 있어요.

실내체육관 얘기 더 헤드릴게요. 시멘트와 대리석으로 된 매우 아름다운 수영장이 갖추어져 있어요. 졸업한 선배님들의 선물이에요

제 룸메이트인 맥브라이드 양(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에. 21세. 대학교3학년)이 자기 수영복을 제게 주었어요, 수영복이 너무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못 입을 거 같으면서 주던데요.

다행인 게~ 이제 막 수영 교습도 시작할 때라 필요했거든요.

어젯밤엔 아 정말 맛있는 분홍색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분홍색 웃기죠?ㅋㅋ 걱정마여~ 야채로만 음식에 색을 입히고 있으니까요.

‘아닐린 물감’(석탄 추출물로 만든 컬러링제)을 음식에 사용하는 것을 저희 학교는 심미적이고 위생적인 이유로 극구 반대하고 있거든요.

최근 이곳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화창한 햇볕과 약간 황홀할 지경인 구름까지.

강의 끝나면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강의 끝나면이에요.

믿어주세요, 사랑하는 스미스 씨(키다리 아저씨가 고아원 원장님을 통해 여주인공에게 알려준 가명이 ‘존 스미스’임), 아저씨도 산책 자주 하심 평소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진심으로 남고 싶은,

당신의,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의 실명)이.

(44장 끝)

(21세. 대학교3학년. 3월 5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43번째로, 3월 5일에 총 1통을 보냄)

45장. 키다리 아저씨

(4월 24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1'번째 편지)

(21세. 대학교3학년 '2'학기)

(입학 후 44번째로, 4월 24일에 총 2통을 보냄)

4월 24일.

아빠께,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지금 캠퍼스가 얼마나 예쁜지 아저씨께서도 보셔야 하는 건데 아쉽워요.

한 번 오셔서 혼자서라도 보고 가셨음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엔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이 다녀갔어요... 그런

데 이 분(저비스 도련님)은 가장 안 좋을 때를 골라 오셨지 뭐예요, 왜냐면 그가 방문했을 때 샬리와 줄리아 그리고 저는 막 기차를 잡아타기 위해 서둘고 있을 때였거든요.

자, 저희가 어디에 갔게요?

프린스턴 대학교 댄스파티 참석 및 야구경기 보러 갔었어요, 놀라셨죠? ㅋ!

가도 되는지 아저씨께 안 물어보고 그냥 막 갔어요, 아무래도 아저씨 비서분께서 또 “안돼요”라고 말씀하실 거 같아서요.

하지만 이번 프린스턴 댄스파티 및 야구경기는 정례적인 거라, 저희 학교로부터도 정식허락을 받고서 간 거예요, 맥브라이드 부인(‘샬리 맥브라이드’의 엄마)께서 저희의 보호자로 자처해주셨거든요.

저흰(샬리, 줄리아, 여주인공)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할 래요, 그래야 할 거 같아서요.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과 복잡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21세. 대학교3학년. 4월 24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1번째 편지 끝)

(4월 24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2’번째 편지)

(21세. 대학교3학년 ‘2’학기)

(입학 후 44번째로, 4월 24일에 총 2통을 보냄)

토요일.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226.png> (검

색일자 : 2016-7-6)

(원문에 있는) 그림제목 : 떠오르는 해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여자애들

날이 밝기도 전에 눈 떴어요!

야간 당직 경비원 분께서 저희... 그러니까 저희들 중 6명을 호명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랴부랴 ‘신선로 냄비’(야외에서 삼겹살 구워먹을 때 사용하는 불판. 사진링크 ▶ <http://me2.do/5Iuy4Gwj>)에다 커피를 만든 후,

얼마나 많이도 걸었는지 말도 마세요, 그렇게 걷고 걸어서 민둥산(원문→ 원트리 힐. =하나 나무 언덕)에 올라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경사면에선 거의 기다시피하고 올라갔는데ㅋㅋ!

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마 저희들이 아침밥 먹는 것도 잊은 채 해를 감상했다곤 안 믿으시겠죠
ㅋㅋ!

아 이런 저 어째요, 아빠 T_T , 오늘 완전 저 절규하는 날이네요.

이 페이지도 벌써 제 감탄사들로 도배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227.png> (검

색일자 : 2016-7-6)

(원문에 있는) 그림 속 시 내용 :

이 애는 총장님(대학 총장님)의 고양이예요. 그림으로도 벌써 느껴지시죠?
이 애가 얼마나 예쁜 ‘앙고라 고양이’(‘민지’님의 블로그링크 ►
<http://blog.naver.com/jklkj983/220754821020>)인지.

많이 쓸 생각이었는데, 짝이 트기 시작한 나무들이며, 학교 운동장에 석탄
재를 깔아 다진 새 보도며, 당장 내일 있는 생물 시간에 배울 끔찍한 수업이
며, 호수 위의 새 ‘카누’(1인용 작은 배)들이며, ‘캐서린 프렌티스’(친구이름.
이후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가 폐렴에 걸린 일이며, 총장님(대학총장님)의
‘앙고라 고양이’(‘민지’님의 블로그링크 ►
<http://blog.naver.com/jklkj983/220754821020>)가 집에서 가출을 해 가사
도우미에 의하면 2주 동안이나 ‘퍼거슨 관’(소설 속 기숙사의 이름)에서 기
숙하고 있는 일이며, 정말 정말 쓸 게 많았는데, 그리고 제가 새로 구입한
드레스 세 벌... 새하얀 색 드레스와 분홍빛 드레스 그리고 모자와 잘 어울
리는 파란색 물방울무늬가 달린 드레스까지... 그런데 너무 졸려서요. 헉~

이번엔 제가 용서를 구해야겠네요, 그죠?

여대는 참 분주한 곳입니다. 저녁때쯤엔 완전 지치죠! 특히 새벽부터 하
루를 시작한 오늘 같은 날은요.

심쿵~♥,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가.

(45장 끝)

(21세. 대학교3학년. 4월 24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2번째 편지 끝)

(입학 후 44번째로, 4월 24일에 총 2통을 보냄)

46장. 키다리 아저씨

(5월 15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1'번째 편지)

(21세. 대학교3학년 '2'학기)

(입학 후 45번째로, 5월 15일에 총 2통을 보냄)

5월 15일.

키다리 아저씨께,

자동차에 탈 때 있잖아요, 아저씨는 앞만 보면서 타시나요, 아님 주변에 누가 있는지는 살피시며 타시나요?

오늘 엄청 예쁜 '벨벳'(짧고 부드러운 솜털) 드레스를 입은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성 한 분이 기차 칸에 타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15분 동안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양말 광고판만 바라보며 앉아 계시더라고요.

마치 자기 혼자서만 도도한 척 다른 사람은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는 행동은 예의바른 행동이 아닌데 말이죠.

뭐 어쨌든, 그 여성분은 많은 걸 놓쳤죠.

그런 어이없는 광고판에만 몰두해 있다 보면 그리 되죠, 하지만 전 그 순간에도 기차 칸을 가득 매우고 있던 많은 흥미로운 인간 군상들(모습들)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림 동봉합니다.

금방 보면 긴 끈에 매달린 거미 같죠. 아뇨 아뇨. 절대 거미가 아니랍니다.

실내체육관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 저를 그려본 거예요.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230.png> (검

색일자 : 2016-7-7)

(원문에 있는) 그림제목 :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는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 주디는, ‘입’이 아니라 영어여자이름 ‘주디’임)

수영선생님(여성)께서 제 벨트(허리띠) 뒤에 고리(원형 바퀴)를 거시고는 끈을 매다셨어요, 천장에 매달린 도르래처럼 작동하네요.

끈을 잡아주시는 수영선생님(여성)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면 은근 든든하고 예쁜 수영교습방법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녀(수영선생님)가 끈을 확 놓을까봐 넘 무서워서 그녀 쳐다보랴 수영하랴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았음 늘었을 수영실력이 크게 늘진 않았어요. T_T 수영 무서워~

요즘 이곳 날씨는 사악하다 못해 처절할 지경이에요.

위낙 오락가락해서요.

아침에 일어날 때 비 오더니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또 햇볕이 짹짹~.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21세. 대학교3학년)와 전(여주인공) 테니스 치러 나가기로 했어요... 미리 체육관에 허락을 받아놓았거든요.

(21세. 대학교3학년. 5월 15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1번째 편지 끝)

(5월 15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2'번째 편지)

(21세. 대학교3학년 '2'학기)

(입학 후 45번째로, 5월 15일에 총 2통을 보냄)

앞 편지로부터 1주일 후.

아 이 편지 길게 써서 벌써 부쳤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했어요. T_T

상관 안하시죠, 아빠, 그렇죠, 제가 요즘 편지를 넘 불규칙하게 보내나요?

저 정말 아저씨께 편지 쓰는 거 좋아해요.

편지 쓸 때 꼭 제 가족에게 보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제가 몇 자 더 적게 해주실래요?

요즘 제가 편지를 적고 있는 남자는 아저씨만이 아니게 돼서요.

두 남자가 더 있어요!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으로부터 예쁜 긴 편지들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편지는 줄리아가 눈치 채지 못하게 모두 타자기로 타이핑 해서 작성된 거예요. 넘 솜씨 좋은 뉴스죠?

그리고 대개는 노란색 편지지에 매주 손으로 아주 휘갈겨쓴 편지들이 프린스턴(대학교 이름. 여주인공의 절친인 샬리의 큰오빠가 다니는 대학교)으로부터 배달되고 있어요.

두 편지 모두에 저는 즉각적으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고요.

보셨죠... 저도 다른 여자애들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저도 역시 연예편

지를 받는답니다.

(참고-여주인공은 현재 3학년 2학기임)

제가 3·4학년 연극 클럽 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 제가 했던가요?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클럽인데.

학생들 1천 명 중에서도 오직 75만 회원이거든요.

잘 됐죠? 아무래도 양쪽 모두에 조화를 이루는 균형잡힌 사○주의자라며
아저씨께서 좋아하실 거 같아서요. :)

요즘 제가 사회학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랑스어로→) 지금 뭘 쓰고 있게요! (다시 영어로→) “돌봄 아동 보호”
(미연방 보조 프로그램 이름. 원문→부양아동가족부조. 네이버지식백과 링크
▶ <http://me2.do/xhkdPfxW>)를 주제로 신문사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나누어주신 과제들 중 하나예요, 마구잡이로 배분해주시는데, 제
게는 이게(신문사 투고) 떨어졌어요.

(프랑스어로→) 재밌지 않나요 그쵸?

(다시 영어로→) 저녁식사 시간이 다가오네요. ‘우편 투함’(높은 건물의 각
층에서 우편물을 아래층으로 내려 보내는 관)을 지나갈 때 이 편지를 넣을
게요.

심쿵~♥,

제이 양(제루샤 에벗)이.

(46장 끝)

(21세. 대학교3학년. 5월 15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2번째 편지 끝)

(입학 후 45번째로, 5월 15일에 총 2통을 보냄)

47장. 키다리 아저씨

(6월 4일에 총 1통 보냄)

(21세. 대학교3학년 '2'학기)

(입학 후 46번째로, 6월 4일에 총 1통을 보냄)

6월 4일.

아빠께,

아 바쁘다 바빠... 졸업반 언니들의 졸업식은 10일 남았고요, 저는 당장 내일부터 시험이에요.

공부할 것도 많고, 챙겨야할 것도 많은데, 지금 이곳 야외 풍경은 너무 아름다워서 공부만 하고 있기엔 너무 맘이 아파요. T_T

하지만 상심 안해요, 왜냐 ㅋㅋ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21세. 대학교3학년)는

해외여 나갈 거래요... 이번에 나가면 벌써 네 번째로 나가는 거라네요. 헐~

_

아빠, 확실히 사회적 부(=돈)가 공평하게만 분배된 건 아닌 거 같아요.

‘샐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에. 21세. 대학교3학년)는 평상시와 같이 ‘애디론덱 산맥’(미국 뉴욕주 북동쪽. 아래의 네이버지도 참조바람)에 있는 가족 산장에 갈 거래요.

▼ 네이버지도 (검색어 = ‘애디론덱 산맥’. =미국 뉴욕주 북동쪽)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4.12471540000001,-73.8693043&zoom=4&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4.12471540000001,-73.8693043&client=gme-nhncorp&signature=TkTx3Z0kVzdWTj7AYoo5qnqe6JM=&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0 (검색일자 : 2016-7-7)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4.12471540000001,-73.8693043&zoom=11&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4.12471540000001,-73.8693043&client=gme-nhncorp&signature=esC6UIvABqgHyLQXOOzaBbknHIY=&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0 (검색일자 : 2016-7-7)

전 어쩔까요, 아빠?

세 가지 추측이 가능하시죠.

룩(=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농장?

땡! 틀렸어요.

그럼 샬리와 함께 ‘애디론댁 산맥’?

땡! 이것도 틀렸어요.

산장엔 다시 안 갈 거거든요. 왜냐 작년엔 무척 상심한 터라.(샬리 네 가족산장에 가겠다는 것을 키다리 아저씨가 비서를 통해 절대 못 가게 했음)

그럼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아이 참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빠, 아빠께서 심하게 반대만 안 하실 거라만요.

전 이미 결심이 섰다고 분명 아저씨 비서 분께 미리 경고드렸거든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을, 찰스(이름) 패터슨(성씨) 부인과 함께 해변가에서, 그녀의 딸들을 가르키며 보내기로 했답니다.

부인의 딸들이 가을(미국은 가을에 개학함. 우리와 반대임)에 대학에 응시하게 되었거든요.

맥브라이드 부부(여주인공의 절친인 샬리의 아빠 엄마)를 통해 부인을 알게 되었어요, 암튼 매력적인 여성이시더라고요.

여차여차해서 제가 그녀의 큰 딸의 대학진학 도움과, 작은 딸의 국어(영어) 및 라틴어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의 시간은 많이 가지지 못할 거 같아요, 대신 한 달에 과외비로 100만원(원문→50달러)을 받기로 했어요, 이걸로 통 쳐야죠!

너무 터무니없는 과외비라 여기서진 마여 아빠!

그녀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요. 전 그냥 50만원(원문→25달러) 이상이면 된다고 말하려다 얼굴을 붉히고 말았답니다.

(환율 수정 :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1달러가 1만원이 아니라 2만원으로 계산해야 소설 속 상황과 맞는 거 같음. 잘못 계산했네요. 소설중간에, 책 가격이 1달러라고 해서 이것을 1만원으로 잡고 나머지를 계산했는데 지금 보니 이게 틀렸고 소설 맨 처음에 1달러를 2만원이라 한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음...-_- 왔다갔다 오락가락하는 환율계산법. 그래서 기존에 해석했던 것 수정했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1달러를 2만원으로 계산할게요. 나머지도 이에 맞추어 모두 두 배씩 곱해서 계산할게요.)

9월 첫 주는 ‘매그놀리아’(‘목련’이란 뜻임. 여주인공이 과외를 해주기로 한 부인의 딸들이 있을 곳)에서 보낼 거예요. 매그놀리아이 찰스 패터슨 부인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주는 록(=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농장에서 아마도 보내게 될 거 같아요... 샘플 부부(농장의 주인)를 어찌나 다시 보고 싶은지 그리고 농장의 정다운 가축들도 보고 싶은 거 있죠.

제 여름 방학 계획이 정말 기똥차지 않나요, 아빠?

이제부터라도 독립심을 기르려고요.

아시다시피, 아빠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이라도 가까스로 홀로서기를 시도해볼 수 있는 거 같아요.

프린스틴(대학교 이름) 졸업식(여주인공의 절친인 샬리의 큰 오빠가 졸업함)이랑 저희 학교 시험이 정확히 겹쳐요... 이게 된 안 좋은 상황인지. T_T

샬리와 제가 얼마나 프린스틴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거의 불가능할 거 같아요, 졸업식 참석이 말이죠.

잘 자요, 아빠.

좋은 여름 보내시고요, 가을에 다시 돌아와 있을 땐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

가짐으로 뭉길 바래요.(미국은 가을(9월)이 새 학기 및 새 학년 시작임. 우리와 반대임 헛갈리시면 안 됨) ㅋㅋ 이 말은 제가 아니라 아저씨께서 제게 들려주셔야 하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보니 아저씨가 이번 여름에 뭘 하실 건지 제가 도통 모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재미나게 보내실 건가요?

아저씨가 처한 상황을 그려볼 수 없어서요.

골프 치세요? 아님 사냥? 아님 승마? 아님 그냥 ‘뽕약별’(뜨거운 여름의 별)에 앉아 명상을 즐기시나요?

어쨌든, 그게 무엇이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주디’(입이 아니라 영어 여자이른 ‘주디’임. 여주인공의 애칭=별명)는 당분간 잊어주세요~

(47장 끝)

(21세. 대학교3학년. 6월 4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46번째로, 6월 4일에 총 1통을 보냄)

48장. 키다리 아저씨

(6월 10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1'번째 편지)

(21세. 대학교3학년 '2'학기)

(입학 후 47번째로, 6월 10일에 총 2통을 보냄)

6월 십일(10일).

아빠께,

지금까지 중 가장 힘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결심했거든요. 되돌릴 방법은 없을 테니까요.

이번 여름에 저를 유럽여행 보내주고 싶다는 기분 좋고 관대하며 사랑스런 아저씨의 편지를 받았어요... 한 순간이었지만 너무도 가고 싶어 정신이

아찔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곧 제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아냐 라고 제 스스로에게 말했죠.

학업을 위해 아저씨의 금전적인 지원을 이토록 많이 받고 있는 마당에, 이번엔 즐거움을 위해 아저씨의 금전을 사용하다니요!

아저씨도 제게 이렇게나 많이 후하심 안 되는 거예요.

제 본분을 망각하게 된다고요.

금전적 도움을 그의... 아니 그녀의 것인 양,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해요, 당연시하다보면 나중에 헤어 나올 수 없는 법이에요.

같이 사는 샬리(친구이름)와 줄리아(친구이름)도 제 ‘스토아’(고대 로마의 철학학과. 금욕적인 생활 강조)식 철학엔 극구 반발하거든요.

애네들은 둘 다 아기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자라나다 보니 행복을 당연시 해요.

그래서 세계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요.

그래도 세상이 그리 된다 해도... 어쨌든, 빚이라든가 빚을 갚는 개념은 알아 가겠죠.

하지만 제 경우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분명한 건 제 시작은 적어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용을 빌린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제때 부채를 반납하지 않음 온 세계가 제 권리를 부정하려 들걸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지금 뭘 소리를 하고 있는지, 꼭 안개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아저씨 제 말의 의미를 아셨겠죠?

여하튼, 솔직한 제 심정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 과외를 해서 어떻게든 제 자신을 좀 부양해보기 시작하고 싶다는 거랍니다.

(아래의 점 7개는 원문에 있는 마침표 7개입니다. 위의 편지와 다음 편지 사이에 시간이 좀 흘렀음을 나타내주고 있음 ↓)

.

(21세. 대학교3학년. 6월 10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1번째 편지 끝)

(6월 10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2’번째 편지)

(21세. 대학교3학년 ‘2’학기)

(입학 후 47번째로, 6월 10일에 총 2통을 보냄)

‘매그놀리아’(‘목련’이란 뜻임.
여주인공이 ‘딸들의 과외를 해주기로 한
부인’의 별장이 있는 곳 이름임)

앞 편지로부터 4일 후.

오늘은 (편지를) 좀 (많이) 썼네, 하고 있을 때... 뭘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세상에 가사도우미 언니가 ‘저비스 도련님’가 보낸 엽서를 가지고 왔어요.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도 이번 여름에 해외로 가실 예정이라네요. 줄리아나 줄리아의 가족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혼자서만 나가신데요.

저비스 도련님 말로는 한 무리의 여자애들을 인솔할 여자로 아저씨(키다리 아저씨)가 저를 추천했다던데요.

저비스 도련님은 아저씨에 대해 알고 계세요, 아빠.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저비스 도련님은 제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신 거며, 그리고 친절한 신사분께서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 일까지 모두 알고 계세요.

하지만 〈존 그리어 고아원〉(여주인공이 나온 고아원 이름)와 나머지 일(자신이 고아출신인 거)만은 아무리 용기를 내도 말씀 드릴 수 없었어요.

저비스 도련님은, 아저씨(키다리 아저씨)가 제 후견인이자 오랜 가족 일동의 친구 분일 거라 생각하세요.

전 제가 당신(키다리 아저씨)을 모른다고 절대 저비스 도련님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참 기구하죠(이상하죠)!

여하튼, 저비스 도련님은 저보고도 유럽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유럽여행은 교육적으로 봤을 때도 제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서요.

저비스 도련님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함께 파리에 머물다보면, ‘샤프롱’(=보호자. 젊은 여성은 자신의 보호자로 나이 많은 여성을 대동하고 파티에 갔음)의 눈을 벗어나 이따금씩 멋지고 즐거운 외국의 레스토랑들에서 그와 제가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네요.

더할 나위 없게도요, 아빠, 그 제안은 제게도 참 매력적이었어요!

정말 흔들릴 뻔 했어요.

만약 저비스 도련님이 그토록 독재자적으로 나오지만 않았어도, 전 넘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제가 망설이자, 차근차근 저를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조로 나오시잖아요.

저보고 바보 멍청이 불합리하고 돈키호테 같고 멍청이 중에 멍청이며 이보다 더 고집쟁이일 수 없는 완전 고집쟁이 아이라며 ㅠ_ㅠ 앞의 몇몇 단어들은 제게 어울릴지 몰라도 대다수는 저를 비겨가는 말들이예요. 하긴 제가 생각해도 체겐 좋은 부분이 없는 걸요.

전 지금 다른 누군가의 판단이 간절해요.

전혀 거의 다투다시피... 아뇨, 다툼 게 아니라 정말로 싸우고 말았는걸요!

어쨌든 지금은 얼른 짐을 꾸려 여기(과외 해주기로 한 별장. 별장이름인 ‘매그놀리아’임. 매그놀리아는 ‘목련’이란 뜻임)로 건너와 버렸어요.

급한 불부터 피하자고 일단 건너오긴 했는데, 그래서 아저씨께 쓰던 편지도 마무리 짓지 못했던 건데, 아 ㅌ_ㅌ 이젠 재만 남았겠죠.

저 지금 ‘절벽 꼭대기’에 있어요. 진짜 절벽 꼭대기가 아니고요, 패터슨 부인의 별장 이름이 ‘절벽 꼭대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인이요.

제 짐도 다 풀었고요, 그리고 작은 딸 ‘플로렌스’(여자이름. 부인의 작은 딸)는 이미 벌써 ‘라틴어 격변화’(문법이름. 격에 따라 명사의 앞뒤 모양이 바뀌는 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과외가 생각보다 고될 수 있겠어요!

플로렌스(작은 딸)가 너무 버릇없는 아이라서요. ㅠ_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칠 참이었는데... 애는 지금껏 ‘아이스크림 소다수’(사이다 같은 거?) 먹을 때 말곤 한 번도 무언가에 집중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절벽 꼭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공부방으로 절벽의 조용하고 외딴 곳을 사용하고 있어요...

패터슨 부인은, 제가 그녀의 딸들을 데리고 야외에서 공부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요, 눈앞에 푸른 바다와 배들이 넘실대며 지나가는 마당에 무슨 공부냐고!

여기선 제가 외국 땅을 향해하는 낯선 선원이 된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라틴어 문법에만 집중하려고요.

라틴어 전치사들인, ‘~로부터’(a or ab. 라틴어 ‘a’와 ‘ab’ 모두 ‘~로부터’라는 전치사임. a는 자음 앞에서만 사용), ~없이(라틴어 absque), ~의 면전에서(라틴어 coram), ~와 함께(라틴어 cum), ~에 대해(라틴어 de), ~에서(e or ex. 라틴어 ‘e’와 ‘ex’ 모두 ‘~로부터’라는 전치사임. e는 자음 앞에서만 사용), ~에 앞서(라틴어 prae), ~앞으로(라틴어 pro), ~없이(라틴어 sine), ~뿐(라틴어 tenus), ~안에(라틴어 in), ~이하(라틴어 subter), ~밑에(라틴어 sub), ~위에(라틴어 super)의 탈격(=영어의 부사구. 전치사가 부사구를 만드는 것처럼. 라틴어 전치사들이 부사구를 만드는 걸 말하는 것 같음) 말예요. (네이버 라틴어사전으로 검색함. 링크 ► <http://ladic.naver.com/#main.nhn>)

보시다시피, 아빠, 제 ‘아집’(=고집) 탓에 전 이미 ‘불쾌한 일’(과외 받는 딸들이 전혀 말을 안 들음) 속에 젖어들고 말았어요. ‘유혹’(=과외비)에 넘어간 탓이에요. T_T

그러니 제게 성 내지 마요, 부디, 제가 아저씨의 친절에 감사해하지 않는다고도 생각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전 항상... 매번 감사해하고 있거든요.

아저씨의 친절에 제가 보답하는 일은, 여성도 시민권자라면, 물론 대다수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 같지만, 여성도 시민권자라면 사회에 보탬

이 되는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저씨의 친절에 대한 제 보답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래요.

나중에 혹시라도 아저씨가 저를 보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요.

“난 세상에 아주 유익한 사람을 도왔다네.”라고요.

좋은 생각이죠, 그쵸, 아빠?

그러니 절 오해하시면 안돼요, 알았죠?

제가 좀 변덕스럽지만 늘 그런 것 아니잖아요.

미래를 설계하는 건 재밌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만약 제가 봤을 때도 제 능력이 평범하다면 그 직업을 가진 남자랑 결혼을 해 그 남자의 영감이 되며 살아갈 테니까요.

당신의 한결이,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48장 끝)

(21세. 대학교3학년. 6월 10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2번째 편지 끝)

(입학 후 47번째로, 6월 10일에 총 2통을 보냄)

49장. 키다리 아저씨

(8월 19일에 총 1통 보냄)

(21세. 대학교3학년 '2'학기)

(입학 후 48번째로, 8월 19일에 총 1통을 보냄)

8월 19일.

키다리 아저씨께,

창문 너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것 같은 풍경이 내려다보여요... 바다 풍경이요... 다만 물과 바위들뿐이라는 게 함정~

여름이 가고 있어요.

아침엔 라틴어와 국어(영어) 그리고 수학 과외로 전부 보냈어요. 두(2) 모자란 여자애와 함께요.

메리언(큰 딸 이름)이 어떻게 대학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게

되었다니 입학한 후엔 정착해 살아가겠지만, 작은 딸인 ‘플로렌스’(여자이름)은 정말 가망이 없어요… 정말로요 아! 예쁘긴 작은 딸이 좀 더 예쁘지만요.

정말 아저씨도 그리 생각하시나요, ○자가 얼굴만 예쁘면 머리가 좀 모자랐던 아니던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리 생각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럼 결혼했을 때 ○편들이 ○내와의 대화를 지루해할 거 아녜요.

가령 제 말이 전혀 없지 않은 사례인 건 맞잖아요.

세상은 정말 바보 같은 남자들로 가득 차 있다니깐요.

어찌된 게 이번 여름에 수도 없이 만나게 되네요.

오후엔 절벽(해안가 절벽의 한 쪽 구석에 별장이 있음)을 산책하거나 수영도 하며 보내요. 물살이 세지 않을 때 말이죠.

바닷물에선 웬만큼 편하게 수영을 할 수 있겠어서요… 어때요 기분 좋으시죠, 제 교육이 이미 빛을 보기시작하고 있어요!

파리에 있는 ‘저비스 펜들턴’(=‘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 줄리아는 여주인공의 부자친구)으로부터 다소 짧지만 간결한 편지 한 통이 이곳으로 배달되어 왔어요.

그의 제안(함께 유럽여행 하는 것)을 거절한 제 자신을 아직 용서치 않은 상태지만.

하지만, 그가 다시 제 시간에 귀국한다니 기쁘긴 해요, 편지엔 록 윌로우 농장에서 개학이 되기 전까지 저와 며칠이라도 함께 지낼 수 있을 거 같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조금 만 더 착하고 나긋나긋하고 유순하다면, 그럼 그때로 돌아가 그의 제안(함께 유럽 여행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추정(가정)이에요.

그리고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21세. 대학교3학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9월 2주 동안 산장에 가 있을 거라면서, 저도 꼭 왔음 좋겠다고요.

하지만 전 아저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요, 아님 제가 내키는 대로 그곳에 가든가 하진 않아요.

네, 그래요... 전 3학년생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름 내내 과외도 열심히 했고, 약간의 휴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애디론덱 산맥’(샬리의 가족 산장이 있는 곳. 아래의 네이버 지도 참조바람)도 보고 싶고요.

▼ 네이버 지도 (검색어 = 애디론덱 산맥) the Adirondacks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4.12471540000001,-73.8693043&zoom=4&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4.12471540000001,-73.8693043&client=gme-nhncorp&signature=TkTx3Z0kVzdWTj7AYoo5qnqe6JM=&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1 (검색일자 : 2016-7-9)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4.12471540000001,-73.8693043&zoom=11&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4.12471540000001,-73.8693043&client=gme-nhncorp&signature=esC6UIvABqgHyLQXOOzaBbknHIY=&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1 (검색일자 : 2016-7-9)

샬리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T_T 샬리의 큰 오빠(이름이 ‘지미’)도 보고 싶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번 여름방학 때 샬리의 큰 오빠가 제게 ‘카누’(1인용 작은 배) 타는 법도 가르쳐주기로 했었는데 ㅠ_ㅠ …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샬리 네 가족 산장에 가야 저비스 도련님을 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비스 도련님은 록(=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농장에 가실 테니까요.

그(저비스 도련님)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가 저를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무도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단지 아저씨(키다리 아저씨)만은 예외예요.

그리고… 아빠마저도 제게 영원히 그리할 수 없어요!

제가 곧 품에서 벗어날 테니까요.(졸업하면 소설가가 되어 돈을 벌겠다는 얘기임)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49장 끝)

(21세. 대학교3학년. 8월 19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48번째로, 8월 19일에 총 1통을 보냄)

50장. 키다리 아저씨

(9월 6일에 총 1통 보냄)

(21세(참고로 여주인공의 생일은 11월 2일임). 대학교4학년 '1'학기 시작)

(입학 후 49번째로, 9월 6일에 총 1통을 보냄)

맥브라이드(친구이름) 네 가족 산장에서,

9월 6일에.

아빠에게,

아저씨 편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전해 드리게 되어 기쁘요.

만약 아저씨의 지시가 따라지길 바라신다면, 늦어도 2주 전쯤엔 비서 분께 말씀을 전하셔야할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지금 여기(샬리 네 가족 산장) 있어요, 온지는 5
일 되었어요.

숲이 참 울창하네요, 캠핑장도 무척 좋아요, 날씨도 더할 나위 없고요, 맥
브라이드 가족들도 참 착하고, 세상이 모두 착해요.

그래서 전 너무 행복하답니다!

지미(샬리의 큰 오빠. 올해 여름에 대학교 졸업했음)가 카누(작은 배) 타러
오라고 저를 부르고 있어요... 말씀(록 윌로우 농장에서 나머지 여름방학을
보내라는 키다리 아저씨의 얘기) 안 따라서 미안요 아빠.

하지만 왜 잠시 제가 숨 좀 돌리고 쉬는 걸 바라지 않으시는지?

열심히 일한 당신 2주는 쉬어도 되지 않나요.

아저씨 좀 황당한 거 아시죠.^^;;

하지만... 그래도 전 아저씨가 너무 좋아요, 아빠, 당신의 그 모든 실수에
도 불구하고용~♥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50장 끝)

(21세. 대학교3학년. 9월 6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49번째로, 9월 6일에 총 1통을 보냄)

51장. 키다리 아저씨

(10월 3일에 총 1통 보냄)

(21세. 대학교4학년 '1'학기)

(입학 후 50번째로, 10월 3일에 총 1통을 보냄)

10월 3일.

키다리 아저씨께,

학교로 돌아왔어요, 이젠 최고학년(4학년)이에요... 그리고 저 저희 학교
〈월간 학생회지〉의 편집장(=책임자)이 되었어요. ^_^ 대박~

편집장이라니 생각도 못했는데, 4년 전만해도 그냥 〈존 그리어 교아원〉
의 교아원생이었는데.

이렇게나 빨리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다니요! ㅋㅋ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룩(=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농장으로 갔다가 여기(대학교)로 반송되어 온, 저비스 도련님의 엽서 말이에요.

미안하데요, 올 가을(9월이 미국에선 가을인가 보네요.*_*)에 거기(룩 월로우 농장) 못 갈 거 같다면서, 친구들이 요트 타러 오라며 저비스 도련님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에 응하셨다네요.

그리곤 저보고 올 여름(8월)을 잘 보냈길이라며 시골(룩 월로우 농장)에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란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즉 저비스 도련님은 제가 거기 안 가고 맥브라이드(=샬리)의 가족 산장에 가 있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구요? 줄리아(저비스 도련님의 큰 형의 딸)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거든요!

애가 정말 -_-;;

남자들은 정말 여자들의 얘기에 관심 좀 꺼야 된다니까요, 아저씨는 어디 가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줄리아는 매혹적인 새 옷들을 여행가방 한 가득 담아 왔지 뭐예요... 천국의 천사들이나 입을 법한 무지갯빛 ‘크레이프’(유연한 여성용 옷감)로 만든 ‘이브닝 가운’(야회복)이었어요.

아 T_T 올해는 제 옷들도 어디 굴리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고 생각했더했는데. 이럴수가!

가장 저렴한 여성복 재봉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패터슨 부인(여주인공은 올해 8월에 패터슨 부인의 두 딸들을 과외시켜 주었음)의 옷을 따라 만들어 보았거든요, 완전히 쌍둥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나왔는데, 그래서 줄리아가 여행가방을 풀 때까지만 해도 저도 참 행복했더랬는데. 아.

하긴 뭐... 파리(줄리아는 파리에서 옷을 구입했음)를 대신 구경할 수 있어 좋았답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여자애가 아니라서 기쁜 건 아니겠죠?

저희들이 옷 때문에 공연한 소란을 떠는 게 어리석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요. 확실히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식 있는 남자 교수가 여성들의 옷에 대한 사랑을 경멸하며 쓸데없는 꾸미기로 간주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여성의류에는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선량한 아내보고는 실용적인 의상을 끝까지 입혔다고 하더군요.

이 분에 대해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남자 교수는 어느 합창단의 아가씨와 눈이 맞아 달아났어요.

당신의 언제나인,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추신.

복도에 있는 가사도우미 언니가 격자무늬가 있는 청색 무명 앞치마를 두르고 계시네요.

청색 말고 갈색으로 하나 장만해 드리려고요, 청색은 호수 바닥에다 던져버릴 거예요.

청색 무명 앞치마를 쳐다볼 때마다 자꾸 고아원에서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오싹해서요. ㅠ_ㅠ

(51장 끝)

(21세. 대학교4학년. 10월 3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50번째로, 10월 3일에 총 1통을 보냄)

52장. 키다리 아저씨

(11월 17일에 총 1통 보냄)

(22세(여주인공의 생일은 11월 2일임). 대학교4학년 '1'학기)

(입학 후 51번째로, 11월 17일에 총 1통을 보냄)

11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제 빛나는 문필(=문학) 경력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T_T 내가 못살아 정말.

제가 말했던 가요 말씀 안 드렸나, 그림 부디 저를 동정해 주세요... 침묵의 동정 말이에요, 부디요.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를 듣기만 하시고 절대 아저씨의 다

음 편지에서 언급해서 제 상처를 두 번 키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지난 겨울방학 저녁 내내 제가 책을 썼더랬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도 제가 두(2) 어리석은 딸아이들에게 라틴어 문법만 가르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대학 개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책을 한 권 마무리 지어서 출판사에 보내보았어요.

편집장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꼬박 두 달 동안이나 출간 할 건지 말 건지 말이 없기에 전 출판사에서 출간할 의향이 있는 가보다고 철썩 같이 믿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아 T_T 내가 못 살아 정말, 어제 왔어요. 소포가요. 그것도 특급 배달 착불(받는 사람이 돈 내기)로요. 우편요금은 6천원 나왔고요.

상심하고 있는데 앗! 소포 안에 출판사에서 보낸 편지가 한 통 있더라고요, 아주 아주 근엄한 아버지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의 편지... 하지만 대단히 솔직한 편지요!

그(편집장)가 말하길,

“선생님이 보낸 원고 주소를 보니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이신 거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제가 드릴 몇 마디 말씀이 선생님께 대단히 귀중한 조언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학업에만 온전히 열중하시길 바랍니다. 글은 졸업하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선생님의 글에 대한 제 의견서를 몇 마디 적어 동봉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봉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구성이 전혀 있을 법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성격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지나친 유머는 글의 맛을 떨어뜨리니 주의바람. 계속 글을 써내려 가시다 보면 이윽고 진짜 책으로도 출

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정말 아부 한 마디도 없는 글이죠, 그쵸, 아빠?

우리나라 문학계에 큰 획을 긋는 작품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_T_T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위대한 소설을 써보이는 것으로 아저씨를 놀래키려고 한 거였는데 적어도 그럴 참이었는데.

그래서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에. 22세. 대학교4학년)와 뉴욕에 갔을 때에도 자료 수집을 멈추지 않았던 건데.

하지만 이리되었으니 말인데 편집장님 말씀이 옳은 거 같아요.

2주(여주인공이 줄리아와 작년겨울에 뉴욕에 머문 시간)라는 기간은 위대한 도시의 생활방식과 관습을 온전히 다 관찰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 아니었던가 봐요.

어제 오후엔 제 자신과 함께 좀 걸었어요, 건다 ‘가스 공장’이 나오길래, 들어가 기술자 분께 화덕(=불)을 좀 빌릴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 분은 정중히 문을 열어주셨고 전 제 손에 꼭 쥐고 있던 제 원고를 화덕 속에 던져넣었지요.

마치 수줍어하던 제 속의 다섯 살 난 아이가 까맣게 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젯밤엔 완전 낙담해 침대에 들었어요.

아침에 깨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 같은 기분이었죠.

아무 의미 없는 일에 큰 돈을 낭비한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제 머릿속에 예쁜 새 소설 구상이 떠오른 거예요, 하루 종일 싱글벙글거리면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구성했어요, 저 요즘 이렇

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이런 저를 누가 낙담주의자(비관주의자)라 말할 수 있을 까요!

어느 날 지진이 발생해 제 남편과 열두 아이를 꿀꺽하더라도, 전 다음 날 아침 벌떡 일어나 새 마음 새 뜻으로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해나갈 수 있는 결요.

애정가득,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52장 끝)

(22세. 대학교4학년. 11월 17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51번째로, 11월 17일에 총 1통을 보냄)

53장. 키다리 아저씨

(12월 14일에 총 1통 보냄)

(22세. 대학교4학년 '1'학기)

(입학 후 52번째로, 12월 14일에 총 1통을 보냄)

12월 14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젯밤 념 웃긴 꿈을 꿔어요.

책방에 들어간 거 같은데 점원이 제게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 에 벗(=여주인공의 성씨)의 삶과 편지들』이라는 제목의 새 책을 제게 건내주지 뭐예요.

그 장면이 지금도 너무나 또렷한 거 있죠... 책의 형질표지가, <존 그리어

고아원〉의 사진이 들어간 빨간색 형표표지였거든요, 그리고 책의 속표지(책 표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속표지)는 제 초상화였고요 그 아래에 “진실로 진술했던 당신의 친구, 주디 에벗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제 묘비석 맨 아래 글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깜짝 놀라 깨고 말았답니다.

참 애간장 나게 하는 꿈이죠!

제가 결혼은 했을까요, 아님 언제 죽으려나를 알 수 있는 절묘한 순간이었는데 넘 아쉬웁요.

만약 아저씨가 진짜 아저씨 인생이 적힌 책을 읽게 된다면 재미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든 알고 있는 작가가 의해 100% 진실로 쓰인 책 말이에요?

가령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만 아저씨가 그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절대 까먹지 말 것. 하지만 아저씨가 어찌 될지 미래를 분명히 보여줄 것. 아저씨께서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돌아가실지 알 수 있기.”

어때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조건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읽으려 할까요?

가령 호기심에 이끌려 책을 들었다가도 몇 줄 못 읽어보고 황급히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미래를 알게 되어 희망과 아무런 놀람도 없이 살아야 하는 희생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리 되면 기껏 잘 해봐야 단조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ㅋㅋ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의 반복이지 않을까요.

식사 시간 사이에 깜짝 놀랄 일이 아무 것도 없음 얼마나 끔찍한 삶이 될지 상상하시죠.

만세! 저 소설 구상 다 했어요, 아빠. 짠 지금까지 말씀드린게 제 소설의 주된 줄거리예요.

음...그런데 세 페이지까지는 그럭저럭 쉽게 썼는데 어째 다음 페이지를 쓰려니 넘 안 쓰져요. T_T

올해 저 생물학 과목 다시 시작해요... 참 끔찍스럽게도 흥미로운 과목이죠 T_T

요즘은 소화계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고양이의 ‘샘창자’(=십이지장. 작은창자의 첫 번째 부분) 단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철학 과목에 배우게 되었어요, 4학년이니까요... 철학 음 -_- 재밌지만 왠지 텅텅을 거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의 과목이에요.

대상을 꼭 집어서 토론 대에 올릴 수 있는 생물학이 더 좋아요.

그리고 추가로!

추가로!

웬이 눈물(불웬똥)을 좀 많이 흘리네요. 글씨 번져 있는 거 사과드려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눈물이에요.

자유의지를 믿으세요?

솔직히... 전 믿거든요.

모든 행동이 전적으로 필연적이고 반사적인 먼 원인들에 의해 야기된 집합체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에게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답니다.

그건 제가 지금껏 들어본 가장 부도덕한 논리에 지나지 않아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 토를 달 수 없을 걸요.

만약 운명론(=체념)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건 응당 자리에 퍼질러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게 다일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리곤 자신이 죽을 때까지 앉아 있으려고만 들 거잖아요.

저는 제 자신의 자유의지와 일을 성취해 나가려는 제 노력의 힘을 온전히 믿어요…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려는 거고요.

언젠가 성공한 작가가 되어 있는 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4장(챕터)까지 집필을 완료했어요, 나머지 5장은 현재 구상(생각)단계고요.

이번 편지는 난해한(어려운) 편지가 되었네요… 읽으시다 두통 오시는 거 아니요, 아빠?

그만 써야 할 거 같아요, 캔디(두 가지 의미로 이 캔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1.허튼소리 2.집필하고 있는 원고)를 몇 개 만들어 볼 참이었거든요 ^_^ ㅋㅋ

몇 개라도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다만 보기 드물게 맛있는 캔디가 될 거라 확신드려요. 살살 녹는 크림과 버터볼 세 개를 넣어서 만들 거거든요.

당신의 심쿵이인~♥,

주디(여주인공 애칭=별명)가.

추신.

체육 시간에 춤추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저희들은요.

그림 보이시죠, 저희가 얼마나 실제 발레처럼 보이게 노력하는지.

줄 맨 끝에서 ‘발끝으로 우아하게 댄스돌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이(보는 사람 기준으로 그림의 맨 왼쪽)가 저예요… 바로 저라고요.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256.png> (검

색일자 : 2016-7-10)

(원문에 있는) 그림제목 : 한 줄로 늘어서서 춤을 추고 있는 여자애들(보는 사람 기준으로 그림의 맨 왼쪽이 여주인공임)

(53장 끝)

(22세. 대학교4학년. 12월 14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52번째로, 12월 14일에 총 1통을 보냄)

54장. 키다리 아저씨

(12월 26일에 총 1통 보냄)

(22세. 대학교4학년 '1'학기 겨울방학)

(입학 후 53번째로, 12월 26일에 총 1통을 보냄)

12월 26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아빠에게,

제정신이세요?

여자에 한 명에게 17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다니요?

전 사○주의자라고요, 부디 좀 기억 좀 하세요. 저를 금전(=돈)만능주의자로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이 문제로 다투는 게 제게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생각해보세요 제

발!

아무래도 오늘 받은 이 선물들을 이삿짐 트럭에 실어 다 돌려보내야 하겠어요.

*이 부분에 그림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구텐베르크는 자신들의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파일에 대한 직접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려면 아래의 “프로젝트-구텐베르크”사이트의 『키다리 아저씨』(영문 사이트)의 홈페이지 링크를 일단 한 번 클릭하셔야합니다.

링크(누르세요~)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40426-h.htm>

위의 링크를 한번 눌러 프로젝트-구텐베르크에 접속한 후에야
아래의 그림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있는) 그림삽입 :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ic257.png> (검

색일자 : 2016-7-10)

(원문에 있는) 그림제목 : 이삿짐 트럭에 실려 키다리 아저씨에게 돌려보내지고 있는 짐들.

설마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드렸던 넥타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르는 건 아니죠 ^_^

제 손으로 직접 짠 거란 말예요.

못 믿으시겠다면 안쪽을 잘 보세요 손수 만든 티가 날 거니까요.

추운 날 매시면 돼요, 외투를 목까지 단단히 올리시고요.

어쨌든 감사해요, 아빠, 천번 만번 감사해용~♥

정말 아저씨는 이 세상에 가장 착한 남성일 거예요... 상황 파악 못하시고 이렇게나 선물을 많이 보내시는 순둥이 아저씨~!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가.

제가 맥브라이드(=샬리=친구이름) 네 산장에서 주었던 네잎클로버를 동봉합니다.

뉴욕에 계시는 동안 아저씨께도 행운을 가져다 드릴 거예요~♥

(54장 끝)

(22세. 대학교4학년. 12월 26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53번째로, 12월 26일에 총 1통을 보냄)

55장. 키다리 아저씨

(1월 9일에 총 3통 보냄)

(3통 중 '1'번째 편지)

(22세. 대학교4학년 '1'학기)

(입학 후 54번째로, 1월 9일에 총 3통을 보냄)

1월 9일.

영원한 안식을 바랄만큼 뭔가를 간절히 바라신 적이 있으세요?

이곳의 가족이 그래요. 너무도 가난하시거든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이만 네 명 있어요... 좀 더 나이 많은 두 아들들은 돈 벌러 나간다며 사라진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는 유리 공장에서 일하시다 폐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병원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 가족의 모든 부양책임은 지금 스물네(24) 살인 큰 딸에게 부여된 상태예요.

큰 딸은 여성복 가게에서 일하는 데 하루에 3만원(원문→1.5달러)을 받아요, 이게 그녀가 벌 수 있는 다예요.

큰 딸은 그러고도 저녁에 돌아와 레이스(옷감) 따위에 수를 놓는 일을 한답니다.

엄마는 건강하지 못해요 무기력하시고 지나치게 종교적이세요.

손을 포갠 채 앉아서 체념의 한 숨만 내쉬고 계신답니다.

큰 딸은 과로와 가족 부양의무와 근심걱정들로 너무 힘이 들어서 스스로에게 안 좋은 선택을 할 뻔 했어요.

엄마는 가족이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어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2백만 원(원문→1백 달러)이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약간의 석탄과 세 어린아이가 신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신발 몇 켤레를 살 수 있을 텐데.

그럼 생활에 좀 여유가 생겨 큰 딸도 딴 생각을 안하게 될 거고 잠시나마 속상해하지 않아도 될 건데.

아저씨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부자세요.

2백만 원(원문→1백 달러)을 기부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 돈이면 저보다 이 집의 큰 딸에겐 훨씬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큰 딸만 아니었어도 이런 부탁까지는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되시는 분이 너무 T_T 너무 의지력이 약하셔서 그래요.

관심이 온통 천국에만 영원히 가 있는 분들이 말하는 방식 있잖아요.

“아마 다 잘 되겠죠.”라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겸양이 되었든 체념이 되었든 아니면 무엇이 되었든, 너무 무기력하시다는 거예요.

전(저는) 차라리 적극적인 종교를 지지해요!

내일 철학 강의 시간에 끔찍한 교훈인 ‘쇼펜하우어’(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이름)의 인생관을 배우게 될 거 같아요. 아노 벌써 현실 속에서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희가 점점 어떤 인생 관점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교수님은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좀 유별난 괴짜시거든요. 왜 있잖아요, 모든 게 뜬 구름 잡듯이 돌아가시는 분요, 그러다 이따금씩 딱딱한 돌부리에 부딪쳐도 이게 뭔가 하고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분요.

물론 가끔씩 재치있는 말로 수업 부담감을 줄이려 애쓰시면서... 저희를 웃게 하려고 노력하시지만, 전혀 웃기지도 않는 애기로 웃기려 하시니.

저희 학교 철학 교수님은 강의와 강의 사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물질이 정말 존재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만 탐구하고 계시거든요. T_T

그럼 어떤 의심도 없이 바느질만 해야 하는 이 집 큰딸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요!

제 새 소설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휴지통에 던져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죠, 애정 깃든 작가가 된다 한들 그게 위급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냇?

(21세. 대학교4학년. 1월 9일에 보낸 편지 3통 중, 1번째 편지 끝)

(1월 9일에 총 3통 보냄)

(3통 중 '2'번째 편지)

(22세. 대학교4학년 '1'학기)

(입학 후 54번째로, 1월 9일에 총 3통을 보냄)

나중에.

지난 번 편지 보내고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편도선(목)이 부어 이틀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이제 막 따뜻한 우유를 조금 삼킬 수 있어요, 그게 다행이에요.

“왜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학생이 아기 때 편도선을 제거할 생각을 안 하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알고 싶어 하네요.

확실한건 제가 그 분들 생각을 모른다는 거겠죠.

아니, 낱으시고 단 한 번이라도 저에 대해 생각이나 하셨을 까요.

당신의,

제이. 에이.(제루샤 에벗) 양이.

(22세. 대학교4학년. 1월 9일에 보낸 편지 3통 중, 2번째 편지 끝)

(1월 9일에 총 3통 보냄)

(3통 중 '3'번째 편지)

(22세. 대학교4학년 '1'학기)

(입학 후 54번째로, 1월 9일에 총 3통을 보냄)

다음날 아침에.

편지봉투에 풀을 바르기 전에 편지를 다시 읽어 봤는데요.

삶에 대한 모호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려고요.

저 젊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또한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해요. 아셨죠?

전 아저씨도 저와 같으리라 믿어요.

열정은 나이순이 아니잖아요, 그쵸, 생기 있는 영혼이면 된 거죠, 전 아저씨
의 머리가 회색이어도 괜찮아요, 아빠, 그리고 소년이어도 용서해드릴 용
의가 있어요.ㅋㅋ

심쿵이~♥,

주디(여주인공의 애칭)가.

(55장 끝)

(22세. 대학교4학년. 1월 9일에 보낸 편지 3통 중, 3번째 편지 끝)

(입학 후 54번째로, 1월 9일에 총 3통을 보냄)

56장. 키다리 아저씨

(1월 12일에 총 1통 보냄)

(22세. 대학교4학년 '1'학기)

(입학 후 55번째로, 1월 12일에 총 1통을 보냄)

1월 12일.

사랑하는 자선가(남을 돕는 사람) 씨에게,

가족에게 보낸 아저씨의 수표가 어제 막 도착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실내체육관에서 편지를 뜯다 황급히 닫고 점심 식사 마치자마자 바로 그 집에 들러 전달해주고 왔어요, 큰 딸(24세)의 얼굴이 어땠는지 상상하시는 그대로였어요!

너무 놀라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녀 안에 있던 젊은 여성이 다시 되살아난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24살인데, 너무 애잔하지 않나요?

하여튼, 지금 그녀(큰 딸)는 온 세상 기쁨을 다 가진 양 기쁠 거예요.

두 달만 더 지금처럼 꾸준히 일하면... 곧 결혼도 하게 될 거고, 혼수 옷가지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작은 종이 쪼가리가 2백만 원(원문→1백 달러)랑 것을 알게 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어요.

“주님이 아니에요,”라며 제가 말했죠, “이걸 주신 분은 키다리 아저씨예요.”

걱정 마세요, 이 부분에서 존 스미스 씨(키다리 아저씨의 가명)라고 적절히 호칭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천만에요! 키다리 아저씨 자신이 직접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라고 제가 말했죠.

뭐 어쨌든, 아빠, 주님이 아저씨를 적절히 보상하리라 믿으셔도 좋아요.

1만 년의 ‘연옥’(=천국에 가기 전의 단계)과도 같은 가치가 있는 값진 일을 아저씨가 지금 막 하신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주디(별명) 에벗(성씨)이.

(56장 끝)

(22세. 대학교4학년. 1월 12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55번째로, 1월 12일에 총 1통을 보냄)

57장. 키다리 아저씨

(2월 15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1'번째 편지)

(22세. 대학교4학년 '2'학기)

(입학 후 56번째로, 2월 15일에 총 2통을 보냄)

2월 15일.

(편지인사말임→) 바라건대 전지전능하신 폐하께 올림 :

오늘 아침 식사로 식은 칠면조 파이랑 거위 고기를 좀 먹었거든요, 그런 다음 특별히 부탁해서 차(마시는 차)도 중국산 차로 한번 마셔봤어요. 생전 처음 마셔본 거예요. :)

집내지 마여, 아빠... 초심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새뮤얼 피프스'(영

국 행정가. 당시 풍속을 알 수 있는 『일기』를 썼음. 생애 1633~1703년)의 책을 인용해본 거니까요.

저희 학년이 요즘 영국사와 관련해서 주요 자료로써 그의 책을 읽고 있거든요.

샬리(착한 친구)와 줄리아(엄청 부자 친구) 그리고 저는 지금 1660년대식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채링 크로스’(런던의 중심부에 있는 광장이름. 아래의 네이버지도 참조.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 바로 옆) 광장으로 가 거물 ‘해리슨’(사람이름)이 ○매 달리고 찢겨져 4등분 되는 걸 보았다. 그는 그 상황에서도 이 세상 어떤 남자보다도 쾌활해 보였다.”

▼ 네이버 지도 (검색어 = 채링 크로스)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51.5073,-0.12755&zoom=17&size=886x415&sensor=false&markers=51.5073,-0.12755&client=gme-nhncorp&signature=HPzGuC6C7tGEJRuACSGX98t5FII=&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1 (검색일자 : 2016-7-10)

그리고 이런 대목도 있어요.

“반점열(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급성 전염성 열병. 네이버사전 검색참조) 때문에 어제 자신의 남동생이 죽은 일로 큰 상심에 빠져 있는 내 마나님(아내)과 식사를 했다.”

재미를 논하기에는(말하기에는) 좀 이른 거 같죠, 그쵸?

‘피프스’(=새뮤얼 피프스. 영국 행정가. 당시 풍속을 알 수 있는 『일기』

를 썼음. 생애 1633~1703년)의 친구 한 명이 아주 교활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뭐냐 하면, 정부의 섞은 식량들을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판매해 왕이 자신의 부채를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였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개혁가 같나요?

피프스의 글을 읽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신문에서 떠드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뮤얼’(=새뮤얼 피프스. 영국 행정가. 당시 풍속을 알 수 있는 『일기』를 썼음. 생애 1633~1703년)은 자신의 복장(옷)에 대해 이 세상 어떤 여성들만큼이나 들떠했대요. :)

얼마나 심했는지 자기 아내보다 의복(옷)에 5배나 많은 돈을 썼대요... 정말 남편들의 황금시대가 아니고 뭔가요. ㅋㅋ

아직 감동은 안 오시죠?

그럼 이걸 어때요. 읽다보면 그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걸 아저씨도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낙타털로 만든 천’으로 만든 내 최고급 망토(=외쿠)가 황금 단추들을 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돈 좀 나갔다. 내가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게 배려해준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앗 이번 편지는 온통 ‘피프스’(새뮤얼 피프스) 얘기뿐이네요 죄송해요.

특별 주제로 아저씨에게만 편지를 적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

저희 학교 학생회에서 10시 규율을 폐지한 거 말예요.

저희는 이제 저희만 원하면 밤새껏 조명등을 꺼놓을 수 있어요, 유일한 조건은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불을 켜놓고 노느라...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만 주지 않음 되요.

그 결과 전 이렇게 인간본성에도 맞는 실시간 편지적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만큼 불을 켜고 안 잘 수 있게 되니, 얼씨구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희들의 고개(=머리)는 밤 9시만 되도 끄떡끄떡 거리기 시작해, 9시 30분이 되면 펜이 손에서 툭하고 떨어지며 뚫아떨어지거든요. ㅋㅋ

지금이 바로 그 9시 30분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21세. 대학교4학년. 2월 15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1번째 편지 끝)

(2월 15일에 총 2통 보냄)

(2통 중 ‘2’번째 편지)

(22세. 대학교4학년 ‘2’학기)

(입학 후 56번째로, 2월 15일에 총 2통을 보냄)

일요일.

조지아(미국 남부의 주)에서 교회 목사님이 막 돌아오셨거든요.

저희들 여학생들은 조심해야 한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대생들이 감정적인 부분을 잃으면서까지 공부에 매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네요...

하지만 이건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 아닌가요. 앗! 방금 이 표현은 ‘피프

스’(=새뮤얼 피프스. 영국 행정가. 당시 풍속을 알 수 있는 『일기』를 썼음.
생애 1633~1703년)의 글에서 가져왔어요.

설교는 매번 같으세요. 미국이나 캐나다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또한 각자의 종파(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남자 대학교에 가서선 “너무 많은 정신 활동을 하여 남성성을 뭉개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등등의 말씀은 절대 하지 않으시면서 왜 저희 여대에만 오시면 이러시는 거죠? *_*

아름다운 날씨였어요... 동상에 걸릴 것 같이 뽀뽀 언 그러면서도 하늘은 청명한.

만찬행사(식사시간)가 끝나자마자, 샬리(착한 친구)와 줄리아(부자 친구)와 ‘마티 키니’(친구.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와 ‘엘리너 프랫’(친구.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 그리고 저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서 <크리스탈(=유리) 스프링(=봄) 농장(=카페)> 까지 시골길을 가로지르며 걸어가 보았답니다.

앗 참 이름을 언급한 애들은 제 친구들이예요, 다는 모르시겠죠.

저희들은 농장(=카페)에서 프라이드치킨(닭고기튀김)과 와플을 저녁으로 먹었답니다. 그런 다음 ‘크리스탈 스프링(주인이름) 씨’가 저희를 4륜(바퀴4개) 짐마차에 태우시고 학교까지 태워다주셨어요.

그리하여 저녁 8시를 살짝 넘겨서 캠퍼스(학교)로 들어왔어요. T_T 규정 상 7시까지 입교해야 하거든요.

원래는 안 되는데 오늘밤만 특별히 용서받았어요.

그럼 작별인사 드릴게요, 착한 아저씨.

오늘 하루는 보람차게 보낸 거 같아 기분이 좋아요.

당신의 충직하고 성실하며 믿음직하고 순종적인 하인이 되고픈,

제이. 에벗(제루샤 에벗. 여주인공 실명)이.

(57장 끝)

(22세. 대학교4학년. 2월 15일에 보낸 편지 2통 중, 2번째 편지 끝)

(입학 후 56번째로, 2월 15일에 총 2통을 보냄)

58장. 키다리 아저씨

(3월 5일에 총 1통 보냄)

(22세. 대학교4학년 '2'학기)

(입학 후 57번째로, 3월 5일에 총 1통을 보냄)

3월 5일.

친애하는 평의원(=고아원의 이사)님께,

내일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이에요... 〈존 그리어 고아원〉 이었다면 고단한 하루가 될 터이었죠.

평의원(고아원의 이사) 분들은 아침 5시면 속속 도착하셔서 아이들의 머리를 톡톡톡 해주신 다음 횡 하고 가버리시죠!

아빠, 아빠도 혹시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셨나요?

제 생각엔 그러지 않으셨던 거 같아요... 제 기억속에 있는 분은 온통 똥똥한 평의원분들과만 관련이 있거든요. ㅋㅋ :)

여기에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음... 진실한 사랑이랄까요.

4년이란 아지랑이(=안개)를 통해 되돌아볼 때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져요.

처음 여기(대학교)에 왔을 땐, 다른 친구들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제 유년기가 서러워 화만 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은 전혀 남아 있지 않네요.

그냥 남들과는 다른 모험을 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남과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다볼 수 있는 일종의 유리한 고지를 제게 주었다 생각해요.

최근에서야 완전한 성인이 된 저는 세상과, 저보다 유리하거나 또는 완전히 불리한 입장에서 자란 타인에 대한 균형감 같은 걸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여기서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많은 여자애들을 만났어요. 예를 들면,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22세. 대학교4학년) 같은 애요.

애들은 그 감정(=불만족)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감(감각)이 줄어들어 버린 경우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제가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어요.

지금 이 감정을 계속 유지해나갈 생각이에요,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말이죠.

불행, 심지어 치통까지도 재미난 경험들로 여기고 제가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해하며 살아갈 거예요.

“내 위로 어떤 종류의 하늘이 드리우든, 난 인생을 예찬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노라.”(←이 구절은 미국 시인인, ‘헨리 롱펠로우’의 시를 참고한 거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음 쏘오리~ㅋㅋ. 참고사항 : 롱펠로우의 〈인생찬가〉 Bakeee님의 티스토리 블로그 링크 ► <http://bakeee.tistory.com/18>)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빠, 생각이 정말이지 쟈.ㄱ.ㄱ.(=‘존’ ‘그’리어 ‘고’아원)에만 미치면 이 새 감정(=인생예찬)이 힘을 못 발휘하거든요.

루소(프랑스의 철학자. 자신의 자식들을 모두 고아원에 보냈음. 그리곤 나중에 -_- 『에밀』이라는 교육관련 서적을 출간했음. 루소의 생애 1712~1778년)처럼 제게 자녀가 다섯 있었다 한들 자녀들이 진정 잘 자라나길 원한다면서 고아원에 보내는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리벳 부인(존 그리어 고아원의 원장님이름. 여주인공은 리벳 부인을 싫어했음)에게 제가 애정 어린 안부를 묻더라도 전해주세요. 진심어린 안부라 말해도 좋아요. 사랑은 좀 강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성으로 커나가고 있는지도 리벳 부인에게 전해주시는 거 잊으심 안 돼요.

심쿵이~♥,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58장 끝)

(22세. 대학교4학년. 3월 5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57번째로, 3월 5일에 총 1통을 보냄)

59장. 키다리 아저씨

(4월 4일에 총 1통 보냄)

(22세. 대학교4학년 '2'학기)

(입학 후 58번째로, 4월 4일에 총 1통을 보냄)

록 월로우 농장(농장이름. 록=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부활절 휴일 동안 농장에 와 있음),

4월 4일.

사랑하는 아빠께,

소인(우편물을 보낸 우체국주소) 보냈어요?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에. 22세. 대학교4학년)와 저 지금 '부활절 휴일'(부활절 전후의 1-3주 간의 휴일) 동안 록 월로우 농장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어요.

열흘 동안 뭘 할까 하다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았죠 그 결과 짜잔
함께 여기로 오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 결심하게 되었죠.

이젠 ‘퍼거슨 관’(여주인공의 학교 기숙사 건물 이름)의 그 어떤 음식에도
물려서요.T_T

다른 지방의 음식을 먹고 싶어 여기로 왔답니다. ㅋㅋ

4백 명이나 되는 여자애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음식까지 물렸을 때는
정말 호된 시련이거든요.

또 시끄럽긴 어찌나 시끄러운지 기숙사 식사 시간엔 확성기로 소리치진
않고는 식탁 테이블 반대쪽에 있는 아이의 얘기를 들을 수도 없답니다.

참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언덕들 위를 쿵쿵쿵쿵 밟으며 걸어보기도 하고 독서를 하거
나 글을 짓기도 하며 좋고 아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는 ‘하늘 언덕’(산 이름)의 꼭대기에도 오늘 아침에 올라가 보았어요.
아시죠? 작년에 제가 저비스 도련님과 여기서 저녁을 요리해 먹었던 곳이
요… 그리고 보니 그 일(저비스 도련님과 등산)이 거의 2년 전의 일이 되
었네요. 믿기지가 않아요. 저비스 도련님과 불을 피웠던 바위는 여전히 까맣
게 탄 자국이 있었거든요.

특정한 장소를 특별한 사람과 연관 짓다니 우스워져요, 아저씨(키다리 아
저씨)는 그런 것 없이도 되떨아볼 수 있는데 말이죠.

2분 동안이었지만… 그(저비스 도련님)가 옆에 없다는 것이 아주 외로웠어
요.

제 최근 행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

제멋대로라고 확신하기 시작하셨죠 그쵸…

저 요즘 책 쓰고 있어요. 쓰기 시작한 건 3주 전쯤이고요 지금 상당한 분량의 원고를 집필한 상태예요. 내용은 일단 비밀이에요.

가만 생각해보니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과 편집장님(출판사 편집장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글을 쓸 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쓰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를 선택했어요... 조사도 철저히 했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알아 맞춰보세요?

맞아요 <존 그리어 고아원> 이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아빠, 전 그렇게 믿거든요... 그곳에서 매일 벌어졌던 지극히 사소한 것에 대해 적고 있어요.

저 이제 사실주의 작가 다 되었어요.

로맨틱함, 안녕(=잘 가)~

비록 처음으로 되돌아가긴 했지만, 그건 온전한 제 미래의 시작과 같아요.

새 원고는 집필이 끝나는 대로... 출간될 예정이에요!

왜냐면 출판사에서 안 받아주면 아저씨(키다리 아저씨)가 읽어주실 거거든요.

뭐든 꾸준히 열심히 바라면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다만 수년 동안 아저씨로부터 답장 한 통 받고 싶어 애걸복걸했지만... 이걸 아직도 안 이루어졌지만요. 사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안녕’이라고 불러도 되죠. 첫 글자를 ‘o’으로 맞춰어요. :)

심쿵이~♥,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추신.

농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좀 산만해요.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 감성이 지치셨다면 이번 추신은 건너 뛰셔도 되요.

불쌍한 ‘그로버’(나이 많은 말 이름.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림. 저비스 도련님이 처음 농장에 갔을 때 어린 말이었음)가 ○었어요. 너무 나이를 먹어 음식물을 씹을 수가 없어서, 농장 사람들이 의견을 나눈 후 총을 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답니다. T_T

지난주엔 족제비 한 마리와 스웁크 한 마리 그리고 쥐 한 마리의 공격을 받아 아홉 마리 병아리들이 ○고 말았어요.

젖소들 중 한 마리가 아파요. ‘보니리그’(마을이름. 보니=아름다운. 리그=마차) 네거리(=십자로)에서 수의사 분이 이 일로 다녀갔어요.

수의사 분이 아픈 젖소에게 ‘아마인유’(아마의 씨에 함유된 ‘액체 상태의 지방’)를 먹이라고 해서,

‘아마새’(농장 남자직원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임. 이름 뜻은 ‘무거운 짐진 자’임)가 밤새 젖소 곁에 머물며 ‘아마인유’와 위스키를 먹였어요.

하지만 바보도 아니고 정말 T_T 젖소가 아픈데 ‘아마인유’라니요 그래서 농장 사람들이 모두 정말 ‘아마인유’를 먹여도 되는지 몹시 미심쩍어했답니다.

다정다감했던 ‘삼색 털 얼룩고양이’(사진링크▶ <http://me2.do/5zc4nFJ5>)인 ‘토미’(고양이이름)가 사라졌어요. 고양이가 밧에 걸린 것은 아닌지 온 농장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답니다.

세상엔 참 별일들이 많죠!

(59장 끝)

(22세. 대학교4학년. 4월 4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58번째로, 4월 4일에 총 1통을 보냄)

60장. 키다리 아저씨

(5월 17일에 총 1통 보냄)

(22세. 대학교4학년 '2'학기)

(입학 후 59번째로, 5월 17일에 총 1통을 보냄)

5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이번 편지는 극히 짧을 거 같아요, 하루 종일 펜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어깨가 아파서요.T_T

하루 종일 강의 노트 적고, 저녁 내내 불후의 소설을 쓰다 보니 어깨가 남아나질 않네요.

다음 수요일로부터 3주 후면 제 졸업식이에요.

오실 거죠 그쵸 꼭 오셔야 돼요. 약속했어요! 저랑 약속한 거예요...

안 오심 정말 아저씨 미워할 거예요!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22세. 대학교4학년)는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 삼촌)을 초대했던 말예요, 저비스 도련님이 줄리아의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애. 22세. 대학교4학년)는 ‘지미 맥브라이드’(샬리의 큰 오빠. 작년에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했음)를 초대했어요, 그가 샬리의 가족이니까요.

그럼 전 누구 초대해야하나요? 제게 가족이 누가 있다고요 ㅠ_ㅠ

제가 아는 분이라곤 아저씨(키다리 아저씨)와 리펫 원장님(고아원 원장님)뿐인데, 리펫 원장님은 죽어도 초대하기 싫단 말예요.

그리고 부디 제발 꼭 와주셔야 해요, 넷!

넘 많이 쓰서 손에 쥐가 나는, 당신의 심쿵이~♥,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그녀는 작가 지망생이라 한다.

(60장 끝)

(22세. 대학교4학년. 5월 17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59번째로, 5월 17일에 총 1통을 보냄)

61장. 키다리 아저씨

(6월 19일에 총 1통 보냄)

(22세. 대학교 졸업함)

(입학 후 60번째이자, 졸업 후 1번째로, 6월 19일에 총 1통을 보냄)

룩(=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농장이름) 농장.

6월 19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 졸업했어요!

졸업장은 드레스 두 개로 잘 감싼 다음 옷장서랍 맨 밑에 고이 보관해두
었어요.

졸업식은 평상시와 같았어요, 꼭 필요한 때에 소나기도 조금 왔었고요.

장미꽃 봉오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장미꽃이었어요.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과 지미 도련님(샬리의 큰 오빠) 모두 또한 제게 장미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 두 분이 주신 장미는 목욕통에 살짝 담가두었고요, 졸업생 행렬 때는 아저씨가 주신 장미꽃 봉오리들을 가지고 갔어요.

이번 여름 동안은 여기 록(=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농장에서 있으려고요... 어찌면 영원히 있을 수도 있어요 ㅋㅋ :)

식대(식사 값)도 싸고, 주변 환경도 아늑하고 편안해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작가로써 더 바라는 건 없느냐고요?

제 원고에 좀 더 미치는 거요.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밤에 꿈꾸다가도 생각해요.

제가 바라는 건 죄다, 창작을 위한 평화와 차분함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이에요. 중간 중간 영양가 있는 식사가 곁들여지면 좋겠죠. ㅎㅎ

8월에 1주일 쯤해서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이 다녀갈 거 같아요.

그리고 ‘지미 맥브라이드’(샬리의 큰 오빠)도 여름에 틈나는 대로 이따끔씩 여길 들를 거 같아요. 그는 지금 금융회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채권을 은행에다 파는 일을 해요. 이번에 시골에서 열리는 “농민 전국대회”에 들렀다 그 김에 저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제가 여기 록 월로우 농장(언덕뿐인 시골임)에서 전혀 사교적인 만남을 못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 안 하셔도 되요. ㅋㅋ

아저씨가 자동차를 몰고 오셔도 되는데... 그럼 제가 알 수 있을 건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리고 아저씨가 제 졸업식에 안 오셨을 때, 제 마음 한편에서 아저씨를 떼어내 영원히 고이 묻어 두었어요.

미워할 거예요.

우체국에서, 주디(애칭) 에벗(성씨)이.

(61장 끝)

(22세. 대학교 졸업함. 6월 19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60번째이자, 졸업 후 1번째로, 6월 19일에 총 1통을 보냄)

62장. 키다리 아저씨

(7월 24일에 총 1통 보냄)

(22세. 대학교 졸업 후 1개월 경과)

(입학 후 61번째이자, 졸업 후 2번째로, 7월 24일에 총 1통을 보냄)

7월 24일.

키다리 아저씨 짱(최고)~♥,

일하시는 거 재미있으세요... 아님 생전 한 번도 일이랑 걸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저씨가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할 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잘 하시는지 특히 궁금해지는 하루였어요.

전 여름 내내 매일 같이 제 펜을 굴릴 수 있는 최대한 빠르기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어요.

제 삶에 대한 유일한 불평은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이 아름답고 값지고 재미난 생각들을 온전히 글로 다 옮길 만큼 하루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제 원고의 두 번째 수정을 마무리 지었어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세 번째 수정을 시작하려고요.

일찍이 아저씨도 보시면 달콤해하실 원고예요... 정말, 그래요.

딱 건 전혀 생각안하고 있거든요.

어찌나 집필에만 골몰하는지 원고작업 시작하기 전 아침에 옷 입는 거며 밥 먹는 것까지도 아까워요.

그런 다음 뭔가에 휘감겨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러다 완전히 방전되어 완존 지쳐 있지만요.

그럴 때면 ‘콜린’(양치기 개 이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들판을 시원시원하게 걸어보며 내일을 위해 신선한 바깥바람과 아이디어를 얻어요. ‘콜린’은 새 양치기 개 이름이에요.

정말 아저씨가 보심 가장 아름다워 하실 책이 될 거예요... 앓 참... 이 말했죠 참.

그렇다고 제가 너무 자만심에 차 있다 생각은 마여 아빠, 알았죠?

정발, 전혀 그렇지 않으니깐요, 전 지금 막 열정적인 단계에 있을 뿐이에요.

아마 후엔 폭 기가 죽어선 비관적이고 까다로운 소리를 해댈지도 몰라요.

아니, 방금 이걸 그냥 가정으로 한 소리니 절대 귀 담아 듣지 마여!

이번만은 진심 제대로 된 원고를 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꼭 보여드릴 테니 기다리셔야 해요 아셨죠.

잠깐만 딱 얘기 좀 해 볼게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그렇죠, ‘아마새’(농장 남자직원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임. 이름 뜻은 ‘무거운 짐진 자’임)와 ‘캐리’(여자이름. 가사도우미)가 작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린 거 아세요?

그들은 지금도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하지만 결혼생활이 그 좋은 두 분의 인성을 다 버린 경우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캐리(가사도우미)의 경우 연애했던 아마새(농장직원)가 뭘 소리를 해도 웃기다며 웃고 진흙에서 쿵쾅거리기도 웃고 바닥 위에 잣더미를 떨어뜨려도 귀엽다고 웃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잔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캐리는 더 이상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하고 다니지 않아요.

아마새(농장직원)은 또 어떤데요, 용탄자를 털어주며 장작을 날라 주며 그렇게도 다정다감하던 남자가 글썄, 결혼 후엔 불평불만을 달고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상상이 가셨나요?

또한 아마새(농장직원)의 넥타이들은 죄다 너무 더러워요… 검정색과 갈색의 넥타이인데, 원래 그 넥타이들은 주홍색과 자주색이었거든요.

저 결심했어요.

전 절대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이 둘의 결혼생활을 보면 서로를 망치는 과정인게 너무도 명확해보여서요.

이외에는 농장관련 새 소식은 없어요.

가축들은 모두 건강하고요.

꿀꿀이(돼지)들은 전에 없이 똥똥하고요, 젖소들도 토실토실하고, 암탉들은 알을 잘 낳고 있어요.

가금류(닭, 오리, 거위 등등)가 궁금하세요?

그럼 제가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책을 한 권 추천해드리죠.

바로,

『1년에 암탉 한 마리당 200개의 알을 낳는 방법』이에요.

아직 출간되어 있는 책은 아니고, 제가 지금 원고 끝내고 다음 해 봄부터 쓰기 시작할까 뽀글뽀글 생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책 이름이에요.

어때요? 저 이젠 완전히 록(=늘어뜨린) 윌로우(=버드나무) 농장의 여인 다 되었죠?

‘앤서니 트롤립’(영국 소설가. 생애 1815~1882. 대표작은 『바셋주 이야기』. 당시 영국사회를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하네요.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함)의 어머니처럼 114권의 소설을 다 쓸 때까지 여기(록 윌로우 농장)서 머무를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ㅋㅋ

그리고 나면 집필활동을 종료하고 작가도 은퇴하고 여행을 다니며 남은 생을 보내려고요.

지미 맥브라이드 씨(샬리의 큰 오빠)가 지난 일요일엔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 가셨어요.

저녁식사로 프라이드치킨(튀긴 닭)과 아이스크림 나왔는데, 이 둘 다 감사해하며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만나 몹시 기뻐했어요. 그가 바깥 세상에 대한 순간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주세 했거든요.

불쌍한 ‘지미’(샬리의 큰 오빠), 채권 판매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일이 너무 고되었다고 해요.

이번에 참석한 “농민 전국대회”도 실제로 농민들이 1천 2백 원 또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1천 4백 원을 낸다지만 실제 농민 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사였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 지미가 곧 금융회사 관련 일을 정리하고 고향인 ‘우스터’(도시 이름. 샬리의 집임. 아래 네이버지도 참조바람)로 돌아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것 같았어요.

▼ 네이버 지도 (검색어 = 우스터 = 셸리의 집)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2.2625932,-71.8022934&zoom=7&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2.2625932,-71.8022934&client=gme-nhncorp&signature=aQ11URmLrjK0n7HXXH94wqMjFKAk=&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1 (검색일자 : 2016-7-12)

지미는 너무 솔직하고 남을 잘 믿고 마음씨가 상냥해 성공한 자본가가 될 순 없을 거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 공장의 관리자 정도라면 전반으로 잘 적응해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은 그가 기가 죽어있지만, 곧 잘해나갈 거예요.

요즘 글 쓸 때마다 손에서 쥐가 나서 고생 중인 작가 지망생에게 이만큼이나 긴 편지를 받게 되신 걸 감사하셔야 해요, 아셨죠?

하지만 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빠, 그래서 전 너무 행복해요.

아름다운 주변 풍경이 펼쳐져 있고, 먹을 게 많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기둥 네 개짜리 침대와, 글을 쓸 수 있는 다량의 종이와 잉크병이 있는데... 지금 제게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추신.

집배원아저씨께서 새 소식 몇 개를 전달해주고 가셨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께서 이곳에 오셔서 한 주를(1주일) 보내시고 가신데요.

님 기대돼요... 그렇지만 아직 원고도 완성되지 못했는데 (원고가) 방치되 지나 않을지.

저비스 도련님이 원래 좀 요구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62장 끝)

(22세. 대학교 졸업 후 1개월 경과. 7월 24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61번째이자, 졸업 후 2번째로, 7월 24일에 총 1통을 보냄)

63장. 키다리 아저씨

(8월 27일에 총 1통 보냄)

(22세. 대학교 졸업 후 2개월 경과)

(입학 후 62번째이자, 졸업 후 3번째로, 8월 27일에 총 1통을 보냄)

8월 27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디세요, 저 궁금해요?

아저씨가 이 세상 어디쯤에 위치해 계신지 전 모르잖아요, 현재 뉴욕엔 안
계시길 바래요, 이번 뉴욕 날씬 장난이 아니라던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안전한 장소는 산꼭대기에요.ㅋㅋ 아뇨 스위스에 있
는 알프스 산 꼭대기가 아니라 어디쯤 이 근처의 산꼭대기 말예요. 온도 조

금 내려다보이고 저에 대해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아늑한 장소요.

부디 저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아셨죠.

저 너무 외롭거든요, 이것저것 생각도 필요해서요.

아, 아빠, 당신이 누군지 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그럼 서로 둘 중 누군가가 의기소침해 있을 땐, 상대방을 격려해줄 수 있을 거잖아요.

록(=늘어뜨린) 윌로우(=버드나무) 농장에서 더는 더 못 있을 거 같아요.

이사를 해볼까 생각중이에요.

샬리(붉은 머릿결을 한 약간 들창코 여자에. 23세)가 내년 겨울쯤에 보스턴(미국 동쪽. 네이버지도참조)에서 구빈사업(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할 거라는데.

▼ 네이버 지도 (검색어 = 보스턴)

[대축척 지도]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2.3600825,-71.0588801&zoom=13&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2.3600825,-71.0588801&client=gme-nhncorp&signature=hfgAOoTtQco_m0N4Ahe6QXd85bs=&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1 (검색일

자 : 2016-7-12)

[소축척 지도]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2.3600825,-71.0588801&zoom=3&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2.3600825,-71.0588801&client=gme-nhncorp&signature=Tmdk66bWOECWQiVKgn1gXkSA4lY=&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1 (검색

일자 : 2016-7-12)

샬리와 함께하는 게 체계도 나을 것 같은데 아저씨 생각은 어떠세요? 그녀와 작업실(원문에 있는 스튜디오에는 ‘원룸’이란 뜻도 있음)을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요?

샬리가 일을 하는 동안 저는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여긴(룩 윌로우 농장) 저녁이 너무 길어요. 사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샘플 부부’(여주인공과 종파가 다름. 샘플 부부는 개신교. 여주인공은 가톨릭교에 가까움)와 ‘캐리’(가사도우미)와 ‘아마새’(농장의 남자직원 이름. 캐리의 남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아저씨(키다리 아저씨)가 제가 방금 생각해낸 작업실(스튜디오) 건을 좋아하지 않으리란 것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거든요.

지금 아저씨의 비서분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어요.

(편지시작→) <“미스 ‘제루샤 에벗’(여주인공의 진짜 이름) 양에게.

“안녕하십니까 마담,

“알려드립니다. 스미스 씨(‘존 스미스’는 키다리 아저씨의 가명임)께서는 당신이 룩 윌로우 농장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엘머(남자이름) H.(에이치) 그리그스(키다리 아저씨의 비서이름. 영어단어 ‘그리그’는 쾌활한 사람이란 뜻임. 귀뚜라미란 뜻도 있음) 드림.”> (←편지

끝)

전(저는) 아저씨 비서 분을 증오했어요.

엘머(남자이름) H.(에이치) 그리그스(키다리 아저씨의 비서이름. 영어단어 ‘그리그’는 쾌활한 사람이란 뜻임. 귀뚜라미란 뜻도 있음)라는 분은 엄청 끔찍하신 분일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진실로, 아빠, 저는 제가 보스턴(미국 동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룩 윌로우 농장)서 더는 머물 수 없어요.

제 생활에 곧 변화라도 주지 않음, 정말이지 순전히 자포자기해서 깊은 지하 땅굴 속에 몸을 내던질지도 몰라요.

어쨌쥬! 여긴 요즘 너무 더워요.

잔디가 모두 타버렸고요, 시냇물들도 메말랐고, 도로 위에도 마른 먼지 뿐이에요.

몇 주의 몇 주가 지나도록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있어요.

마치 제 마음이 광견병에 걸린 마냥 편지를 썼네요.

하지만 그리 심한 건 아니니 걱정 마세요.

다만 전 가족이 좀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잘 자여, 제가 사랑하는 아빠.

당신을 알 수만 있다면.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63장 끝)

(22세. 대학교 졸업 후 2개월 경과. 8월 27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62번째이자, 졸업 후 3번째로, 8월 27일에 총 1통을 보냄)

64장. 키다리 아저씨

(9월 19일에 총 1통 보냄)

(22세. 대학교 졸업 후 3개월 경과)

(입학 후 63번째이자, 졸업 후 4번째로, 9월 19일에 총 1통을 보냄)

록(=늘어뜨린) 윌로우(=버드나무. 농장이름)에서,

9월 19일에.

아빠께,

일이 있었는데요, 조언이 필요해요.

이 세상 다른 누구도 아닌, 아저씨(키다리 아저씨)의 조언이 꼭 필요해요.

제가 아저씨를 좀 뵈어도 될까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편지로 알려드리는 것보다 쉬울 거 같아

서요.

편지는 중간에 아저씨의 비서 분께서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추신.

전 너무 불행해요.

(64장 끝)

(22세. 대학교 졸업 후 3개월 경과. 9월 19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63번째이자, 졸업 후 4번째로, 9월 19일에 총 1통을 보냄)

65장. 키다리 아저씨

(10월 3일에 총 1통 보냄)

(22세. 대학교 졸업 후 4개월 경과)

(입학 후 64번째이자, 졸업 후 5번째로, 10월 3일에 총 1통을 보냄)

록(=늘어뜨린) 월로우(=버드나무) 농장,

10월 3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가 직접 손으로 쓰신... 아주 떨리는 손으로 쓰신!... 메모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죄송해요 아프신 거 몰랐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서 제 일만 챙겨달라고 아저씨를 조른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아저씨께 제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편지로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번 편지는 읽으시고 꼭 불에 태워주세요.

애기를 시작하기 전에... 2천만 원(원문→1천 달러)짜리 수표 한 장을 동봉해 보내드려요.

약간 웃기죠, 그쵸, 제가 아저씨께 수표를 보내드리다니요?

이걸(수표) 어떻게 얻었게요?

제 원고가 팔렸거든요, 아빠.

7개 파트로 나눠 시리즈물로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런 다음 책으로도 출간이 되고요!

아저씨는 제가 이 일(책 출간)로 기뻐 날뛰고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정반대에요.

원고가 팔린 거에 저는 지금 관심도 없어요.

물론 아저씨께 빚을 갚기 시작했다는 것엔 감사하지만... 제가 아저씨께 빚지고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원문→1천 달러) 이상이잖아요.

나머지는 차차 나눠서 갚아 드릴게요.

지금은 부디, 불쾌해하지 마시고, 드리는 돈을 받아주세요, 왜냐면 아저씨께 돌려드리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순한 금전 몇 푼 이상을 아저씨께 빚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제가 살아가면서 크게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애정을 가지고 차차 갚아 나갈게요.

그럼 자 이제부터, 아빠, 제 얘기를 해볼테니, 제발이지 제게 그것을 좋아해야 하는지 아님 아닌지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들려주세요.

아저씨도 잘 아시다시피, 전 지금까지 항상 아저씨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특별한 감정을 지녀왔어요. 뭐랄까 아저씨가 꼭 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 만약 제가, 아저씨 말고 또 다른 한 명의 남자에게 그 특별한 감정을 좀 더 많이 품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제발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네?

그 분이 누구신지는 제 입으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동안 제 편지를 아주 오랫동안이나 ‘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 애기로 채운 걸 저도 어렴풋이는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희(여주인공과 저비스 도련님)과 완전히 동무(친구)와 같다는 사실을 아저씨께서도 이해해주실 길 바래요.

제 생각을 그에게 걸맞게 맞추려는 제 성향이 싫었을 정도로... 저희는 모든 면에서 생각이 비슷해요!

네 그는 언제나 옳아요, 옳을 수밖에 없어요, 아저씨도 아시듯, 그는 저보다 14년 일찍 세상을 시작했는걸요.(여주인공나이 현재 22세. 저비스 도련님의 나이 현재 36세)

그렇지만, 반면에, 그 분은 그냥 철없는 소년에 지나지 않아요, 돌봄이 필요하시죠... 비오는 날 고무장화도 신으실 줄 모르시는 분인걸요.

그 분과 저는 비슷한 주제에 대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척 많아요, 무척이요.

다만 저희 둘의 유머 감각이 반대되는 건 끔찍해요.

그 틈을 메울 적당한 다리가 있으리라곤 저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36세)는...

오, 이런!

그는 유력한 집안의 자제분이세요, 그리고 저(22세)는 그가 그럽고, 그가 그럽고, 그리워요.

세상이 텅빈 것 같이 마음이 아파요.

그 종던 달빛도 이젠 너무 싫어요. 달빛은 아름다운데, 그는 여기 없는데, 저와 함께 달빛을 볼 수 없는데.

아마 아저씨(키다리 아저씨)는 누군가를 사랑해보셨겠죠, 그렇죠?

만약 그러셨다면, 제 설명이 필요 없을 거고. 만약 그러지 못해보셨다면, 지금 제 감정을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게 제 감정인 걸요... 그리고 저, 그가 결혼하자는 걸 거절하고 말았어요.

거절한 이유를 그(=‘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36세)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병어리 냉가슴에 제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졌거든요.

그 밖에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자 이제 그는 내(22세)가 ‘지미 맥브라이드’(샬리의 큰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상상하며 가 버렸어요... 그게 전혀 아닌데 말이죠, 지미(샬리의 큰 오빠)와 결혼은 꿈도 꺾보지 않은 걸요. 지미는 아직 충분히 다 성장하지도 않았단 말예요.

하지만 저비스 도련님과 저는 대화 도중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끔찍한 혼동속으로 빠져들고 말았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저비스 도련님)를 놓아보내준 이유는 제가 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도 많이 그(저비스 도련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저를 자세히 알고 미래의 어느 날 실망하게 되실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제가 왜 그를 마다했겠어요!

저처럼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큰 집안의 자제분과 결혼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도 모르겠든거예요.

고아원 애긴 그에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저도 모른다는 걸 설명드리긴 너무도 증오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전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의 집안이 자랑스럽다면... 그럼 상대방인 제 집안도 역시 자랑스러워야하지 않나요!

그래요, 전 제 자신의 감정에 파묻혔던 거예요.

한 명의 작가로 교육받기 전에 적어도 한 여자였어야 해요.

아저씨가 주신 훈육(대학교육 기회)을 받아들인 건 정당하다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졸업하고 나면 어찌시려고 그랬나요.

하지만 제가 그 돈을 조금씩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부채(빚)가 조금씩이라도 제게서 경감된 거 같이 느껴질 수만 있다면, 그럼 그때 제가 비록 결혼을 하였더라도 한 명의 작가로 계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두 직업(작가와 결혼생활)을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주 고민해서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물론 그 분은 사○주의자시고, 자유로운 생각을 지니고 계신 분이기에, 프롤○타리아트(최하층 무산 계○) 계층의 여인과 결혼하는 걸 이 세상 그 어떤 남자들보다 꺼려하실 분이 아니시지만.

아마도 두 사람이 잘 맞는다면 함께 있음 행복하고 떨어지면 서운하겠기에, 그러기에 서로 사이에는 말 못할 비밀이 없어야 하는 경계요.

물론 이걸 제가 그리 믿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감정적이지 않은 아저씨(키다리 아저씨)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저씨에겐 가족도 있으니, 저처럼 감정적인 관점이 아닌 보다 세속적인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아주실 수 있을 테고, 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 얘기를 아저씨 앞에 꺼내놓기까지 제가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아세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가령 제가 그 분(=‘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 삼촌’=36세)께 간다면(결혼을 승낙한다면), 문제는 지미(샬리의 큰 오빠이름)가 아니라, 존 그리어 고아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로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 그 분께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 대가로 남은 제 인생 전부를 비참한 기분으로 살아야하겠죠.

이 일은 거의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가 여기(룩 윌로우 농장)를 떠난 이후 전 그(=‘저비스 도련님’=‘줄리아의 막내삼촌’=36세)로부터 한 마디 말도 전해 듣지 못하고 있어요.

상처 입은 제(22세) 마음은 점점 익숙해져만 가고 있어요, 그러던 찰나 줄리아(뉴욕 최고 가문 출신 여자애. 22세)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제 마음을 완전히 다시 찢어놓고 말았어요.

줄리아가 편지에서... 우연히 말하길,

“저비스 삼촌이 캐나다로 사냥을 나가셨다가 밤새 폭풍우 속에 갇히는 바람에, 이후 줄곧 폐렴(미생물감염으로 폐에 염증이 생긴 병)으로 앓아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 마디 말도 없이 가버린 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건데.

이제야 알았어요, 그 분이 아주 불행하시다 생각하니 제가 불행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저씨가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 같나요?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65장 끝)

(22세. 대학교 졸업 후 4개월 경과. 10월 3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64번째이자, 졸업 후 5번째로, 10월 3일에 총 1통을 보냄)

66장. 키다리 아저씨

(10월 6일에 총 1통 보냄)

(22세(여주인공의 생일은 11월 2일임). 대학교 졸업 후 4개월 경과)

(입학 후 65번째이자, 졸업 후 6번째로, 10월 6일에 총 1통을 보냄)

10월 6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꼭 갈게요.

걱정마세요, 어떻게든 길을 물어서라도 찾아가도록 할게요.

뉴욕엔 그동안 세 번씩이나 다녀갔던 걸요, 이젠 저도 어린애도 아니고요.

정말 아저씨(키다리 아저씨)를 만나게 된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실까 이토록 오랫동안 생각만 해오다 막상 이렇게 기회가 오니 넘

떨려요. 정말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시긴 하셨구나 하는 느낌 아닌 느낌이랄
까요.

몸이 편찮으시다면서, 절(저를) 신경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빠.

뵈는 때까지 몸 건강히 계시고요 감기 걸리심 안 돼요.

가을이 여무는지 비들이 아주 촉촉해요.

심쿵이~♥,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추신.

아 방금 생각났는데요.

아저씨 집에 집사 분 계신가요?

전 집사 분들을 무서워하거든요, 만약 집사 분이 문을 열어주신다면 전 계
단에서 창백해질 수도 있어요.

집사 분께 미리 제 애길 해 놓아주실래요?

아저씨가 제게, 아저씨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라고요.

그럼 전, ‘스미스 씨’(존 스미스 는 키다리 아저씨의 가명임) 계십니까, 라
고 물어도 되죠?

(66장 끝)

(22세. 대학교 졸업 후 4개월 경과. 10월 6일에 총 1통 보냄)

(입학 후 65번째이자, 졸업 후 6번째로, 10월 6일에 총 1통을 보냄)

67장. 키다리 아저씨

(★ 이 편지가, 이 소설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소설에는 65번째 편지(66장)와 66번째 편지(67장) 사이에 날짜구분이 없지만, 제가 장의 숫자를 예쁘게 맞추기 위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1통을 직접 건네줌)

(22세. 대학교 졸업 후 4개월 경과)

(입학 후 66번째이자, 졸업 후 7번째, 직접 1통을 줌)

목요일 아침에.

(인사말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비스 도련님이자 아빠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펜들턴 스미스에게,

(참고사항 : 펜들턴=뉴욕 최고의 가문 중 하나)

지난 밤(어젯밤)엔 잘 주무셨나요? (여주인공이 방문한 것은 어제(수요일)
오후 4시 30분이었음)

전 그러질 못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흥분되고 당황한데 행복한 기분 있지 제가 바로 그랬어요.

앞으로도 제가 잠을 잘 수 있으리라 믿기지 않아져요... 제가 제정신으로 밥은 먹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당신만은 잘 주무셨길 잘 드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해요, 아셨죠, 얼른 몸이 건강해지시려면 그래서 제게 다시 오시려면 꼭요.

사랑하는 이여, 전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더더욱 견딜 수가 없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제 방문하셨을 때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처음 3일 동안은 의사 자신들도 당신을 포기했었다고 해요.

오, 내 사랑, 그랬다면, 저도 다시는 빛을 안 보았을 거예요.

먼 미래... 언제가... 우리 중 한 명이 상대방을 남겨두고 가야만 한다 하더라도, 그땐 적어도 저희 사이에 함께 살아온 행복과 추억들이 있어 그걸 벗 삼아 남은 생을 이겨내겠지요.

당신을 응원할 작정이었던 건... 제 자신을 복돋우기 위함이었어요.

꿈 보다 훨씬 더 행복감에 젖어 있는데도 제 정신만은 또렷해져요.

혹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 제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요.

이전의 저는 경솔하고 태평하고 걱정이 없었죠, 그건 잃을 수도 있는 귀중

<http://www.gutenberg.org/files/40426/40426-h/images/plateIV.jpg> (검색

일자 : 2016-7-13)

사진제목 : 주디(여주인공 애칭) 저비스(키다리 아저씨)를 포옹하다.

사진 아래의 설명 : 이로써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는 확실해졌습니다.

부디 얼른... 얼른... 얼른... 나으세요.

당신을 제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싶고 당신이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예요.

저희가 함께 한 건 고작 30분!

하지만 전 벌써 그게 꿈이었는지 두렵습니다.

제가 당신 가족의 구성원이었다면 아니 아주 먼 4촌 조카였다면 제가 매일
당신을 방문해 보살펴드리텐데, 책도 읽어드리고 당신이 사용하는 베개도
깃털로 짚꽂 채워드리고 당신 이마 위에 있는 잔주름 두 개도 펴드릴 텐데
당신 입가에 미소를 달아 보기 좋은 웃음이 되게 할 텐데.

이제 당신은 다시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런 거죠?

어제 제가 떠나올 때만 해도.

의사 선생님이 따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좋은 간호사임이 분명하다
고요, 당신(키다리 아저씨)께서 10년은 더 젊으셨데요.

사랑한다고 서로를 똑같이 10년은 어리게 만들진 말기에요.

그치만, 만일 제(22세)가 당신(36세) 때문에 고작 12살로 되돌아간대도,
내 사랑, 그래도 절 사랑해주실 거죠?

어제는 여태껏 중 가장 경이로운 날이었어요.

99살까지 산다 해도 어제 있었던 사소한 일 하나하나 다 기억할 그런 날

요.

새벽에 록(=늘어뜨린) 윌로우(=버드나무) 농장을 출발한 여자가 밤이 돼서 돌아올 때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제 새벽 4시 30분이 되자 샘플 부인(농장의 주인)이 저를 불렀답니다.

전 어둠 속에서 황급히 깨어 우선 머릿속으로,

“앗 참 오늘 키다리 아저씨 만나러 가는 날이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렸더랬죠.

촛불이 켜진 부엌에서 아침을 먹은 다음, 차를 타고 찬연한(=장려한) 10월의 빗길을 가르며 정거장까지 8킬로미터를 달려갔어요.

가는 도중 해가 떠올라, ‘아메리카 꽃단풍’들(사진링크▶
<http://me2.do/GSvIXOgK>)과 ‘말채나무’(사진링크▶
<http://me2.do/GcIYBu0Q>)를 빨강계 물들이고, 오렌지와 벽돌담들 그리고 옥수수밭들에 서리가 껴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기(공기)는 맑고 선명했으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뭘 일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레일(철도)들이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날~♥”라고요.

이것이 제 감정을 누그러주었죠(안정시켜주었죠).

저에겐 그만큼 아빠 같은 당신에 대한 신뢰, 제 문제에 대한 조언을 주실 것 같은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남자가… 아빠(키다리 아저씨)보다 더 사랑하
는 그 남자(저비스 도련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
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여행 전에 그를 먼저 만나야할 것 같은 감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당신이 있는 거예요! (꾸준히 달나라로 가는 내 해석 T_T
쏘오리~)

‘메디슨 거리’(뉴욕 시의 광고업 중심가)에 있는 저택에 다다랐을 땐, 갈색
의 집이 너무나도 크고 출입을 허락지 않을 거 같은 표정이라 감히 들어가
지 못하고 있었어요.

▼ 네이버 지도 (검색어 = 메디슨 거리)

[대축척지도]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0.74087610000001,-73.9879814&zoom=17&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0.74087610000001,-73.9879814&client=gme-nhncorp&signature=Q1ccBkNvRQA8mcHsNsQK46LUtQk=&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1 (검색일자 : 2016-7-13)

[소축척지도]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40.74087610000001,-73.9879814&zoom=12&size=886x415&sensor=false&markers=40.74087610000001,-73.9879814&client=gme-nhncorp&signature=eGtfkBo5y3rDSfGrxWH8_XR6JQU=&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1 (검색일자 : 2016-7-13)

그렇게 집 주위를 돌아다니다 급 용기가 났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당신 집의 집사 분이 너무도 친절한 아빠 같은 노인 분이시라 곧

제 마음을 집에 온 것 같이 포근하게 해주었거든요.

“미스 에벗 양이시죠?” (에벗=‘여주인공의 성씨’)

라며 집사 분이 제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 제가 스미스 씨를 보러 왔다는 말을 안 해도 되었
답니다.(스미스 씨가 키다리 아저씨의 가명이라, 집사 분이 못 알아들을까봐
여주인공은 출발 전 걱정했음)

집사 분이 제게,

“응접실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해주었거든요.

응접실은 매우 흐리고(어둡고) 웅장한 게 살짝 남자 화장실 같은 방이었어
요.

겉천(겉의 천)이 깔린 큰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속으로 계속 대내였답니
다.

“이제 곧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는 거야! 고대하던 키-다-리 아-저-
씨를 만나는 거라고!”

라고요.

그런 다음 곧 나이 많은 그 집사 분이 다시 오시더니,

“서재에서 기다리십시오.”

라며 말해주었어요.

너무 떨려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서재 문 앞에서 집사 분이 저를 보시며 살며시 말씀하시길,

“그 분(저비스 도련님)은 몹시 편찮으십니다, 아가씨. 오늘이 그 분이 앉아

도 된다고 허락 받은 첫째 날입니다. 그 분께 지장이 있을 만큼은 오래 머무르시지 않으실 거죠?”

이 말을 통해 집사 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사 분이 노부인 같은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 집사 분이 노크를 한 다음 말했죠.

“미스 에벗 양이십니다.” (에벗=여주인공의 성씨)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집사 분이 제 뒤로 문을 조용히 닫으셨어요.

밝은 조명의 복도에서 빛이 어두운(어두운)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순간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곧 벽난로 앞쪽에 큰 안락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보이고 그 옆에 좀 더 작은 의자와 함께 찻(마시는 차) 테이블 빛나는 게 보이더군요.

그제야 저는 한 남성이 무릎 위에 담요를 걸치고서 베게들로 몸을 지탱해 가며 그 큰 의자에 앉아 계신 것이 보였어요.

저는 멈춰 서서 그가 고개를 드는 것을… 약간 위태위태하며… 의자에 등을 기대 앉은 채 그 분이 한 마디 말도 없이 저를 찬찬히 바라다보시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 그건 당신이었어요!

심지어 당신을 보고도 저는 깨닫지 못했답니다.

전 다만 아빠(키다리 아저씨)가 제가 당신을 만날 수 있게 당신을 거기로 (키다리 아저씨의 집) 부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당신은 웃으시며 손을 내뻗어 이렇게 말했죠.

“꼬마 숙녀 ‘주디’(여주인공의 애칭=별명. 여주인공은 자신을 ‘주디’라고 불러주길 원함. 입이 아니라 영어 여자 이름 ‘주디’임) 양, 내(저비스 도련님)가 키-다-리 아저씨 일 거라곤 미처 생각 못해본 거야?”

순간 번쩍하고 저를 스쳐가는 게 있더군요.

오, 이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어리석었을 수가!

두 사람 사이에 수백 가지의 연결고리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제게 약간의 위트(재치)만 있었더라도, 아니 제가 참 좋은 탐정이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빠?... 저비스(저비스 도련님의 이름)?

제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그냥 편하게 저비스 라고 부르면 실례될 거 같아서요, 전 당신께 경솔할 수 없어요!

아주 달콤한 30분을 보내고, 의사 선생님이 도착하셔서 제가 그만 가봐야 했죠.

정거장(=역)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너무나 정신이 멍해 하마터면 세인트루이스(미국 중동부 도시. 아래의 네이버지도 참조)로 가는 기차를 탈 뻔 했습니다.

▼ 네이버지도 (검색어 = 세인트루이스)

http://maps.google.co.kr/maps/api/staticmap?center=38.62700249999999,-90.19940419999999&zoom=4&size=886x415&sensor=false&markers=38.62700249999999,-90.19940419999999&client=gme-nhncorp&signature=kdbwcvztYqLxv9LieEXjcsPMuns=&caller=naver_se3_blog&scale=2&dataversion=149.1 (검색일자 : 2016-7-14)

당신도 역시 많이 얼떨떨해하셨어요.

제게 차(=마시는 차) 대접 하는 걸 깜빡하셨거든요.

하지만 우리 둘 다는 아주, 아주 행복했죠, 그죠?

어둠 속에서 차를 타고 다시 록(=늘어뜨린) 월로루(=버드나무) 농장으로 돌아오는 중에 보인 하늘 위의 별들이 어찌나 반짝이든지!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제가 당신과 함께 했던 모든 장소들을 둘러보며 당신이 한 말들과 당신이 보았던 세상을 되새기려 ‘쿨린’(양치기 개 이름)과 함께 밖으로 나갔답니다.

오늘 숲은 청동색 빛깔을 내뿜고 있고요, 대기(공기) 중엔 서리가 가득해요.

영락없는 ‘상승기류’(=저기압=공기가 상승=날씨가 흐려지고 구름이 생김) 날씨네요.

당신이 지금 여기 있어 저와 같이 이 언덕들을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전 지금 당신을 끔찍이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비스’(키다리 아저씨), 하지만 이건 쓰라린 그리움이 아닌 행복의 그리움이예요.

우리 둘 곧 만나요.

우린 이제 서로의 허상(=상상)이 아닌, 진실로 참된 서로의 것이잖아요.

결국 제게도 종착역이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누구의 소유라는 게 기묘(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아주, 아주 감미로워요.

(그리고 저) 이제부터 단 한 순간도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것, 영원히 언제나,

주디(여주인공 애칭)가.

추신.

이게 제 생애 첫 연애편지였단 게 믿어지시나요. 시작할 때 제가 연애편지를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몰랐다는 게 우습지 않으세요? ㅋㅋ 사랑해요~♥

(원문에 있는 끝 글자→) THE END

끝

(67장 끝)

(22세. 대학교 졸업 후 4개월 경과. 총 1통을 직접 건네줌)

(입학 후 66번째이자, 졸업 후 7번째, 직접 1통을 줌)

(소설 전체 끝)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018년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다른 영문소설의 해석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작권이 소멸된 쉬운 영문소설로요 ㅋㅋ 그럼 안녕~ by 마음 블로그”

끝~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